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3월 17일(음력2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465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탄핵 정국’ 우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교계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국민 단합과 지혜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탄핵안 가결 즉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모아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며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한 노력으로 국민단합 모색해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극단으로 치닫기 보다는 안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원융화합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도 “국민들의 큰 자비, 큰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실천승가회, 재가연대, 대불청, 불교여성개발원 등 불교계 단체들도 공식 또는 단체장의 입장 표명을 통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정치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 남동우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 통화로 신청

■ 전화요금 합산 납부 신청
전화요금에 구독료를 합산하여 납부 (한국통신 전화번호와 전화가입자 이름만 전화로 통보하시면 신청완료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납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1구좌 1천원 법보시 동참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복지기관 등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 구독 · 법보시 동참 문의
02)737-0090 / 02)737-8881

불자들 ‘공부바람’ 전국 후끈

불교대학 수강생 최고 2배까지 늘어 “강의실 좁다”

20~30대 · 남성 증가 추세… ‘바른신행’ 견인

불교대학에 ‘공부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

올봄 새 학기를 시작한 전국 불교대학의 수강인원이 예년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전역에 불고 있는 명상열풍과, 한국불교계의 선에 대한 관심이 불교대학의 면학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20~30대 불자와 남성불자들의 참여가 연평균 20~30% 가량 증가, 기존 40~50대 여성 재가불자 중심의 수강계층을 변화시키며 학습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본지가 최근 100여개의 불교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강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불광사불교대와 능인선원불교대, 인천불교대 등 서울 · 경기지역의 불교대학. 불광사불교대는 포교원에서 선정한 ‘2003학년도 우수교육기관’의 명성에 걸맞게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수강생이 늘었다. 능인선원불교대 또한 기수별 모임과 재학 · 졸업생들의 연계활동 등으로 수강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밖에 구미불교대와 청도불교대 등 대구 · 경북지역의 불교대학과 전북불교대, 강진불교대, 남원불교대, 이리불교대 등 호남 지역 불교대학대학들도 공부 열기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수강생 증가 외에 참여연령이 낮아지고, 남성불자들의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도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다. 충북불교대의 경우 지난해까지 50대 여성불자가 주를 이뤘던 수강층이 30대로 대폭 낮아지면서 전체 분위기가 젊고 밝아졌다. 대구불교대와 경북불교대는 올해 30대~40대의 수강생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호남 지역 불교대학의 경우 지역 관공서 직원들의 입학이 두드러졌으며, 무교 · 타종교인들의 입학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불자들의 활동도 주목할만하다. 전체 수강생의 70%가 남성불자들로 구성된 서울 동산불교대는 거사 신행단체인 ‘붓다클럽’을 창설, 전국에 지부를 두고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와 통도사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강원불교대학 역시 정치 · 언론 ·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사들을 중심으로 군법당과 보훈병원 등지에서 포교와 교육봉사 활동을 벌이며 재가 신행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구불교대 전병효 사무장은 “제대로 알고 신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이 늘어나면서 퇴근 후 남성불자들과 젊은 층의 불자들이 불교대학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교대학이 젊어지고 참가대상이 다양해지는 이유는 인식변화 이외에도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 개발과 자원봉사, 유적답사 등의 특활반 활동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감로사불교대와 대한불교교사대, 영축불교대 등이 요가 · 참선 · 다도 · 상담이론 · 사찰음식 만들기 등 생활에 유익한 강좌들을 개설해 지역 불자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 · 경기지역의 조계사 · 봉은사 · 도선사 · 화계사 불교대 역시 마찬가지.

이들 불교대학은 수강 기수별 단위모임을 자체적으로 조직, 요양원과 보육원 등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인 후원활동과 봉사활동들을 벌이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금강불교대와 진주불교교양대, 울산불교교육대, 정토불교대 등이 있다.

울산불교교육대 박봉화 사무장은 “불교교육과 문화활동에 대한 재가불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강좌의 질과 학습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심지어 불교대학이 새롭게 개설되고 있다”며 “울산지역만 해도 정토사불교대, 시민불교대, 여래사불교대 등 7개 불교대학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대구 · 경남지역도 3월에 청도불교대, 선불교대 등이 신설돼 첫 입학식을 갖는다.

이준엽 · 천미희 · 김은경 · 배지선 기자



깨끗한 선거로 깨끗한 나라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7대 종교 지도자들은 3월 10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정치 정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병든 정치를 정화한다는 각오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금강대 새 총장에 김유혁 씨 선임

금강불교학원(이사장 도용)은 3월 9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제20차 임시 이사회에서 천태종립 금강대 제2대 총장에 김유혁(73) 박사를 선출했다.

김유혁 신임 총장은 “금강대의 지역적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지원률, 재학률, 취업률을 동시에 제고하는 경영기법을 통해 금강대를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14면 박봉영 기자

선원장 초청 대법회

법장 스님

‘경허 · 만공선사의 가르침’

3월 21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여름캠프

하와이에서 여름방학을!

영어 배우고 역사 · 문화체험도…

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캠프는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7월 28일~8월 17일(20박 21일)
□ **참가비** : 25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 3월 15일~5월 10일까지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협찬** : 진각종통리원 (재)대한불교진흥원 (재)보덕학회

□ **주요 프로그램**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54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총 60시간에 걸쳐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역사체험– 한인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 **이런 점이 좋아요**

▷참가비 최소화– 무량사 숙식 후원, 항공요금과 교육비, 관광요금만 정산.

▷믿을 수 있는 기관– 불교계 대표 언론사와 하와이 무량사가 주최

▷원어민 교수진– 소정의 자격을 획득하고, 국제경험을 쌓은 원어민 강사

▷어학연수기관 사용 교재– 미국 어학연수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효과적인 회화구사– 문화체험시 실제 상황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

▷단계별 수업– Test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레벨에서 공부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6-292-1987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할’



그림 · 조태호

- 함주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갑신년 윤달엔 천년고찰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천년고찰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이어 왔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갑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투어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세시기>). 특히 윤달에 생전예수재를 행하기 전에 방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봄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름있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4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절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부산 중심가에서 10년 동안의 도심 포교를 접고, 3년 전 도시 외곽의 전원적인 시골풍경이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처를 옮긴 후의 일이다. 동네에 사는 젊은 여자 신도가 찾아와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불교를 믿고 있지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고무된 어조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유인 즉은 그 교회 목사님이 동네의 소년 · 소녀 가장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베풂이 너무도 감동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마을 부녀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돕는다는 것이다. 도시외곽의 조그마한 동네 작은 교회에서 헌금이 넘칠 일도 없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마음에서 이미 사람들은 종교를 넘어 무엇인가 협조해야겠다는 공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부터 이곳에서 어떤 의미의 절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수행과 나눔의 공간 만들어 지역 문화 · 복지의 중심돼야

최근 들어 많은 절들이 이웃을 향한 자비심을 실천하고 있다. IMF 사태로 실직자가 넘칠 때 우리도 무료 급식을 했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들어오는 보시가 넘쳐나서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나누어 줄 정도였다.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노인들을 위한 급식은 물론 노인대학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복지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세상과 함께 해야 한다. 문화관을 만들어 어린이 합창단, 사물놀이, 무용을 위시해서 어른들의 사물놀이, 꽃꽂이, 판소리 등 십여 가지의 다양한 강좌를 열었다. 절이 신행은 물론 취미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때 사람들이 가볍고 편하게 절에 온다. 그러니까 절을 개방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느 절에선가 차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신도들이 좋아해서 우리도 커피든 녹차든 자유로 마실 수 있게 시설을 했다. 반응은 대단했다. 물론 관광객으로 붐비는 큰절에서는 쉽게 엄두를 못 낼 일이다.

이렇듯이 절은 기도 공간이기도하고 여가 선용 및 사회봉사의 종합 매체로 변신해야만 이 시대와 호흡할 수 있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로잔치나 음악회가 아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공감하며 '열린 공간 열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스님들은 항상 신도들이 절에 많이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바람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역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행의 길을 택한 것처럼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진정 사람들과 공유할 일이다.

■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절에 갈땐 Koreatemple.net 클릭

역사 · 문화 · 주변정보등 총망라… 1차 오픈
조계종, 전통사찰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에 조용한 산사를 찾고 싶어 인터넷 주소창에 '전통사찰'을 입력시켰다. 잠시 후 모니터에 '전통사찰관광종합정보(www.koreatemple.net)' 홈페이지가 뜬다.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이 보고 싶어 선운사를 다시 검색한다. 모니터에서는 고창과 선운사에 대한 정보를 비롯 △주변관광지 △숙박/먹거리 △영화/드라마 촬영지 △사찰과 문학 △사찰생태기행 △사찰 찾아가기 △주변 자연환경 △사찰 문화행사 △사찰 자랑거리 △사찰 갤러리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불교 및 사찰과 관련한 일반 상식이 제공되는 사찰따라잡기와 3차원 형식으로 보여주는 사찰가상체험 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조계종 정보화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정보시스템'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정보화사업단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통사찰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1차년도 시험판을 공개했다.

시험판은 전국 전통사찰 877개 중 63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관련 유물, 보물, 주요 지정문화재, 성보문화재 등과 주변 관광관련 콘텐츠로 구성됐다. 정보시스템은 총 3년여에 걸쳐 구축되며 전통사찰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사찰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화활동, 불교정신수련 및 사찰음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정보화사업단 박맹수 과장은 "영어버전도 구축해 템플스테이, 선 문화체험, 전통사찰문화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수행체계 확립작업 '순풍'

실무연구위, 금년내 초안 마련하기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조계종의 수행체계 확립이 올 연말까지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계종 수행체계 실무연구위원회는 최근 열린 6차 회의에서 간화선 지침서 및 제반 수행프로그램 토론회 일정을 확정하고 12월까지 간화선을 비롯한 각 수행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작년 말 발족 이후 간화선외에도 흔히 행해지고 있는 11개 수행법 별로 경전 · 역사적 근거, 실수, 현황 등에 대해 내부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온 수행체계 실무연구위원회는 수행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3, 4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반 수행법 연구보고서와 프로그램 개발안(11월), 각 수행법에 대한 프로그램 초안(12월)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선원장 스님들이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는 간화선 지침서 역시 빠르면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포교원도 4월 2~3일 영주 부석사에서 열리는 '신도 수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행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문화재청 승격 축하연

문화재청 승격을 축하하는 간담회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3월 11일 광주 상무리츠컨벤션에서 열렸다.

사회부장 미산 스님,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현고 스님, 광주사암련회장 현지 스님, 승보회장 광민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을 비롯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승격'에 앞장선 전갑길 국회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광주=이준엽 기자

"본사주지 겸직금지 개정 공감"

법장 스님 불국사 간담회서 피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9일 제11교구본사 불국사에서 열린 교구 본 · 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 간담회에서 "총무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종헌 · 종법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장주 스님(오어사 주지)의 건의에 "겸직금지 조항은 과거 총무원장이 본 · 말사 주지 임명권을 갖고 있을 당시 제정된 것이므로 본사주지가 선출제로 바뀐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장 스님은 "중앙종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신계사 복원 불사의 적극 협조를 약속하며 신계사복원추진본부장에 추대됐다. 경주=배지선 기자

동국학원 이사후보 혜림스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는 3월 10일 열린 제55차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혜림스님을 학교법인 동국학원 새 이사후보로 추천했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기념관' 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역사문화기념관 불사와 템플스테이 확대추진 등 주요 종책에 대해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2차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것을 기원했다. 또 기록물을 관리하는 문서고를 둘러보며 관심을 표명했으며, 포교원을 방문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유지재단 정관변경 추진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사장 법장)이 현 정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유지재단은 3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부터 정부예산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주체는 재단법인이 하고 실사업 추진주체 및 운영자는 교구본사가 담당하지만 현 정관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분사무소(지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24개 교구본사를 지부로 등기하고, 사업 종류에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종류별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림법 종회상정키로

종헌종법 특위, '특별교구' 신설도

'총림설치법'을 대체할 '총림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헌 · 종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는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림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15안거 이상 성만'한 본분종사"로 하는 등의 총림법 제정안을 종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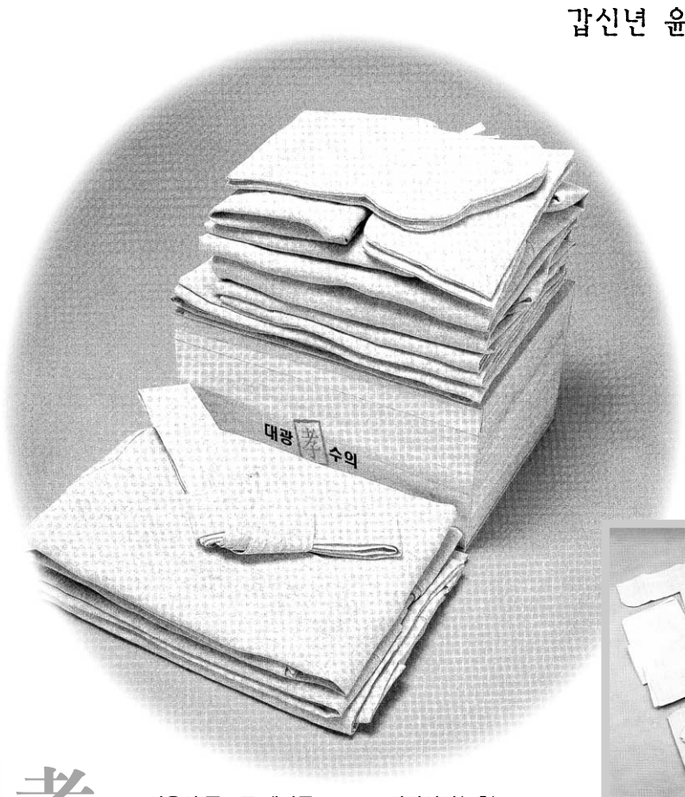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총림 주지는 방장이 임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임회의 기능을 강화해 "임회는 방장, 수좌, 주지, 유나, 율주, 학장, 당주, 당해 교구의 재적 중앙종회의원, 주지가 추천한 종무원법상의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3인,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교구의 법계 종덕 이상의 승려 11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위원회는 또 '재단법인 중앙교원'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으로, '기초선원'의 명칭을 '기본선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독신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해 현재 설치를 준비 중인 군승교구를 비롯, 향후 선학원 교구, 해외교구 등 종단 내 25개 일반교구와 기능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교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

남동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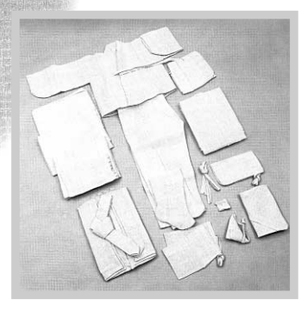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역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3월21~ 4월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신임이사 13명 추천
불교TV 이사회

불교TV(회장 성우)는 3월 10일 불교TV 4층 회의실에서 제 50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로 13명을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신임이사에는 성관(조계종 총무부장) · 종광(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 도일(곡성 성륜사 주지) · 성문(천안 성거사 주지) · 홍법(양양 휴휴암 주지) · 철우(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장), 도일(봉천사 주지) 스님, 조재용(전 영풍산업대표이사), 김재복(태성바인택 대표이사), 구본흥(보스베이커리 대표), 김동덕(전 코리아햄프 대표), 전인구(예비역 준장) 씨, 손경락 감사 등이다.

이로써 불교TV는 3월 30일 제 10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실상 이사선임을 확정 짓고 임기가 만료된 우판수 이사, 손기원 감사 등을 제외한 총 21명의 이사단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 53억 6천 8백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기자재 보수 및 매입(3억 7천), 운영비, 인건비, 디지털방송 준비비 등을 포함한 액수다.

한상희 기자

민주당 인터넷 공천 등록
개신교6 불교1 가톨릭1 順
김석오 종단협국장 입후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후보자 공천방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공천 방식은 새천년민주당의 인터넷을 통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이다.

네티즌의 투표로 다득표자 1명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결정하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다양한 후보자들이 입후보했다.

3월 10일 마감한 입후보자는 총 22명. 이 중 개신교 6명, 가톨릭 1명 등 기독교인이 7명이 포함돼 있지만, 불교인은 단 1명뿐이다. 김석오(38)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직 무 대 행 이 주 인 공 (www.win0415.net).

네티즌이 뽑는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은 3월 29일 종료된다. 3월 18~19일 실시되는 1차 인터넷 투표를 거쳐 26~27일 진행되는 2차 투표에서 1위를 해야 비례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박봉영 기자

원자재 가격급등 불교용품 생산 비상

봉축행사때 연등 품귀 우려… 재사용 고려해야

공급량 전년대비 70% 그칠듯

고철 · 철근 등 일부 원자재의 국제적 가격상승과 국내 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5월 봉축행사를 앞두고 불교용품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철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불교용품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원자재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아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름등은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단가상의 이유로 국내 소비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왔던터라 원자재 파동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연등소비량의 30%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 '찬덕연등'의 경우, 일정량의 원자재를 미리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 생산량의 70%가량만을 생산할 계획이다. 사찰 수요만큼 연등을 생산해내려면 원자재를 더 구입하거나, 중국산 연등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찬덕연등 생산담당자는 "생산량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때문이지만, 공급 후 수금결제라는 사찰 관행이 연등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인천과 부산 등지의 메이저급 연등생산 · 수출업체 2~3곳도 비슷한 상황인걸로 안다"고 밝혔다.

사실 그 동안 연등시장은 사찰의 '선주문 후결제'가 관행이었으나 최근 경기악화와 경제침체로 인해 자금조달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자본력과 생산공장, 물류창고 등을 갖춘 메이저급 생산 · 수출업체들이야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회전력과 자체 원자재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생산업체들은 아예 연등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용품전문쇼핑몰 마하몰의 하동규 과장은 "올해 일부 영세상권에서는 연등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사찰들이 올해 봉축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생산된 연등을 확보하거나 쓰던 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 수급문제와 관련, 3월 3일 고철 · 철근 등 2개 품목에 관해 수출을 제한하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출고를 제한하며 가수요를 단속하는 등 원자재의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조계사 매달 '희망법회' 연다

청년회 주최, 20일 첫 실시

"내가 밝히는 작은 희망의 등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듭니다."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메신저 10명을 초청, 매달 한차례 '희망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될 이번 희망법회는 희망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 20일 첫 번째 희망메신저는 병마로 고통 받는 투병환자들에게 자신의 신장과 간을 기증한 강필원(남 · 50) 씨. 이어 4월 17일에는 NGO 및 인권분야의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5월 15일에는 강한 도전정신의 산악인 박영석 씨, 6월 19일에는 환경분야의 지율(내원사 산감)스님 등이 희망메신저로 나선다.

정우식 회장은 "희망법회는 우리 사회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찾아,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킬 힘을 찾는 시간"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사회 곳곳에 희망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2)735-3724

김은경 기자

통영환경련, 종회의원 대상 진정

미륵산 케이블카 관련

미륵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통영환경운동연합이 3월 4일자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발송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진정서에서 "최근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은 부지사용을 조건으로 통영시장에게 현찰 60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에 밝혀졌고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미륵산 개발 저지 시민 공동대표로써의 본분을 헌신짝처럼 던진 모습은 속인으로서도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처사"라며 강력 비난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사찰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계종의 연대 종책 사업이 한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대오를 이탈한다면 조계종 산하 수많은 불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의 추상같은 일벌백계의 문책이 있어 미륵산을 수호하고 미륵성지를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청원했다. 남동우 기자

北 개성 영통사 복원용
통일기와 5차분 전달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는 3월 8일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 6만 5천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방북단 10명(단장 무원)은 기와를 실은 대한통운 18톤 트럭 12대 등의 차량을 인솔해 개성공단 현장에 도착해 기와를 하차한 뒤, 이어 영통사 복원위원회와 함께 물품인계인수식을 마쳤다.

천태종은 이번 지원으로 총 46만장 가운데 3만3천여장을 전달 완료했으며, 3월 29일 잔여분을 보낼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목탁소리

영안실이 뭐길래

3월 들어 동국대 홍기삼 총장(4일)과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9일)이 잇달아 교계 기자들을 만나 일산 불교병원 내년 3월 개원 의지를 밝혔다. 일정상 "벅찬 감"도 있고 "상당한 무리"도 있다는 전제를 달고서 말이다. 개원 준비에 '올인'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관심은 '영안실'에 있는 듯하다. 총장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사장이 "재단 직영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견이야 다를 수 있지만 '찰떡궁합'을 과시해도 모자랄 판에 총장과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보이자 '도대체 영안실이 무엇이기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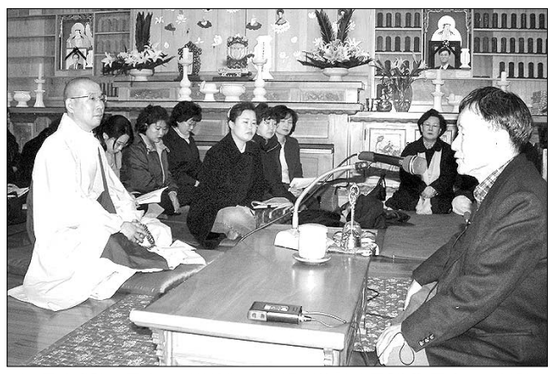
재정 지원이 적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재단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다시 학교(병원)로 돌려줌으로써 낯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이 안정적 궤도에 올랐을 때 다른 수익사업이나 학교 운영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에도 공감이 간다.

그런데도 의혹이 쉬 가라앉지 않는 것은 '신뢰'의 문제인 듯하다. 수익금이 100%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업체 선정이나 운영 과정이 투명해도 '떡고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말이다. 속을 끄집어내 보여줄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누가'보다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먼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권형진 기자

불교와 문학을 말한다

달마문예대학 1기 초급문예과정 개강



달마문예대학 고문 신경림(시인) 씨가 '우리생활과 문학'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운문·산문반 구성
'우리 명시와 불교'
'창작지도' 등 강의

2004년 서울 도심 사찰에서 시인 신경림, 소설가 김성동, 수필가 맹란자 씨 등이 문학의 보고인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생활 속의 문학으로 풀어내는 법석이 시작됐다.

서울 흑석동 달마사(주지 미명)는 3월 6일부터 '달마문예대학' 제1기 초급문예과정을 개강했다. 운문반, 산문반으로 나눠져 있는 초급문예과정은 올 5월 말까지 '우리 명시와 불교' '현대 산문과 불교' '문학연수 및 사찰체험' '창작지도' 등의 강의로 꾸며진다.

6일 개강식.

종림 스님(달마사 회주,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이 멋쩍은 듯 슬쩍 웃으며 인사말을 한다. 달마사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요지의 인사말이지만 '분절음'이다. 학장인 김성동(달마문예대학 고문) 씨가 환영사를 잇지만 조리 있게 말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자 사회를 보는 서동석 법사가 둘러친다.

"김성동 선생님은 곡차를 한잔 하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곡차를 먼저 대접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동 씨가 웃으며 반배 합장한다.

신경림(달마문예대학 고문) 씨가 '우리생활과 문학'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한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말한다.

군사독재의 서슬이 퍼랬던 시절, 그러나 낭만과 치기가 있었단다. 이해도 잘 못하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영문판 〈공산당 선언〉을 줄줄 외기도 했다고 한다. 진보당 사건으로 선배들이 붙들려가니까 수사대상과 별 관계도 없으면서 두려워 시골로 도망을 갔다고도 했다. 농사일을 도우며 '농무'를 썼지만 농촌시라고 할 순 있어도 농민시라고 하기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고백한다. '부끄러움과 반성의 미학'이다.

신경림 씨가 밝히는 문학관은 첫째,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둘째, 시는 시로서 독자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시인이 목적의식에 빠지면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지 못한다.

눈을 감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 모두 진지한 모습들이다.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이한종(64) 시인은 '비우기 위해 배우러 왔다'고 설명한다.

주지 미명 스님은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문화적 욕구에 목말라있지만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부족해 사찰에서 문예대학을 마련했다"며 "중 · 고급과정부터는 강사진에도 변화를 줘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 Templestay 운영사찰 접수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Templestay)은 산사체험 및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할 뜻이 있는 사찰을 지정 운영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 받고자 공고합니다.

■ 템플스테이 운영 지정 사찰

1. 지정사찰이란 : 2002 한 · 일 월드컵 이후 널리 알려진 템플스테이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사찰을 지정하고 지정된 운영사찰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자료 및 인력, 운영자 연수, 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2. 신청사찰 요건 : 산사체험 및 수련회 기실시 사찰 (기본 시설 구비)
산사체험 및 수련회 상시 또는 정기 운영 역량이 있는 사찰
프로그램 운영자(스님) 및 운영 보조인력이 있는 사찰

■ 제출서류

- 기존 운영 현황 1부
  양식 1 - 기 실시 운영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특징 및 운영 기록 자료 첨부)
- 운영 계획서 1부
  양식 2 - 사찰현황표 및 운영계획서
- 기타자료
  사찰 홍보물 일체, 사찰 조감도 및 건물 배치도 각 1부씩, 사진 (사찰전경사진, 내부 사진, 프로그램 운영장소별 사진, 숙소공간별 사진, 화장실 및 샤워실, 기타 경내 편의시설)
  ※ 양식은 www.buddhism.or.kr, www.ibuddhism.org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정 절차
공고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사찰실사 → 사찰선정

■ 접수기한 : 2004년 4월 6일(화)까지

■ 접수 및 문의처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1층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
ts2002@buddhism.or.kr **02)732-9925**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2004. 3. 12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 사업단장

한국불교 전통문화체험 Templestay 사업 개요

1. 사업 방향
2002 한 · 일 월드컵 이후 널리 알려진 템플스테이사업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첫째, 금년(2004년) 템플스테이 사업단 출범과 운영사찰을 지정하며,
둘째, 불자 및 국민대중의 다양한 전통불교문화체험과 선수행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국내 거주 및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의 확산과 인지도를 높인다.
2. 기대 효과
- 불자 및 국민대중의 참선 수행을 통한 심성개발
- 한국 전통 문화 및 한국 불교 홍보를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한국전통 체험문화 콘텐츠 개발과 체험관광문화 활성화 기여
-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일반시민의 전통사찰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 여가문화 창달선도
- 종단 종무기관 및 사찰의 내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량 구축
3. 사업배경
- '02월드컵, '03유니버시아드대회 시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한 한국불교 인지도 제고와 세계적인 수행분위기 고조에 따른 불교 역할 기대감 상승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성숙된 국민 여가 프로그램 제공과 전통문화(사찰) 탐방기회 증가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로 '전통사찰'을 한국 고유문화 상품으로 개발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의 적극적인 대응
4. 주요 사업 영역
- 사업단 (사무국)
  - 템플스테이 장기적 운영 계획수립과 추진
  - 홍보, 예약 시스템 구축 및 가동
  - 운영사찰 지원 및 관리(프로그램, 인력, 자료 등 지원)
  - 사업단 물적, 인적 토대 구축 (예산수급, 자원활동가 인력, 자료 발간 등)
  - 정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정 운영사찰 : 2002 한 · 일 월드컵 이후 널리 알려진 템플스테이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사찰을 지정하고 지정된 운영사찰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자료 및 인력, 운영자 연수, 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따라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은 다음의 원력이 요구됩니다.
첫째, 프로그램운영 및 참가자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적인 운영 원력
둘째, 사업단과 긴밀한 협조속에 각종 정보공유와 현황보고
셋째,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역할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르는 것이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어린 아이들에게 기초적 생활습관과 소양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 한번 습득한 지식이나 행동 요령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유아 교육현장을 뛰는 비구니 스님들

불교계에서도 그동안 많은 불자들이 도심이나 사찰 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 불교적 심성을 가진 '참사람(無位眞人)'을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활동이 왕성하다.

스님들의 교육 활동은 굳이 다도나 참선 등 불교 수행법과 연관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합장 등 불교적 심성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



법성 스님 계호 스님 혜주 스님 성현 스님 혜도 스님 혜득 스님 행법 스님 일오 스님 효민 스님 경륜 스님 성우 스님 정원 스님

"새싹을 길러야 꽃 피고 열매 맺죠"

유치원

어린이 불교교재 발간 눈높이 불심심기 구슬땀

1981년 연화유치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20년 넘게 유아 교육에 매진해 온 포항 옥천사 주지 **혜주 스님**은 불교 유아 교육 종사자들이 꼭 한번쯤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손꼽힌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해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자신의 교육 경험과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 불교학습 교재'를 발간했기 때문이다. 770×515 사이즈로 제작된 대형 차트 181매로 구성된 이 교재는 전설편, 유래편, 예절편으로 나누어 동화구현, 찬불가 등의 학습 지도서로 현재 전국 유아교육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스님은 불교유아교육협회를 창립해 불교유아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종 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감사, 횡성 보광사 주지로 활동하고 있는 **계호 스님**. 그러나 스님은 룸비니유치원장 소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부처님의 품안에서 밝게 자란 어린이들이 불교의 미래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다. 그래서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에서 13년간 강사 소임을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10여년을 한결같이 선재동자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도, 인사 잘하기, 물건 아끼기, 또래 집단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 6시면 어김없이 유치원의 문을 여는 미타유치원장 **성현 스님**은 교실 정리 상태에서부터 아이들의 간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한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다. 교육에 있어서도 불교에 친숙할 수 있도록 오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부처님과의 약속'으로 바꾸어 매일 암송하는 등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는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시설 경영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현재 유치원 입학 대기자만해도 100여명에 가까울 정도다.



불교의 미래인 새싹불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비구니스님들의 활동이 왕성하다. 사진은 청룡유치원장 정명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전통문양 퍼즐놀이를 가르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정명 스님은 요즘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16년간 운영해오던 청룡유치원을 지난해 내부수리를 위해 1년간 쉬고 다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유치원 승합차를 직접 몰며 아이들의 등학교를 일일이 챙기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국대 대학원 유아교육과에서 불교유아교육학의 석학 대원 스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고 있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를 맡으며 왕성한 NGO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선덕사 선덕유치원장 **행법 스님**, 주변 야산을 이용해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에게 불교적 생명관을 심어주고 있는 보문사 은영유치원장 **정원 스님**, 전주 정혜사 보문유치원장 **지관 스님**, 대구 금강유치원장 **현철 스님**, 언양 석남사 유치원 **도수 스님** 등도 불교 유아교육 분야에서 빼 놓을수 없는 스님들이다.

어린이집

위탁에서 사찰 직영까지 '인재불사'의 주춧돌 놓기

교육부의 감독을 받으며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관인' 교육기관이 유치원이라면 어린이집은 영 ·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 복지차원의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까다로운 원장 자격을 요구하는 유치원에 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스님이 일정한 경력만 있으면 직접 유아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조계종 종회의원이자 평택 자비사 주지인 자비동산어린이집 원장 **법성 스님**. 인재 불사가 최고의 불사라는 생각으로 경내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사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했고 수영장도 설치해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혜도 스님**은 몇 년전 성동구청에서 공개 모집한 안암어린이집 원장으로 선발, 스님으로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회복지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숙덕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한 스님은 이론가에 그치지 않고 직접 유아 교육을 펼치는 실천가인 셈이다.

부산 반야3동 어린이집 원장 **일오 스님**도 스님으로서는 드물게 구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6년 부산 옥련선원 유치원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한 스님은 유아교육 경력만도 15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반여3동 어린이집은 부산의 72개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어린이집이라는 점만 보아도 스님이 어느 정도의 실력자인가를 금방 알수 있다.

어린이 불교학교를 하다가 호응이 좋아 어린이집을 개설한 서울 마하선원 어린이집 원장 **경륜 스님**.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학부형들이 먼저 알고 어린이집을 찾을 정도로 스님만의 독특한 유아 교육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 어린시절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더욱 성심껏 아이들을 돌본다는 스님은 지역 원장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광운대, 서울 과학고의 지도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 중구 달성동에 위치한 동원어린이집 원장 **효민 스님**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매달 본인의 월급을 간식비로 내 놓을 정도로 헌신적이다. 1995년 국립사회복지원에서 시설장 연수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 풍기어린이집 원장 **혜득 스님**은 지역 포교가 유치부에서 시작해 초등부, 중고등학생회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보문사 은영 어린이집 원장 **성우 스님**, 봉화 중대사 부설 어린이집 원장 **무영 스님** 등도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선재동자를 교육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8> 지순 스님

평생 '인간방생' 실천



"평생을 이곳에서만 있었어. 특별히 한 일도 없고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절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탑골승방으로 알려진 서울 보문동 미타사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구니 노스님이 한분 계신다. 출가 이후 평생을 산문밖 출입을 안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순 스님. 세수가 이미 90이 넘었지만 아직도 잔병하나 없이 정정하다.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여지없는 이웃집 할머니 같지만 스님의 미소에서는 천진불의 온화함이 느껴진다.

1913년 수원에서 태어난 지순 스님은 고모와 함께 요양차 미타사를 찾아 처음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고모가 숨을 거두자 스님은 생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출가

고모 죽음이 출가 계기 "늘 초발심 되새기며 정진"

를 결심했다.

지순 스님은 1939는 유명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득도했다.

"고모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발심해 출가를 하게 됐지.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 알 나이가 되니깐 그때 가졌던 의심과 초발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도 나태해지면 항상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해."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지순 스님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험난한 현대사를 겪으면서 부모를 잃거나 버림 받은 아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두명씩 데려다 키운 것이 지금까지 100여명이 넘는다. 그 아이들은 이제 60이 넘은 할머니가 된 사람도 있고 스님과 같이 출가자의 길을 걷는 구도자도 있는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절, 남보다 먼저 인간 방생을 실천한 스님이 지순 스님인 셈이다.

지순 스님은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모두 잘 자라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코흘리게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되어 손자와 함께 찾아올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순 스님이 미타사 산문을 나선 것은 평생 딱 한번 뿐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은사 스님이신 유명 스님의 명령 아닌 명령으로 어쩔수 없이 사찰에서 기르고 있던 3~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지순 스님은 은사 스님 혼자 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걱정이 돼 한달만에 다시 절로 돌아왔다. 유명 스님은 그동안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절을 굳건히 지켰고 지순 스님은 은사 스님의 이런 모습에 평생 사찰을 지키는 신장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전쟁이 끝난 1954년 유명 스님은 전쟁으로 인해 겪은 고초로 열반했다. 그 이후 지순 스님은 지금까지도 절문을 나서지 않고 있다.

부처님에게 약속한 서원을 지키다 보니 지순 스님은 다른 스님들처럼 선방이나 강원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기자에게도 "난 큰스님이 아니야. 나보다 훨씬 덕높으신 스님들이 많으니 그런 스님을 찾아가 봐"라고 겸손해 하셨다.

9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도 하루에 천알 염주를 수십 차례 돌리며 조석예불과 포행을 빼놓지 않고 있다. 요즘도 속옷이나 양말을 상좌들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 세탁하시는 등 수행자의 여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계시다.

김두식 기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2201-3333

거제 반야원 새 집에서 '새 꿈'


도성 스님과 반야원 원생들이 새롭게 마련된 보금자리에서 집들이 파티를 하고 있다.

내원정사 정련 스님 신축건물 선사
자연학습장 등 재활에 큰도움 될 것
요양원 건립 발원, '최고 복지타운' 소망

때아닌 폭설로 곳곳의 육로가 얼어붙었던 6일, 시원하게 뚫린 해로(海路)를 따라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이 운영하는 거제도 반야원(원장 도성)을 찾았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반야원을 들어서자마자 달려나온 정섭(14살)이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나는 천사!"를 연발하며 안겨왔다. 뜻밖의 환대다. 정섭이가 이렇게 기분이 들떠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날이 바로 좁고 불편했던 철골 조립식 가건물에서 총 건평 99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새 건물로 이사를 한 날이기 때문이다. 반야원에서 살고 있는 28명의 원생들에게 넓어진 방, 새 가구, 식당 등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집들이 기념으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간단한 파티까지 하고 나니 기분이 그만이다.

이렇게 기분 좋은 아이들 뒤에는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이사장 정련 스님의 복지에 대한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2000년 내원정사가 조계종단의 권유로 치자마을을 인수하고 2002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총 31억에 달하는 공사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정련 스님은 결국 생활실 12동, 집단활동실, 법당, 강당, 가정기능훈련실, 직원숙소 등 최고급 시설의 새집을 반야원 원생들에게 선사했다. 4월 10일 이전 기념 법회를 봉행할 예정인 반야원은 새집을 꾸밀 가전제품류, 식당용품류, 생활가구, 사무용품 등을 후원 받고 있다.

신축 건물에 입주를 시작한 반야원은 2003년 6월 교계 최초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 인가를 받은 후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추가 승인을 받아 중증 장애인 80명, 생활시설 30명 등 총 인원이 110명으로 늘어난다. 반야원 신축으로 음악치료, 도예, 목공 등 각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가능해졌으며 운동장, 산책로, 야외학습장 등의 부대시설은 가족단위의 일반인들에게도 체험 학습장으로 개방된다.

특히 5천 평 규모의 자연학습장은 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 원예치료 등 장애인 재활과 자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장 도성 스님은 주민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마련하고 불교와 사회복지, 복지현장 실무자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내원은 2004년 4월부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착공해 2005년 6월경 준공할 예정이며 장기 계획으로 노인요양원 건립까지 발원하고 있어 '거제 최고의 복지타운'을 내다보고 있다.

원장을 맡은 도성 스님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불자님들이 아쉽다"며 "청소, 목욕, 빨래 등의 봉사와 후원자 관리 등 행정업무 자원봉사 등에서 봉사할 스님, 거사님, 보살님 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원봉사 동참을 호소했다. (055)632-1854

거제도=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성파 스님, 우학·효범 스님에게 전강


우학 스님이 성파 스님으로부터 전강게를 받고 있다

성파 스님(통도사 서운암 무위선원장)이 우학 스님(영남불교대학 회주)과 효범 스님(교육원 교육국장)에게 강맥을 전하는 전법 전강식이 3월 11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 봉행됐다.

홍법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어받고 통도사 주지 원효학원 이사장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한 성파 스님은 이날 우학 스님과 효범 스님에게 화엄경 경전과 전강게를 내림으로서 강맥을 잇는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췄음을 대중에게 밝혔다.

전강을 받은 우학 스님은 전통강원을 열고 학인스님 교육에 매진할 계획을 밝히며, "장차 관음사를 승가와 재가가 함께 하는 종합수행도량의 모습을 갖춘 도심사찰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불국토 '상락정 배산 실버빌' 착공

2005년 3월 완공 예정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혜총)는 3월 10일 실비 노인요양원 '상락정(常樂精) 배산 실버빌' 착공식을 가졌다.

영주암 원통보전 바로 뒤 1천 평 부지에서 거행된 착공식(사진)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 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범산스님, 개금복지관 박용하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은 "노인 복지를 위해 땅을 희사해주신 정관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국토의 모든 복지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여생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상락정 배산 실버빌'은 연면적 445평 규모로 건립되며 2005년 3월 경 완공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부산여불회 창립 10주년 법회
3백여명 참가 13명에 장학금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가 3월 1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부산여성불자회는 천혜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2), 정재선(서울대 인문대학 1)씨 등 13명에게 총 5백 3십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천미희 기자

늘기쁜마을 '환희복지대' 개강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은 3월 10일 당리동 관음사에서 제12기 환희복지대학(학장 지현) 개강식을 가졌다.

복지보건대학의 불심봉사단으로 활동해오던 환희복지대학은 올해부터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주지 지현스님을 학장으로 추대하고 기존의 복지보건대학을 환희복지대학으로, 봉사단은 환희봉사단으로 개명했다. 천미희 기자

영남불교대 칠곡법당 개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3월 10일 회주 우학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구 칠곡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개원법회에서 회주 우학 스님은 "원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고, 참 불자는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며, 광명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법문했다. (053) 312-8221 배지선 기자

대구 대승불교대 2기 입학식

대구 송현동 대승불교대학 범음범패 의식교육원(학장 원통)은 3월 11일 스님과 사부대중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연구반 및 제2기 수련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배지선 기자

지율 스님, 고속철 벌목 현장으로



지율 스님이 경부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현장을 찾아 가부좌를 틀고 천성산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환경 무시 용납할 수 없다"
천성산 수호대 발족 준비

지율 스님은 3월 10일 오후 1시, 고속철 천성산 구간의 벌목 공사가 진행 중인 법기리 개곡마을의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잘려진 나무를 가득 실은 트럭과 마주 보는 두 산 여기저기에 잘려진 채로 흩어져 있는 나무들이었다. 스님은 곧장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지율 스님과 천성산 관통반대 전국비상대책위는 '고속철도는 도롱뇽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7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와 전통사찰 경내지 통과에 따른 법적 수순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사 현장에 나가 공사 강행에 맞설 예정이다.

천성산비상대책위는 10일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부실한 영향평가를 담당했던 동아대 환경연구소와 유신코프레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 현장 사수를 위한 도롱뇽 소송인단 전국 연대 활성화, 천성산 수호를 위한 1000인 수호대 발족을 서두르게 된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사찰문화 체험


범어사 사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현대자동차 현장관리자들이 독경을 하는 모습.

현장관리자 50명 범어사서
예불, 염주만들기 108배 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현장관리자들이 1박 2일 동안의 범어사 사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 근무 중인 반장급 이상 현장관리자 50명은 3월 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범어사에서 사찰체험을 했다. 프로그램은 저녁 · 새벽 예불, 108배, 108 염주 만들기, 불교무예 · 불무도 배우기를 비롯해 '올바른 가족관과 직장관'에 대한 법문과 참선 등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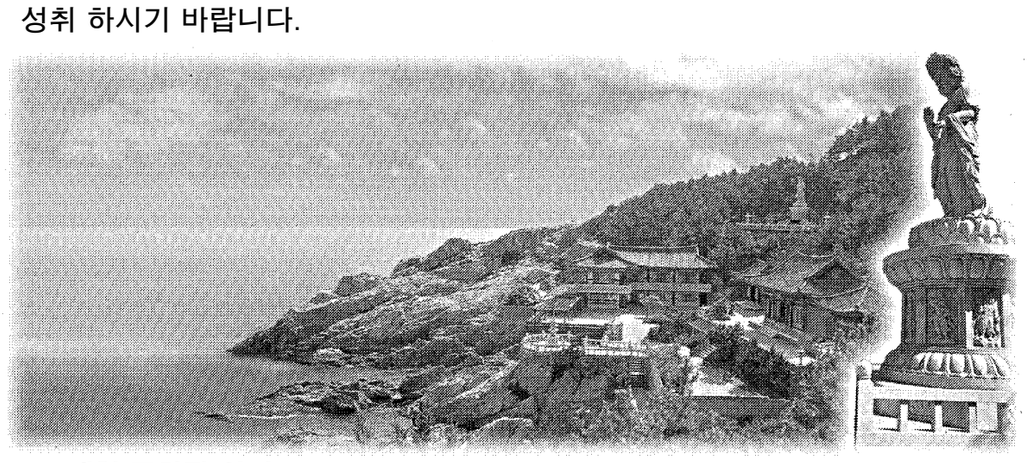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4월초까지 5차에 걸쳐 2백명의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이효성 씨는 "현장에 직접 필요한 교육에 치중해 오던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범어사를 택했다"고 말했다.

종교적인 문제로 우려를 했지만 참가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염주 만들기가 재미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다"등 1박 2일 동안의 범어사 생활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효성 씨는 "임원들은 물론 생산라인의 반장, 기사, 주임 등 현장관리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어 조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보은의 영험이 가득한 치악산 국형사
삼사 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치악산 국형사는 신라경순왕 1150년전 무착선사께서 창건한 이래 명승고찰로써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전국 오악 명산에 산신단을 모셔서 국태민안과 우순풍조를 기원드린바 있습니다. 이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치악산(동악산) 국형사는 동악단을 모시고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에 지역 시장, 군수, 지역유지들과 원주지역 모든 시민 불자님들을 모시고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형사는 **꿩 보은의 유래에 걸맞게 꿩 방생 장소**로 최적지 입니다. 전국의 불자님께서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치악산 국형사에 많은 성지참배를 하셔서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국형사 주지 합장



▶ 대형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98번지 국형사 033-747-1815
※ 방생전 사전 연락주시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獨, 불자 수백만·단체 600개

지식인들 모여 명상센터 열고 참선
불교 강연에 수천명씩 몰려 열기 확산

유력 주간지 슈테른 분석

독일에서는 지금 불교단체의 수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슈테른(Stern)> 2월 12일자에 실린 '깨달음의 길' 특집 기사에 따르면 70년대 초 15개 정도에 불과했던 불교단체가 지금은 6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현재 독일에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의 남방불교를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의 선 불교 그리고 티베트불교 등이 들어와 있다. 독일불교연합(DBU)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불교신도는 20만 명이 넘는다.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수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은 족히 될 것이라 한다.

어느 불교 단체는 가톨릭 수도원을 사서 공동 거주지(사찰)로 개조할 정도로 불교세가 강하다. 그 예로 함부르크 상 파울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 선박 나사 제조공장을 수행센터로 개조해 현재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문수행자들 과학자들과 담론

독일 전역에 이러한 명상센터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의사, 학자 등 지식인 위주로 구성된 이들은 참선이 끝나면 다과와 함께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티베트 스님들의 의식, 밝아짐(청정), 집착을 어떻게 놓아가는지등을 공부하기도 한다. 그런 반면 근처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 이름을 아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다.

1903년 라이프찌히의 칼 샤이덴슈티커라는 학자가 최초로 불교 포교단체를 창설한 이후 독일인 최초로 안톤 규스가 스님이 되었다. 이어 베를린 의사 파울 다울케가 1924년, 불교 센터를 건립했고 현재는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독일 지식인 사회에서 '불교'는 하나의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사진은 참선 법회에 앞서 입정중인 독일불자들.

당시 독일 불교인들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고 쇼펜하우어는 기독교의 몰락을 예언하며 "인도의 지혜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윤회와 인과론은 오랫동안 소수층만의 관심을 끌었으나 60년대 말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과 히피족들에 의해 세계의 지붕 티베트의 지혜가 서양, 독일까지 건너오게 되었다.

문학도 불법 전파에 큰 기여를 했는데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가 여기에 속한다. 그 이후 함부르크의 티베트 센터는 7년째 불교 교리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어느 베를린 초등학교에서는 불교 공부에 관해 시범적인 모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알고이와 아이펠 지방에서는 명상센터가 들어섰고 경제 분야 최고 경영진들이 윈스터 시에 간부급을 위한 선(禪)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곧 작센 지방 타우하에 위치한 시 공원은 절로 바뀌게 된다.

전문 불교 수행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나 환자 돌보는 법에 대한 책들을 내며 자신들의 경험을 뇌 연구가나 핵 물리학자들과 함께 토론한다.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과 같은 여러 선사들은 세계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심리학자, 의사들은 티베트 소걀린포체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고 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이미 세계 54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죽음을 맞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 불교 강연이 개최되면 시립회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메운다.

초등학교서 불교공부 시범 실시

8 세기 경 인도의 한 신비주의자가 한 예언 즉, "쇠로 된 새가 날아다니고 바퀴 달린 말들이 다닐 때 불교는 먼 나라 서양까지 전파 될 것이다"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유럽 여기저기 유명 인사들의 모임과 파티에서는 불교가 많은 이야기 거리로 부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 프로 축구선수, 가수, 탤런트들이 공식석상에서의 인터뷰 등에 나와 불교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과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서구인들에게 많은 가능성과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학문과 철학 그리고 종교 사이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아무도 보장 할 수 없는 일자리, 믿을 수 없는 정치, 그리고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에 불교는 이미 3000여년 전에 심리적 안정과 지혜의 길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이다.

독일=윤화진 통신원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다도를 체험하고 있는 노이스 시의 부르군더 초등학생들. 팽주인 키어스틴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설명하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윤화진 통신원

마음으로 보고 들은 獨 새싹들

초등생 23명 한마음선원 방문
다도·부처님 생애 배우고 문답
자율 종교수업 통해 禪法 체험

봄 햇살이 청량한 3월 9일 오전 한마음선원 독일선원(지원장 혜진)에서는 노이스 시의 부르군더 초등학교 학생들(10~11세)의 불교수업이 있었다.

두 선생님의 안내로 방문한 23명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절 문을 들어서는 순간, 호기심 속에서도 눈빛은 너무나 맑아 보였다.

법당에 조심스럽게 첫발을 들여놓는 순수함들이 한마음이 되는 순간 종소리가 메아리쳐 울린다. 이어 죽비소리로 시작되는 다도….

차 향을 음미하며 찻잔을 드는 법, 차 마시는 법을 배워가는 동안 몸부림치는 아이 하나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배우고 따라한다. 차 맛이 어떠냐고 묻자 쓰다, 달다, 떫다, 짜다, 시다 그리고 맛있다 라고 하나 둘씩 손들어 대답하는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팽주인 키어스틴이 부처님의 생애, 불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서 혜진 스님이 부처님께서 어떠한 마음공부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는지에 대해 아주 쉽고 자상하게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들의 느낌과 생각을 어떻게 밝히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 대화를 통해 설명하며 질문도 받아주었다. 스님이 종교의 의미를 묻자 한 어린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예요."라고 힘차게 말한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 분의 동방박사가 어떻게 베르살렘의 마굿간을 찾아갔는지에 대해 묻자 "별을 보고 찾았어요"라고 일제히 답한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보리수 아래서 샛별을 보고 깨달으신 부처님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별'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스님과의 문답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별과 마음에 관해 독일 초등학생들은 생생한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별에서 왔죠."

"이 법당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내 별이 있고 마음과 별은 하나로 통하니 화 나거나 슬퍼지면 별이 어떻게 되지요?"

"빛과 힘을 잃어가요" 큰소리로 대답한다.

"좋은 일을 하며 기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빛과 힘이 커져요."

외롭고 화나거나 슬플 때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전화를 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음을 알려주는 순간. 크게 "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마음의 별을 느낀 것 같다.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이러한 중심에너지가 있어 서로 한 뿌리로 통하니 우리 모두 사랑의 에너지로 통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생활 선법(禪法)을 일러주니 눈빛들이 반짝거린다. 자율적인 종교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닦아가는 독일의 교육이 부럽기만 하다.

목탁 소리에 모두 일어나 감사한 손을 모아 합장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향기로웠다. 다들 학교로 돌아가기 전 탑 앞에 둘러 모여 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듣고 스님께 선재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을 때 하늘에서 작고 하얀 눈이 꽃처럼 내렸다.

독일=윤화진 통신원

"마음 제대로 보는것이 불교"

뉴욕서 열린 민희식 박사 불교 강연

"개인의 인식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대입 실패했다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능력은 무한한데 욕심, 화,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3 월 7일 뉴욕 플러싱 영빈관에서는 한미불교문화재단(이사장 조일환) 주최의 불문학자 민희식 박사 초청 불교 강연회가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불교와 서구 사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 나선 민 박사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민희식 박사는 "불문학자로서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하며 많은 서양 학자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만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알려지지 못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도 한국 불교에 대해 강연했다는 민 박사는 "우리가 전설로 치부하는 원효 대사의 해골 물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청중들은 모든 일이 마음의 문제란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성병을 고치게 됐다며 고마워한 프랑스인도 있었다"며 마음 다스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박사는 "돈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이라며 "돈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희식 박사는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교수를 역임했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베를린 관광 박람회에 '한국 禪' 소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시장 개발에 한국불교가 나섰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관광 박람회 ITB(Intemationale Touris mus Boerse)에서 한국의 선(禪)을 소개했다. 참가단은 '한류'를 컨셉으로 한국불교와 음식을 앞세워 다양한 관광상품을 전시 · 판촉했다. 선 체험 및 설명을 위해 베를린 보문사 주지 병오 스님도 적극 지원했다.

올해 ITB에는 전세계 181개국 1만 여개의 전시업체가 국가홍보관 또는 독립 전시관 형태로 참가했다.

남동우 기자

한글에너지 전문점 및 사원모집

한글에너지를 만난 당신은 건강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살충제,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공해로 인한 유해공간에서 간단하게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등 야외, 가정에서 영원히 휴대해야 할 현대인의 필수품, 가정에서 살충제 해방!! 간편하게 카드 한장으로 발 냄새 제거, 벌레퇴치

21C 새로운 에너지
color neutralize wave(중화파장)
color dry wave(건조파장)
수맥방어, 혈압, 혈당, 체중조절

특명1 : 발 냄새를 잡아라
특명2 : 수맥파장을 잡아라
특명3 : 음식 유해성분을 잡아라
특명4 : 피부(아토피성) 당뇨, 고혈압을 잡아라
특명5 : 바퀴, 개미를 몰아내라



(발 냄새 제거 카드)
(곤충퇴치, 수맥방어)
의장출원 : 30-2003-15116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환영(매일11시, 14시 사업설명) 주부사원, 공사직 퇴직자 환영 기본급 + 수당

약국, 미용실, 피부관리실, 24시 매점, 화장품코너, 지물포, 문방구, 식당, 카페, 호텔매점, 등 특약점 모집

공해로 긴장된 공기입자를 부드럽게.....
음식영양성분(입자)중금속 - 유해파장 중화, 수맥파장방어 띠벽지, 인테리어용품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4층
지방은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특약점 및 사원모집 상담 02)924-5380, 924-5382

한글음파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책자 - "한글은 하늘소리 불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병을 검검할 수 있는....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음파 성명의학
혈당, 혈압조절, 탈모, 피부 아토피성, 환경개선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공개강좌 매일 오전 11시
제 3기 전수자 및 전국 지회 수련원장 모집



저자 황성현 직강
Color wave 개발자

전수내용
한글기초에너지, 한글음파 성명의학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 성명학
한를 자음과 모음을 연구한 이름소리의 비밀!!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3층

전국 시도 총판모집 한글에너지 본사 상담 02)927-3372

한글에너지 대한운공연구회 www.smile77.wo.to 상담 02)927-3372~3

기도처 자연속에 부르자라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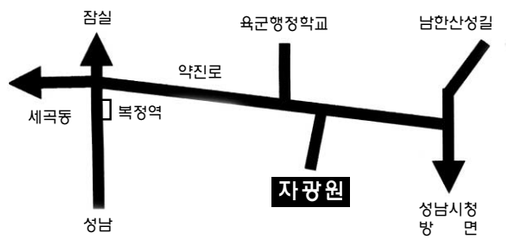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터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첫 수업부터 학생들은 "틀에 박힌 지식 위주가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수업이라 좋다"고 이구동성. 중앙대의 '템플스테이' 강의는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음의 틀을 넓혀 보세요"

인터뷰 - 마가 스님

내면 변화 꾀하는 수업
마음 편해지고, 놓는 방법 배웠으면

중앙대 템플스테이 과목 첫 수업

"자, 눈을 감아보세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이 평온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3월 8일 오후 3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6101강의실.

"4주 수업 후 4월 중순경 30명씩 조를 나눠 마곡사에서 2박3일 일정의 템플스테이가 있고…." 이 대학 교양학부 최달호 계장의 수업 안내에도 마냥 시골장터 같기만 하던 170석 대형 강의실에 순간 적막이 내려앉았다.

중앙대학교가 '내 마음 바로 보기'란 이름으로 개설한 교양선택 과목의 이날 첫 강의가 세간의 관심을 모은 이유는 두 가지로 모아지는 듯하다.

10분만에 170명 신청 끝, 야간에도 강좌 개설

우선 산사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가 불교 종립대학도 아닌 일반대학의 3학점짜리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이 주목거리였다. 수강신청 10분 만에 170명 정원이 다 차버리는 진기록도 세웠다. 미처 수강신청을 못한 학생들의 항의 때문에 계획에 없던 야간 강좌까지 개설했다.

마곡사에서 '자비명상'이란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포교국장 마가 스님이 강의를 맡았고, 교재도 필기구도 필요 없다는 점 등 수업은 시작부터 흥미를 돋웠다. 밑도 끝도 없이 두 사람씩 짝을 맞춰보라고 한다. 짝을 맞추고 나자 이번엔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돌리고 싶다면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리고 다시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보내"보란다.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수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자기 얼굴을 꽃처럼 예쁘게 만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봐도 예쁜 미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목을 가다듬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자기가 느끼기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멋진 부분을 얘기해 보십시오. 헤어스타일, 눈, 코, 입, 머리핀도 괜찮습니다. 서로 주고받아 보세요." 여기에도 규칙이 있었다.

A: '당신 눈이 유리구슬처럼 예쁘네요.' (1단계) B: '내 눈이 유리구슬처럼 예쁘다고 하시니 기분이 좋네요.' (2단계) 당신의 입술도 앵두처럼 섹시해요.(3단계)'

"마음을 표현하세요" 주문에 학생들 쑥스러운 듯

강의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잘 하고 있나 감시(?)하던 마가 스님이 긴급 발언을 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고 현재의 내 기분, 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내 마음 바로 보기'잖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듯 하자 사람을 바꿨다. 다른 사람을 찾아 조를 이루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다시 4명이 한 조가 됐고, 두 사람이 앞의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얘기하면 나머지 두 사람이 지켜보기.

이번에는 외면적인 부분이 아닌 내면적인 부분들, '당신 참 ~하네요.' '참 이런 것을 잘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은 부분들만 나누는 겁니다."

한 조가 다시 8명으로 커졌다. 이번엔 손을 옆 사람이랑 십자로 만들어 잡고 손떼지 않고 원 만들기. 원도 계속 커져갔다. 8명이 성공하면 16명. 다시 32명으로….

이쯤 되자 강의실은 아이들 놀이터처럼 되었다. 마침내 하나의 원을 만들기 위해 시도했으나 아깝게 실패.

마가 스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10분 동안 한 게 실패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수업의 마무리는 역시 '숙제 내기'였다. 앞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모두 7명과 대화하기와 각자의 이름표 뒷면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말고 자기 이름 짓기. 동식물도 괜찮고 형용사도 괜찮고, 남들에게 불리고 싶은 이름을 지으면 된다. 준비물도 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각자 손거울 하나씩을 준비해 오란다. "재미있는 장난을 해 볼 게 있다"는 설명이다.

새롭다,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손으로 카메라를 한 번 만들어보세요. 스님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찍고, 다음엔 좀 더 넓게. 이번에는 칠판까지 다 보이게 찍어 보세요.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 틀에 맞춰 무언가를 평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틀, 잣대, 눈금이 좁을수록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이 틀을 조금 넓혀보자고 이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한 판 놀이에 가까웠던 두 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강의 내내 꽤나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던 김철현(건축공학과 98학번) 군은 "새롭죠"라고 말했다. 이어 잠시 생각하던 김 군은 "지식 위주가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알아가는 공부인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정민(물리학과 00학번) 양은 "지금까지의 수업은 하나의 틀에 꽉 맞춰서 주면 받는 식이었는데, 같이 생각해 보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고 했다.

'템플스테이 정규 교과목 채택'의 산파 역할을 한 최달호 교양학부 계장은 "재작년 해인사 여름수련회에 참여하고 나서 나 스스로 많은 변화를 느꼈다"며 "종교적 관점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마음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학교에 적극 추천했다"고 말했다.

글=권형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반응이 폭발적이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데 와서 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숨 돌리고 재도전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했으면 싶다."

●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명상이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여기'라는 것이다. 자기 내부를 바라봄으로써 순간순간 내면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 학생들이 이것 하나 만큼은 얻어갔으면 하는 게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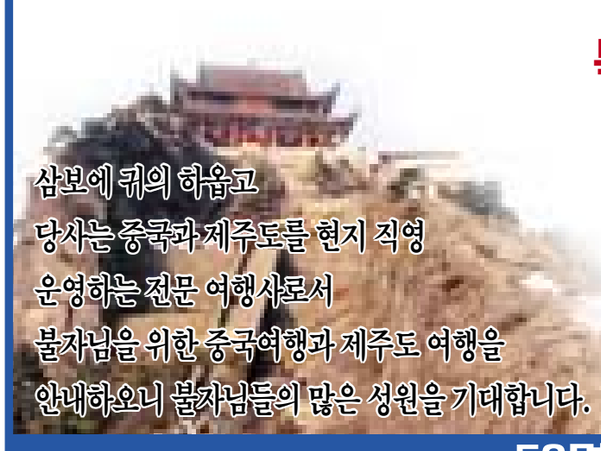
"가만히 쉬는 것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배웠으면 한다. 사실 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지 않느냐. 뇌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변화가 없다. '쉰다'라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인데 '놓는 방법'을 배우는 공부다.

● '자비명상'은 어떤 것인가

"방 안에 불을 켜면 불빛이 방안을 비추고 나서 창밖으로 새나간다. 내 안의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환하게 밝히고 나서야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내 속에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먼저 드러내고, 끄집어내는 방법이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20-8489



특별 기획안내 <중국 제1의 관음도량 법회 - 상해/보타산/낙가산 5일>
○ 출발일 : 2004년 3월, 4월 ○ 출발지 : 인천국제공항, 김해(부산) 국제공항, 대구 국제공항
○ 판매가 : 인천출발 - 69만원 / 부산, 대구 - 67만원
- 11명당 1명 무료 적용, 10명이상 출발가능 / 각 단체별 단독 행사(10명이상) 가능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벳/ 낙산대불 8일 169만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팁,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일요일 출발 - 225,000원 ▶화, 목, 토 - 248,000원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전>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록(설록茶밭 및 뮤지엄)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지" 관광 → 제주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찰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 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을!!! → "조랑말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읍민속마을 관람 → 점심공양 → "통일불사리대탑(고관사)"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따뜻한 사람 · 아름다운 세상

나누는 기쁨 알면 행복해 집니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 개원


3월9일 열린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 현판식 모습.

설산 스님, 평생원력 23년만에 이뤄
이만홍, 이영숙 부부 장소 무상 제공
적십자 30여 자원봉사자 후원 등록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3월 9일 개원한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에 찾아온 10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사)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이사장 설산 스님(홍은동 백련사)이 식탁을 돌며 인사하기에 바쁘다.

스님은 첫날임에도 찾아온 할머니들로 급식소가 꽉 채워지자 직접 식판을 들고 봉사자들의 바쁜 일손을 돕는다. "매일 오셔서 식사를 하시라"는 말을 곁들이며.

이날 서대문구 홍은3동 만영빌딩 지하1층에 개원한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은 1981년부터 자원봉사단체인 한국사회봉사회를 이끌어온 설산 스님의 평생원력에 따라 만들어졌다. 종묘공원 등에서 무료급식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스님의 보금자리가 23년만에 생긴 것.


설산스님이 할머니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40평의 급식장소는 그동안 설산스님의 무료급식활동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로 곁에서 함께했던 만영빌딩 소유주인 이만홍(60) 이영숙(56) 부부불자가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영숙 보살(송추 백화사 신도)은 "설산 스님의 봉사회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무료급식장소가 필요함을 깨닫고,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스님께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만홍 이영숙 보살은 개원 첫날 백미 10여가마도 보시했다.

또 기쁜 일이 이어졌다. 무료급식소 개원 소식을 접한 적십자사 서대문지회 30여명의 봉사자들이 이날 찾아와 자원봉사 후원자로 등록했다. 봉사자들은 매일 5명씩 돌아가며 급식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은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 300여명에게 월요일~금요일 매일 11시 30부터 12시 30분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산 스님은 "23년의 봉사활동은 베푸는 방법을 모르고,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장을 마련해 주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우리주변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련자비원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찾는다. 문의(02)303-0024

글 · 사진=김원우 기자

김용순 할머니 심장병, 관절염 투병중
정부보조금 약값·월세 빠듯



슬하에 자녀와 형제자매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울 성북동에서 사는 김용순 할머니(88 · 사진)는 현재 믿고 의지할 피붙이 없이 고혈압과 관절염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할머니는 6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남동생 집에서 같이 생활했었다. 하지만 최근 남동생마저 사망하자 김 할머니는 월 15만원 월세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인근 보문사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심장병이 도져 약값 마련에도 빠듯하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93-21-0468-736(예금주 김용순), (02)921-4887

김철우 기자

급성간부전증 박원구돕기 성금 총 7433만원
박원구돕기 불자모임·불교기자협 모금운동



급성간부전증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대구불교방송 직원 박원구돕기 성금이 총 7천433만원으로 집계됐다.

모금운동을 전개한 한국불교기자협회가 529만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박원구돕기불자모임의 통장에 6천199만원이 입금됐다. 또 은해사등 각 본말사 스님들을 비롯 사부대중들이 705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한편 박원구씨(사진 왼쪽)는 현재 간이식 수술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기를 이식해준 부인 홍안순씨(사진 가운데)와 사촌동생 박성구씨(사진 오른쪽)도 건강한 상태다.

남동우 기자



부산 '반여3동 어린이집' 나눔 저금통 330개 전달

9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어린이집(원장 일오 스님)'의 김순천 선생님은 <착한 반> 아이들에게 원숭이저금통을 나눠줬다.(사진)

원숭이저금통을 받아든 <착한 반> 아이들 27명에게선 어떻게 원숭이저금통의 배를 불릴 것인지에 대한 무궁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7세반인 '착한 반' 아이들에게서 제법 어른스러운 약속과 다짐들이 이어졌다.

먼저 소연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아빠가 출근하실 때 주는 용돈을 원숭이에게 줄래요." 이에 질세라 화희의 대견한 한마디가 보태졌다. "심부름하면 엄마가 주시는 돈을 원숭이저금통에 넣을 거예요." 과자 사먹을 돈을 아끼겠다는 현옥이와 친척들이 주는 돈을 저금통에 넣겠다는 민기까지 <반여3동 어린이집>의 아이들 270명에게 이날은 원숭이 친구가 새롭게 생긴 날이었다.

<반여3동 어린이집>은 7세반, 6세반, 5세반, 각 3개 반과 4세반 1개반의 모든 어린이 270명과 교사와 직원 22명 전원이 원숭이저금통 채우기에 참여했다. '착한 반'을 비롯한 '재롱반' '사랑반' '아름반' 등 총 10개 반의 아이들이 원숭이저금통에 고사리 손으로 동전을 넣으며 나누는 기쁨을 배워가게 된 것이다.

어린이외에도 불자가게 등에 나눠주겠다며 총 330개의 저금통을 신청한 일오 스님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보시의 즐거움을 알게 하면 그것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되어 훗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나눔의 손잡기 동참

인천 수미정사 인천시 문학동 수미정사(주지 종연)는 나눔의 저금통 100개와 스티커 200장을 신청했다. 종연 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신도들과 나누는 마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 조개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조개사 주지 해타 스님은 "나눔은 불교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방법"이라며 "신도들과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동참했다. 조개사는 저금통 50개와 스티커 100장을 요청했다.

청주 광덕사 충북 청주시 용담동 광덕사(주지 일봉)가 저금통 20개와 스티커 50장을 신청했다.

혜성스님 경기도 성남시 태평4동에서 혜성스님이 저금통 5개와 스티커 10장을 요청했다.

▌도와줄께요

장기 기증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권남후 보살이 "생명이 위독한 분에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권 보살은 "남을 위해 무었을 할까 생각하다 건강한 몸을 보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소년소녀가장 결연신청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나병희 보살이 소년소녀가장 후원결연을 신청했다. 나 보살은 "매달 정기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신청은 buddhanews.com.

▌도와주세요

1:1 결연후원자를 찾습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영세가정 총 300세대를 돕는 '1:1 결연후원자'를 찾는다. 후원계좌 : 부산은행 083-01-033926-6 (예금주:용호종합사회복지관). (051)628-6737~9

치료교육 이용자 모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지역사회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해 조기교육, 심리치료, 물리치료(성인&소아), 언어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모집한다. (054)633-6415

나눔의 가게

서울 견지동 목조각 전시관 대불광 (02)738-1117
대구 백안동 음식점 백산가든 (053)983-4459
광주 계림동 불교서적 전문 불교서원 (062)226-3056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2004년 성장 프로젝트

정부투자기관에 연꽃을 심어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야심에 찬 '활동마당 넓히기'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신행활동의 불모지인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불자회 '연꽃'을 심고, 기존의 단위기관 불자회 활동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중심 불자회'를 선정, '신행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

출범 4년차를 맞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 중앙사무국은 3월 9일 감사원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2004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3월 27~28일 열릴 '제2회 전국 총무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공불련 중앙사무국이 기획한 사업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내실'을 한꺼번에 잡겠다는 점. 공불련이 그간 주력해온 전국 단위기관 불자회 창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향후 성장 동력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불자회 만들기에서 찾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특히 공불련이 정부투자기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상위 부처가 현재 불자회 활동 중인 정부 · 지자체 업무와 긴밀히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유사업무기관별 멤버십 구축
단위기관 6개권역으로 묶어
포교네트워크 · 신행공동체 형성

공불련은 이를 위해 '유사업무 기관별 멤버십 구축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중앙 정부부처 불자회가 관련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불자회 결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건설교통부 불자회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 불자회를 창립하는데 앞장선다는 방식이다. 정부투자기관 불자회 현황 조사도 이미 끝냈다. 정부투자기관 80여 곳 중, 불자회가 운영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경산조폐창 등 10여 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전국 230여 단위기관 불자회 활동도 강화된다. 공불련 산하 지회가 서울 · 경기권을 비롯, 부산 · 경남권, 대구 · 경북권, 대전 · 충청권, 광주 · 전라권, 강원권 등 6개 권역별로 묶어진다. 이른바 '지역 신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공불련은 이 방안의 모델로, 대전 · 경남 · 경북에서 활동 중인 지역공무원불자연합회를 꼽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연합회가 중심이 돼 일선 현장의 포교노하우를 교환하고, 신행공동체를 일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불련은 이밖에 불자회별 지역 사정과 대규모 인원 참석 등을 고려해 10월 9~10일 순천 송광사 또는 구례 화엄사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키로 하고,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회원 수첩제작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은 "공불련은 그동안 괄목한 양적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제부터는 성장의 양과 질을 면밀히 따지면서 향후 발전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며 "올해는 그간 소홀했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불자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고속철도 무사고 운행을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철불협 회원들이 차내에서 '안전운행 발원문'을 읽고 있다.

고속철은 '법의 바퀴'로 달린다

철불협, 시속 300㎞ 달리며 개통축하 안전기원 법회

조계사서도 500여 회원 무사고 기원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전운행입니다. 우리의 불심을 담아 고속철 무사고를 기원합시다."

3월 6일 16시 55분, 용산역을 떠난 고속철도. 객차스피커에서 음성과 목탁 소리가 흘러나왔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박창식 운영위원장의 발원문 낭독.

오는 4월 1일, '땅을 나는 열차' 고속철도의 개통 축하와 무사고 기원을 담은 '열차 법회'가 열렸다. 철불협 지도법사 화암 스님은 경기도 사나사에서 한걸음으로 달려왔고, 부산 · 대전 · 안산 · 익산 · 영주 등 전국 21곳 산하단체 500여 회원들은 새벽부터 상경 길을 서둘렀다.

"오늘은 2천여 철도불자들이 고속철의 호법신장이 되겠다고 부처님께 다짐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그마한 불심을 모아 고속철의 무사 운행을 간절히 바라는 법석이기도 합니다."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불자회 송영근(40 · 수홍) 불자의 법회참석 소감이다.

광명역을 지나 터널구간이 끝나자 신선(新線)에 들어선 열차는 본격적으로 속력을 냈다. 느닷없는 100년만의 폭설로 순간 최고속도는 240km. 하지만 창밖 풍경으로 가늠해본 속도는 가히 '고속 법륜'이었다. 날리는 눈발이 수평으로 누웠고, 국도를 달리는 차들도 빠르게 '후진'을 했다.

"목적지까지 열차는 안전하게 달릴 겁니다. 서울과 부산이 처음과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양, 신의주, 중국, 러시아 등 대륙으로 뻗어갑니다. 고속철이 '철의 실크로드'를 만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철도불심이 당당히 서있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장 이채권(53 · 심광) 철불협 지도위원이 이렇게 말했다.


'철도불심의 쾌속 질주.' 철불협 임원단이 서울-대전 구간 시승식 고속철도 객차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55분 남짓, 열차가 대전역사에 당도했다. '300km 바라밀 특급', 철도불자의 희망이 현실로 확인됐다. 이미 국민생활의 혁명을 일으킨 고속철도불심. 그 출발점에서 그들의 신심은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철불협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구로승무소 불교법우회 등 전국 21곳 회원 단체 및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재경지역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 개통 무사고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은 축하법어를 통해 "꿈의 고속철도는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희망"이라며 "우리 땅에 이제 '새로운 핏줄'이 생긴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달려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법문했다.

이어 철불협 조진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우리 철도불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속철의 성공적인 개통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에 힘입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국회정각회 직원불자신도회

'국회의 불심을 모으는 구심점, 초창기 공무원 불자 신행의 선구자, 국회 내 정각선원 개원….'

우리 입법공무원 불자들은 22년 동안 국회에 '불교바람'을 일으켜 왔습니다.

1982년 5월, 첫 출발을 했습니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창립에 힘입어 20여 회원들이 모여 불자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의 굳은 신심과 하나 된 마음은 법회 때마다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참에 나섰습니다. 회원수첩 제작, 법회와 경전공부의 정례화, 회비 납부 체계 마련, e메일을 통한 소식지 발행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끌어내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결과 창립 당시 정기적인 모임조차 갖지 못할 만큼 어려운 여건이었던 국회직원신도회는 모범적인 신행단체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 국회직원신도회는 그동안 산업은행, 증권거래소, 방송사 불자회 등 여의도 지역 직장불교단체

정각선원은 '정치' 초월한 화합의 도량
여의도 직장단체와 연계 '신심 배가'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원들이 2002년 8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회 내 정각선원에서 무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으로 부지런히 정진해왔습니다.

정기법회는 물론 성지순례, 큰스님 초청법회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여왔지요. 지칠지 모르는 우리들의 신심은 지난 95년에 타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 정각선원을 개원하게 했습니다. 정각선원의 개원은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보좌관, 비서관, 용역회사 직원 등 국회 내 모든 사람들의 기도공간이자 쉼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150여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원의 불심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것은 물론, 국회내 문화도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불교신도회의 신행활동은 직장불교의 태동과 불교계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호법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 정비와의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또 이들에게 정각선원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창립 멤버를 비롯한 퇴직한 회원들과 현 회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 회원간의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창립 22년차를 맞은 우리 직원불교신도회는 올 4월에 새롭게 구성될 17대 국회정각회 구성에 중간 가교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정각회 구성을 위해 한나라당 불자회, 새천년민주당 연등회, 열린우리당 등과 접촉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당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신도회가 교량을 역할을 맡을 생각입니다.

오는 4월 9일에는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 스님을 모시고 국회 정각선원에서 '국태민안 기원 무차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어리석음을 씻고 마음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입니다.

■김광선 총무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첨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접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육법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나는 야 불교신자… 관세음 보살 ~~ yo

종교색 짙다고~ woo
진짜 나를 담고 싶었어~ yeah
모임을 '붓다 베이비'라 지었지~ yo

힙합 리듬에 불교 녹여내는 MC 스나이퍼

하늘아래 어디로 갈까 나는 불교신자/ 잘 가게나 극락세계 나무관세음보살/ 병든 자를 가슴에 안고 내 두 눈 감고/ 바람에 부디 좋은 땅으로 날려 가길 바라네' (MC 스나이퍼 3집 '신의 시' 중에서)

찬불가가 아닌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대중음악에서 이런 가사가 흘러나온다면? 실제로 이 노래는 한 젊은 힙합 뮤지션이 부르는 랩 가사의 일부다. 힙합 리듬과 강한 비트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철학을 쏟아내는 뮤지션 MC 스나이퍼(26 · 본명 김정유). 가장 한국적인 랩을 하는 뮤지션으로도 유명하다. 3월 18일 3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그를 홍대 앞 카페에서 만났다.

"가사에 직접적으로 '불교신자', '관세음보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탭들이나 기획사 쪽에서는 너무 종교색이 짙다고 반대의견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노래에는 진실한 나의 내면, 진짜 나를 담아내고 싶어 고집을 꺾지 않았죠."

노래를 통해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의 고집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1, 2집부터 '육도윤회', '49재 진혼곡' 등 제목만으로도 불교적인 곡들을 발표해왔다. 게다가 일종의 힙합음악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그의 클랜(Clan)은 아예 '붓다 베이비(Buddha Baby)'라 이름 붙였다. 불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서일까, 그의 노래에서는 일반 힙합음악에서 접할 수 없는 철학적 무게가 느껴진다.

특히 이번 3집 앨범에는 한국 힙합음악에서 볼 수 없었던 주제들이 많이 담겼다. '신의 시', '마음 난리' 등 개인적인 경험, 사회문제에 대한 풍자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담은 18곡이 선보이게 된다.

MC 스나이퍼의 음악세계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사고뭉치인 그의 손을 이끌어 법당에서 함께 눈물로 참회기도를 하고, <유마경>, <달마 이야기> 등의 책을

'육도윤회', '49재 진혼곡' 등 가득
어머니와 절 다니며 경전공부 열심
거장 사카모토씨와 작업하며 하심깨달아

통해 그의 가슴에 교훈을 심어줬다. 지금도 매번 앨범 발매를 앞둔 시기에는 한달 씩 고향 충북 제천 근처의 사찰에서 아들을 위해 기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얼마 전 MC 스나이퍼는 일본 뮤지션 류이치 사카모토의 앨범에 래퍼로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영화 '마지막 황제', '리틀 붓다' 등의 음악을 담당했으며 아카데미 영화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한 세계적인 거장이다.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한 친구들은 자기 멋에만 빠져있는데, 오히려 일본음악계에서 신격화 돼 있는 사카모토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을 겸손으로 대하시더군요. 그 모습에서 '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에게 '하심'을 보여준 사카모토는 그와 작업하게 된 계기를 '우리는 인연'이라는 한마디로 대답하기도 했다. 이 인연으로 탄생한 노래 '언더쿨드(undercooled: 채 식지 않은)'는 제목처럼 사람들의 채 식지 않은 사랑, 상처, 마음에 대한 곡이다. MC 스나이퍼는 사카모토의 아름다운 선율 위에 이라크 전쟁의 아픔을 랩을 통해 전달하려 했다. 한국어로 된 랩이지만 세계 모든 이들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곡을 탄생시키려 노력했단다.

앞으로 그는 3집 활동과 함께 이달 말부터 방송 출연과 크고 작은 공연 등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리고 5~6월쯤에는 가장 큰 과제인 군입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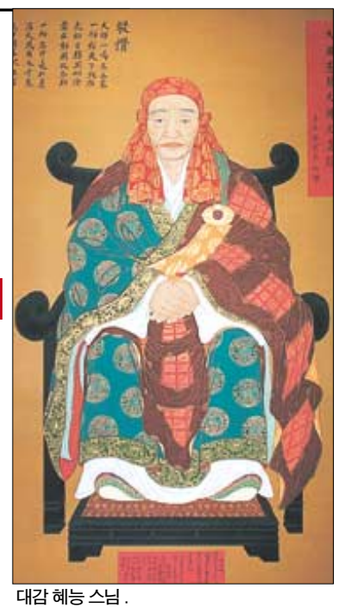
힙합 리듬 속에 불교를 싣는 음성포교사 MC 스나이퍼. 그의 힘 있는 랩을 통해 전 세계에 불법이 노래될 그 날을 꿈꿔본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한국-중국 禪脈 대표 선사들 한 곳에

선암사 3월 20일 점안식

청공·태고 스님 등 7인 영정 조사당 봉안
전통 석채화법 이용 김범수 화백 7년 작업



대감 혜능 스님.



임제 의현 스님.



태고 보우 스님.

중국~한국 선불교의 선맥을 대표하는 선사 7인의 영정이 되살아난다. 영정의 주인공은 중국에 선불교를 전한 보리 달마(?~535) 스님으로부터 대감 혜능(637~713), 임제 의현(?~867), 양기 방회(992~1049), 석옥 청공(1272~1352) 스님과 임제선의 맥을 한국으로 옮겨 온 태고 보우(1301~1382) 스님, 근대 선불교를 계승한 침굉 현변(?~1684) 스님이다.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점안과 함께 일곱 명의 스님은 세상에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 무대는 태고총림 선암사 조사당.

영정 조성 불사를 7년여에 걸쳐 진행해 온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은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본지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발원으로 영정불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불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허 스님은 이 불사를 위해 중국과 일본에 전하는 조사들의 영정을 찾아내고 계송과 어록, 가르침 등의 자료를 정리했다.

여기에 김범수 화백이 힘을 보탰다. 김 화백은 시대에 맞는 복식과 전통 문양 연구작업과 검수를 거쳐 전통 석채화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특히 김 화백은 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다. 영정에 연화장 세계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서원을 담기 위함이었다. 이 작업이 7년이나 걸렸다.

김 화백은 "작품 활동은 스님들의 사상과 가르침 뿐만 아니라 생애 까지도 담아야 하는 수행의 길"이라며 "부족하지만 한분 한분 마음을 담아 완성했다"고 말했다.

선암사는 이번 불사가 한국불교 선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태고종의 종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61)754-5247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무보시 연등영가 인도환생 三 · 七 천도재를 아시나요?

후천 용화세상 구세주 미륵대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地獄)에 계신 선망부모(先亡父母)님을 극락(極樂)으로 인도(引導)하고 극락(極樂)에 계신 조상(祖上)님을 인도환생(人途還生)하게하여 사바세계(裟婆世界)에 사는 자손은 조상님의 천도 인연공덕으로 유전(遺傳)되어 내려온 인과를 소멸하여야 만사형통하게 되느니라"** 하셨으니 미륵대불 금강연화 도량에서 다겁생래로 유전되어 내려온 습업으로 한량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유주무주 억조 중생들을 구하시고자 무보시 연등영가 인도환생 三 · 七 천도재에 삼가 만인을 모십니다.

ㅡ. 한민족 조고조비(祖姑祖妃)님 원혼 ㅡ. 임진왜란 호국 원혼 ㅡ. 3.1 독립운동 호국 애혼 ㅡ. 6.25 전란 호국 애혼
ㅡ. 4.19 민주혁명 원혼 ㅡ. 5.18 민주항쟁 원혼 ㅡ. 선망부모 애혼 영가

안 내

▣ **행사 일시**
◇ 입재 : 개도법립 5021년 윤 2월 1일 (2004. 3. 21) 일요일 오후 3시
◇ 초재 : 개도법립 5021년 윤 2월 7일 (2004. 3. 27) 토요일 오후 3시
◇ 이재 : 개도법립 5021년 윤 2월 14일 (2004. 4. 3) 토요일 오후 3시
◇ 회향 : 개도법립 5021년 윤 2월 21일 (2004. 4. 10) 토요일 오후 3시

▣ **장 소**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총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번지
전화 032)832-0626, 832-0345 / 팩스 032)831-8967 www.idaedo.or.kr

▣ **주 최**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 **후 원** : 세계도황청. (사)미륵종교협의회. (재)대도문화재단. 심천불이회. 三 · 一 장학회



경주 남산과 디지털이 만나면

최고의 문화산업 자원

전자교과서 · 가상체험 · 캐릭터 등 활용 무궁무진

"3차원 고고학 접목…복원도 가능"

이정옥 교수, '경주문화논총 6집'서 제안

경주 남산 문화재를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흔히 '문화콘텐츠'라 하면 애니메이션 · 캐릭터 · 게임 · 음악 등으로 제한해 생각하지만,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면 문화산업으로 손색없는 자원이 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노천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불교문화재(지정문화재 41점, 비지정문화재 631점)를 지닌 경주 남산을 어떻게 문화자원으로 재가공할 수 있을까? 이 교수는 △남산 문화재와 관련된 자료를 총망라해 디지털 기술로 종합하는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문화재의 디지털 복원, 자료화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콘텐츠 재생산 · 확대 △문화상품화 등 문화산업으로 발전이라는 네 단계를 제시한다.

이 중 문화재의 디지털 복원은 일반인에게는 고대 문화의 가상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게는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는 첨단의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국 등지에서 '3차원 고고학(Virtual Archaeology)'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방법은 과거의 사료와 고증을 거쳐 문화재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탄생시킨다. 이 작업을 거치면 불상의 경우 잘 잡아 내기 어려운 눈매, 입술, 콧방울 등 원형에 가까운 미세한 특징까지 표현할 수 있다.

황룡사 9층탑,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등 실제로 디지털 복원을 통해 문화재의 향후 훼손을 대비하고, 원형기록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 석탑 3기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석조문화재 실측조사와 첨단조사 연구기술 개발 사업'을 전개, 이들에 대한 3차원 입체원형자료를 남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남산 문화재를 정보기술과 교과과정을 접목한 전자 교과서로 개발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영상자료화와 가상체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정부나 문화재 관련 단체들은 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투적인 말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문화가 종교 · 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핵심 단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문화원(원장 김태중)이 최근 발간한 <경주문화논총 6집-경주 남산 유적 연구 특집>에 실린 논문 '경주 남산의 문화콘텐츠화 및 문화산업화 방안'(이정옥 위덕대 동양어문학부 교수)은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교 · 미래 · 수행' 주제 국제 학술대회

미래학불교학회 5월 21일 서울서

마치 최근의 수행열풍을 반영한 듯, '불교 · 미래 · 수행'을 주제로 불교 수행이론에 대한 논문 발표와 이를간의 선(禪)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미래학불교학회(회장 장휘옥)가 5월 21일 오전 10시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과 미얀마에서 선과 위빠사나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논문(오곡도 불학연구소 김사업 소장의 '선과 위빠사나의 수행법 비교')과 고지마 타이잔(小島岱山 · 동경대학 불교청년회 선원장) 스님의 '일본의 근대화와 공안선', 장휘옥 교수의 '불교수행의 세계적 현황과 그 미래', 최봉수(불교원전번역연구소 소장) 교수의 '원시불교 수행법의 미래지향적 가치', 허경구(대원불교대학 학장) 교수의 '선종 돈점 논쟁의 종언을 위한 시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선의 미래사회에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는 미야모토 타이호오(宮本大峰) 스님은 조계종과 같이 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임제종의 16대본산 중 하나인 향악사(向嶽寺)파 방장 스님으로, 22 · 23일 통영 오곡도에서 '화두 드는 법과 참선 실수' 등 참선 수행도 직접 지도한다.

미래학불교학회는 장휘옥, 허경구, 김사업, 최봉수 교수와 김범준(대원회) 상임법사가 공동 발의해 지난해 12월 창립됐다. 5명의 공동발의자들은 "'경전을 읽어보니 출가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어느 스님의 말처럼 '불교학을 해보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학회 창립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론에만 머무는 학회에서 탈피해 수행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학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장휘옥 회장은 "미래학불교학회가 미래사회에 대한 불교학적 진단, 미래의 문제점에 대한 불교학적 해결책 모색, 수행에 초점을 둔 미래학과 불교학의 재정립이라는 창립 취지에 걸 맞는 학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회 참가자들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유진 기자**

도선국사 자료집 발간

월출산 도갑사 도선국사연구소가 도선국사 문헌자료집 Ⅱ <공덕과 장엄>을 발간했다. <공덕과 장엄>은 서울 · 경기와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금석문과 사기(寺記), 사적기(事蹟記) 등에 나온 도선 스님에 대한 기록연구 과정에서 만난 스님 13명과의 인터뷰 등이 실려 있다.

東大 '종교문화와 불교' 내놔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제1교육연구팀의 공동과제 자료집 <종교문화와 불교연구 가이드>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종교문화와 불교'를 연구하는 BK21 제1교육연구팀이 2003년까지 출판된 종교학과 세계 7대 종교, 한국종교 등에 관한 단행본 · 논문 · 정기간행물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한국어, 일어, 영어로 출판된 이들 문헌의 목차까지 기록해 놓아 저술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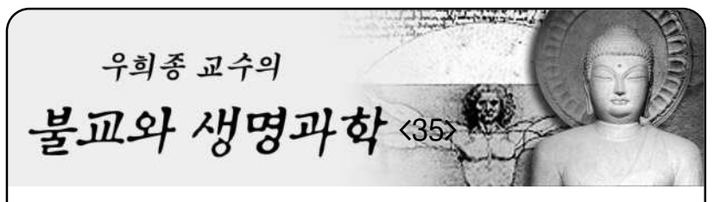
사찰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조계종, 대전 충남지역서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3차년도 일제조사가 2004년에는 대전 · 충남지역에서 실시된다. 3월 9일 마곡사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대전 · 충남지역 258개 사찰에 소장된 1950년 이전에 조성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며, 조계종 총무원 산하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이 현지에서 전수조사(全數調査)로 진행한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 · 활용할 목적으로 대상 문화재에 대한 내용분석과 목록작성, 디지털 촬영, 도면작성, 탁본조사를 병행한다.

2002, 2003년 강원도 · 전라북도 · 제주도에서 조사된 문화재 가운데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자료는 문화재 관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5>

인조 생명체

생명이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육신을 지닌다는 사실은 생명 공학자들로 하여금 수, 지, 화, 풍의 무기물로부터 자신을 재생하고 복제하며 진화할 수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는 시도를 꿈꾸게 한다.

다시 말하여 이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생명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만년 전 지구에서 처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순한 무기물질을 이용하여 인공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킬 인공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그릇) 안에 정보전달 물질(DNA와 같은 유전물질)과 더불어 자신을 유지하고 재생할 대사 구조가 있어야 한다.

과학 발전 '생명 만들기'까지 도전

본래 면목에 대한 답 여전히 못줘

최근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형태의 인공세포를 원형세포(原形細胞 · protocell)라 부르며, 이를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는 완전히 무기물만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를 만드는 직접적인 시도와 이미 자연계 내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생명체를 유전자 조작 등을 이용해 생명체의 기본 조건 만을 만족 시킬만한 가장 기본 형태의 세포를 만들고자 하는 간접적 시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야말로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에 도전하는 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로스알라모 국립연구소(LANL)에서는 빛에 의존하여 정보전달 물질과 자신의 지방세포막을 합성할 수 있는 대사계를 지닌 기본적 세포(Chen-Rasmussen protocell)를 이미 만들었다.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인간도 주변의 물질을 이용하여 복잡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 생명과학자들에게는 인조 생명체인 인공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단지 보다 제대로 된 인조 생명체가 언제 성공할 것인가가 관심일 뿐이다.

그러나 현대 생명과학이 발전할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무엇이 생명현상과 물리현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인가? 하나의 작은 세포 안에 유전자와 에너지 발생 체계를 같이 넣기 위한 주요 개념은 무엇인가?' 따라서 이러한 질문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와 같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생명과학의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대과학의 유물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다.

앞으로 현대 생명과학이 단순한 생명복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무기물로부터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인조 생명체를 만들어 낸다 해도 역시 그것은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근본적인 생명체의 의문을 풀어주지는 않는다. 자신의 본래 면목에 대한 대답은 역시 연기의 관계 속에서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되풀이하는 물질이나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밖으로 내닫지 않고 안으로 자기를 바라보아 부단 없는 자기 노력을 통해 스스로 얻어야 할 것이다. 이 대답을 통해 비로소 생명을 지닌 우리로서는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BBS 불교방송

디지털방송 시대개막, 1단계 준비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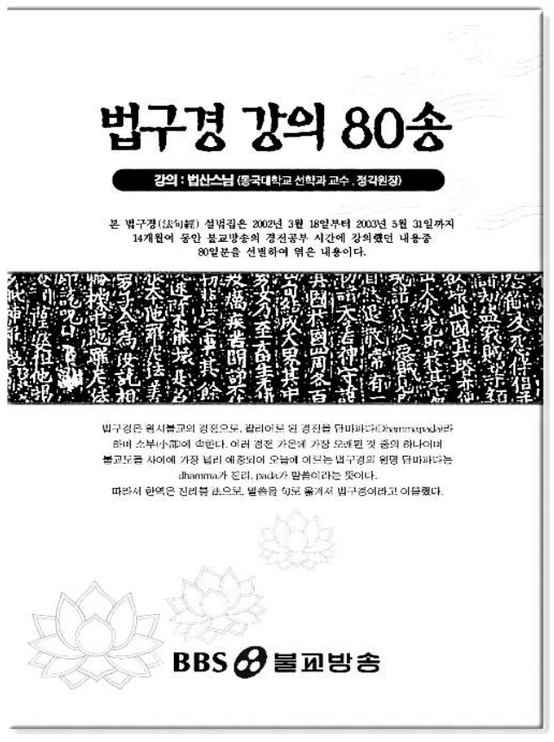
디지털 방송시대 BBS가 나아갑니다

고품질 · 고품격 방송을 위한 1단계 사업 완료

지금부터 2, 3단계 본격 추진

▲ 디지털 뉴미디어방송
- Tapeless(테이프 없는)제작 및 디지털 스튜디오 구현
- 자동송출 시스템구축
- 인터넷방송 실시, 데이터방송 및 DMB방송 준비박차
- 5개 지방사도 디지털 전환 중

▲ 전국 방송망 확장
- 관악산 송신소 이전 및 부산방송 출력증강 청취권역 확대
- 중계소 3곳등 추가 가청권 확대



동국대학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 포교자료팀
▮전 화 : (02)706-3502 ~ 5
▮가 격 : 70,000원(C70×20EA)

www.bbsfm.co.kr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리산 선인에게 배운 「황토 사용법」을 보급하는 山人, 明德 洪炫吾선생이 추천



건강 황토 단주 세트

정상가 : 60,000원 (15mm x 10개)
특판가 : 36,000원

정상가 : 55,000원 (10mm x 10개)
특판가 : 33,000원

■ 제품문의 : 02)732-1520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화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향토방 사찰

요양하실분환영

▷ 산수 수려함

경기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031)772-7296(종무소)
031)774-4750(주지스님)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입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고급 보일차 전문점

1호선 2번출구
조계사 방향 100m
우정에쉐르 902호

Tel. 02)733-5204

茶道理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벼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4. 5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용신, 운세,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4. 7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2004. 4. 9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정통풍수지리 강좌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개강** : 2004. 4. 9 (주 · 야간반 : 2개월 완성)

특전 (1) 월요일~ 일요일까지 중복수강이 가능(재수강시 수강료 없음)
(2) 저자 직강으로 책임지도 (3) 교재무료제공
(4) 주말반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호적수 안내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용왕재 등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진 올림
031)386-7133
019-394-7133(안양시 평촌)

암·중풍 기적의치료

견성한 스님이 중국의 고대치료술인 포기회생술과 천도의식으로 **말기암, 중풍** 환자에게 새생명을 드립니다

무료상담환영
031)674-8880 청룡사
017-217-2219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학

월간역학 02)2264-0258

불교전통의식, 천수바라무, 오공양작법 (승무, 살풀이춤, 요잡) 각종 행사해 드림

※ 소리 테이프 있음 ※

011-849-0961

종무소 여직원 구함
(PC가능자)
▷ 지역 : 논산
041)736-5700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대학원 진학하실 기도스님과 조계종단에 출가하여 대도를 성취하실 분께서는 연락바랍니다.

050-2000-2233

남자 행자모집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동해사
033)672-2900

최면-전생퇴행

부담없이 배우며 연구할 50대후반 남녀 연락요망

011-707-8204

46년생 법납35년 기도, 노전이나 개인사찰 주지를 원함
현재 10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음
019-590-3558

비구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 서울 진관내동
02)387-3216
011-9782-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안양시
031)448-114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위치: 경기 광주 남한산성 근처 국청사)
031)743-6801

신심좋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이상(50세미만은 안됩니다)
▷ 지리산
063)636-3451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조용한사찰)
▷ 경북영주 40~55세 사이
봉급은 하루 앞당겨 드립니다
054)637-1900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경북 칠곡군
011-529-0008
054)975-0008

"불사에 도움주실 신심 돈독한 불자님 모심.
소승은 4대가 스님집안의 스님으로서 5살에 동진출가한 승입니다.
이제 진정한 불국토를 위해 전력을 쏟고져합니다.
평생 절집에 사시면서 불사에 도움을 주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소승의수행이력 : 선방15안거,미얀마의윗빠사나선원4년수행,선체조,선요가, 불가무술30년 수행.
※현직 중의 한의사이며 각종난치병치료경험이 17년입니다.
중풍,암,무릎관절염,오십견,디스크,각종신병등 어떤 병도 현장에서 환자가 바로 영험을 경험하게 합니다.
※35년의 기공수련으로 어떤 사람도 생년월일 없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예언함.
중풍, 암, 각종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불교수행자 분들께 무보시로 치료해드립니다.

도법합장 011-883-2299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비구스님)
054)833-2324

54세 비구스님입니다
부전소임 원합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017-278-3536
055)637-6770~1
정각스님

비구니 기도스님 구합니다
▷ 연령 20~40세
051)804-1164
018-801-2586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광주
031)719-0408~9

기도스님 모십니다
▷ 35~50세
(비구스님)
051)542-4848

토굴 작은암자 외딴촌집
(경남지역)
보시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9416-2261

한국불교범음범패 대학원 제2기

수강생 모집

◆개 강 : 4월 초
◆수강요일 : 매주 수, 목 4시 ~ 6시까지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을 수료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과 정

▶ **초급과정(3개월)** : 사물(목탁,요령, 징, 북)다루는 법. 도량석,쇳송,각단예불,관음기도법 등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기초범음범패)
▶ **대입과정(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각종어산(범음범패), 49재
▶ **특 수 반** :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77-54번지
011-849-0961, 051-554-1518
한국불교의식대학원 원광사

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3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관절

무릎, 허리, 어깨, 좌골 등 근육과 뼈마디 이상증세 골다공증, 각종 통증에 모방할 수 없는 신속한 효과

( )일 이내에 고통 끝! 행복 시작!



눈밝은 세상 **(02)2237-8004** http://www.eye88.com

귀 휴양할분

- 공기맑고 물 좋은 산간벽지
- 경북 八公山 북쪽 명당길지
- 향토 온돌방 1인 1실
- 불사에 도움주실분 환영
- 공양주 급구(보수 50만원)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4

부동산 담보대출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출하세요
- 부동산 감정가 60%이상
- 담보사채 - 일반대출
- 매매잔금 대출
- 건설 관련 자금

(주)한국금융상품개발
02)3437-8282
*금액에 따라 연금리 3%~12%

부전스님(비구니) 원하는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6264-1666

계룡산 정통좌경 법사 수강생 모집

지도과목
■ 기초반 : **고장(장단), 중급반 : 경문, 청**
■ 고급반 : **설경, 장구, 민요, 판소리 및 불가의식 등**
■ 오전반 및 오후반 00명(3개월과정 월회비 30만원)

◎ 주최: 대한불교 법화종 선명사 **055)287-5500**
경남창원시 내동 456-16 공단상가 4층 FAX 055-286-6365
◎ 주관: 지산국악예술학당(창원수련장) **055)264-8269**

목당 易학 연구원

작궁윤통
(개인지도) 명합세변
☎ 969-3169 (청량리 우체국)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운세(1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H · P 011-741-0867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 근교 토굴, 대단위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법당 1동, 요사채 1동 (도심속 전통 한옥기와)
- 대지: 165평(등기필) 사용평수는 200평 임
- 특징: 고속도로 및 시내버스 노선 편리
- 가액 : 1억 9천만원(절충가능)
- 넓은 정원과 주차장 완비

011-245-5467

사 찰 안 내

- 위치: 포천 신북 가채리
- 요사채 : 50평
- 법당 : 35평
- 전세 6천만원

가든안내(사찰적합지)

- 위치: 포천 창수면 고소성리
- 전세 : 5천만원
- 양도가 : 1억 7천만원
- 1층 28평, 2층 18평
- 부속건물 2동 40평. 반가로

031)536-5063

육임(六壬)역학 강좌

풍부한 육임 고전과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체계적인 강의!

특 징 1. 가장 오랜 역사 2. 풍부한 문헌자료와 검증된 정확성 3. 고도의 음양오행 예측 학문

육임명인 1. 강태공(주문왕) 2. 오자서(오왕) 3. 제갈공명(유비)

※지방에 계신 분은 「통신강의」 신청 받습니다.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시내10분거리
- 평수 : 30평
- 큰방2, 주방1, 독채
- 전세 1천300만원, 월 40만원
- 시설완벽 즉시입주가능

055)386-2376 / 017-563-4602

- 사찰명 : 팔만 보현사(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선종)
- 주 지 : 지웅
- 주 소 : 경남 창원시 소답동 130-8번지
055-256-7017

위 사찰은 전 신도회장 (최외봉)을 회장으로써 자격이 부적합하여 퇴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2004. 3. 17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0,0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충남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3억8천

- 위치 : 경북
- 법당 : 40평(목)
- 요사 : 8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6억5천

※융자 및 아파트와 교환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배운사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보증금 1000만원 월10만원

033)766-005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불로동
- 평수: 60평
- 보증금 : 2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054)372-8734
011-9382-4782
011-9586-572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평수: 470평
- 공기좋고 산세수려
- 가액: 답사후결정

011-9270-5409

도심속 최고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주시 전주역 전북대병원 전북대부근
-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대지 8×6미터 코너절 116평 건평 120평 대웅전 21평
- 후불순금탱화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칠성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 부처님순금 4자반 삼신불 부처님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 자신있게 갖춘도량 매매금 총 4억8천중 준비금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좋은조건
- 매월 일백만원나옴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최고도량
- 절앞 4월초파일행사등 90% 자세한 이야기는 답사후 의논 주인직거래

010-3166-8483 ※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
- 부 지 : 1000평
- 법 당 : 35평(목조)
- 요 사 : 55평
- 가 액 : 8억 5천만원

- 위 치 : 도봉산
- 부 지 : 500평 임대
- 법 당 : 25평 목조
- 요 사 : 90평 급매
- 가 액 : 5억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특별조건: 납골탑(100기) 시설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415-683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청평 서울과 춘천 지하철 공사중 사찰과 700m 떨어진곳에서 4차선 준고속도로 공사중
- 산세수려하고 경치 좋음
- 대지 : 1860평(임야포함)
- 지장전 : 10평, 산신각 : 5평
- 평당 : 20만원

011-823-3562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 (융자육천만포함)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소재
- 대지 : 12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용왕전, 미륵대불 요사채
- 특징 : 산새수려하고 기도도량으로 전시내가 한눈에 들어옴
- 가액 : 7천5백만원(절충가능)

011-9754-0482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20분거리
- 대지 임야 포함 611평 건물 법당 27평, 신신각 2.7평, 요사채 17.9평, 창고 3동
- 특징: 기도영험도량 특히 아기임신 2~3년생 과일나무, 오가피, 산초, 감 등 17종류 260두
- 절마당까지 차량진입
- 타지역 이사관계로 처분
- 가액: 7800만원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내
- 부지 : 600평(국유지)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1억 2천만원
- 산세 및 주차시설 좋음

- 위치 : 서울시내 강북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시장통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강삼동
- 평수 : 3층 건물중 2층 34평
- 가액: 보증금 천만원 월 23만원

053)527-0357
011-327-5863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포함)

011-785-5670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55평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 가액: 5억3천만원(대출가능)

016-367-211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죽장 하옥
- 경내에 300~400년 묵은 고목나무와 앞에는 깨끗한 냇물이 잘어울림
- 대지 205평, 통나무 요사 35평
- 절 10평, 전 500평 대지붙어 있음, 신축건물
- 가액 1억 5천만원

054)262-6673
011-9302-0343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 10km
- 대지: 150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 산신각 5평, 요사채 28평
- 시설 완벽하게 갖췄음
- 가액: 1억3천만원(답사후절충)

043)733-8186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 치 : 사천
- 대 지 : 61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90평
- 가 액 : 3억5천

※사천시내에서 10분거리

- 위 치 : 부산
- 부 지 : 217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
- 가 액 : 9억

※영도바닷가 한눈에 조망

- 위 치 : 창원
- 대 지 : 23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억5천

※마금산온천에서 5분거리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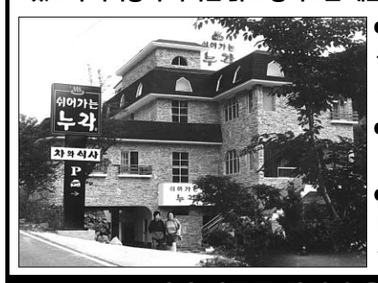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최고요지
- 평수 : 50평
- 가액 : 7천만원(시설비포함) 월 50만원
- 특징 : 50평 전체 국내최초로 게르늄과 맥반석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원적외선의 기를 받을 수 있음

051)248-2477

모텔 "쉬어가는 누각"
해외 이주 관계로 매매 원합니다.

- 지리산 자락 화개장터 쌍계사 부근에 위치한 "쉬어가는 누각"은 4계절 영업하는 아름다운 계곡 화개천변에 있습니다.
- 쌍계사, 칠불사, 보리암, 화엄사, 송광사가 5분 ~ 1시간 거리에 있으며 녹차향이 가득한 맑고 향기로운 예쁜집 입니다.



- 사찰의 복지시설이나 신행단체의 수련회장소로도 적합합니다.
- 신행회 모임이나 가족여행 예약 받습니다.
- 화개 자연산 녹차(관아 수제차) 생산 판매 합니다.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22
전화 : 055)884-0151~2

사찰안내

- 위치 : 천안 논산 고속도로 탄천 IC 10분거리
- 부지 : 1800(대지478평)
- 법당 : 25평(관세음보살, 지장보살,아미타불)
- 황토방 : 32평 ● 산수수려함
- 가액 : 3억원

041)855-1802
011)9643-7897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38-7번지 (용인마트 옆) 대로변 옆 용인마트 옆 건물 최요적지
- 평수 42평(방3개, 거실, 법당)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200만원(시설완벽)
- 스님 건강상 급하게 양도

031)336-9149
011-482-9149

사 찰 안 내

- 위치: 소사역에서 10분거리
- 대지: 65평
- 1층 유아원(40평 허가 취득)
- 2층 법당(약 30평) 대로변 위치
- 가액: 총 4억(은행융자 9천만원)

032)348-2445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상계동 당고개역 인접
- 가액: 2천3백만원(절충가능) 1천만원(50만원) 3천만원(30만원)
- 유동인구 많은 시장입구

011-323-580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 대지 58평 건평 60평 (현대식 주택 개조)
- 1층 요사채 2층 법당 내부깨끗하고 주위경관 아늑함 대단지 아파트 옆
- 사정상(공부하러감)매매
- 가액: 2억원

011-858-9450

사찰 터 최적지

- 위치 : 국도 7호선과 위덕대학교(진각종) 캠퍼스 사이에 위치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43번지)
- 자연 녹지 9,000평
- 가액 : 평당 10만원(절충 가능)

011)9366-021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250평 등기, 임야 100평
- 건물 : 법당 25평, 요사채 스라브 30평, 스라브 20평(등기필), 산신각, 용왕당(천연약수)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 정남향으로 사찰뒤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마을 어귀에 있음)
- 몸만 오시면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보시하고저 함
- 가액 : 1억3천3백만원(은행 2천 2백)

011-9017-5445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 근교
- 대지 : 1천5백평
- 법당: 2층 20평
- 요사: 3동(1층 50평 창고 20평 공양간 20평 화장실 7평)
- 특징: 임수 배산의 명당자리
- 가액: 1억5천5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1759-33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 금천구 시흥동
- 전체 45평(4층 건물에 3층 전체)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 교통요지에 위치, 주차시설 완비

02)805-7769
011-9696-7769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전기. 전화 유)
- 전 1991평 (불사가능 터로 터 정리됨)
- 가액 5800만원

054)672-7619

사찰안내

- 위치: 충남 공주 탄천면 국동리
- 부지: 1800평 대지: 478평 ● 황토방: 32평
- 법당: 25평(관세음보살, 지장불, 아미타불)
- 특징: 산수 수려함,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 IC 10분거리
- 가액: 3억원

041)855-1802
011-9643-7897

절터,수련원터 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설봉산 뒷계곡
- 부지: 13,000평(잡종지5,300평 임야 7,700평)
- 서울에서 40분거리,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에서 900m,
- 계곡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숲과 세계
- 도자기 엑스포 단지와 숲속 산책길 연결되있음.
- 가액 : 잡종지 평35만원, 임야 평당 5만원
- 잡종지 5,300평만 매매도 가능

031)636-6223 / 017-242-4741

사찰 안내

- 위치: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시설완비 (상담 후 결정)

031)826-0376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함안군 군북면
- 대지 : 270평
- 법당, 요사채 120평
- 가액 : 8천만원 (시설비포함)

011-844-989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창고 10평, 요사 30평
- 가액: 5500만원 보증금 700만원에 월 35만원도 가능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9-335-0821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토굴 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 (해발700m)
- 평수 : 대지 390평 뒷산 446평(대숲)
- 길, 전기 연결, 물(지하수)
- 가액 : 평당 4만원

011-9503-4848

토굴안내

- 위치 : 밀양 상남면
- 대지: 50평, 건평: 20평
- 산간마을 물좋음
- 걸망풀고 정진할 수 있는곳
- 가액 : 2천 5백만원

055)391-3799
011-9207-248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총 65평(3층 건물중 1,2층) 1층 공양실 2층 법당 45평(종무실, 주지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닷집 단청필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부지 : 약 600평 건물 : 90평(1층70평 법당 20평 포함, 2층 20평)
- 가액: 2억3천만원(절충가능) 덕산온천 옆 포교요지 교통편리

041)337-634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대로변 버스정류소 앞
- 4층건물중 4층(45평)
- 임법당, 방3개, 욕실2개,
- 화장실 2개, 배란다, 옥상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후결정

011-9342-979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구산전철역 3분거리
- 평수 : 37평
- 청동 삼존불 새로 조성, 후불탱화 신중탱화 새로 조성
- 방2, 욕실1, 주차장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9763-2160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오거리
- 평수: 50평, 빌딩 3층
- 후원 1동, 방 2개, 화장실, 엘리베어터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6-787-940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5층 건물중 3층
- 평수 : 30평 방3개, 법당, 부엌, 화장실, 베란다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9597-2053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 중심가
- 대지: 203평
- 현거래 시가: 250만원 (5억 7백만원)
- 사정상(급) 평당 195만원 3억9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 5층, 7층탑 백년이상된 고목 2구루
- 포교적합지
- 화장실 수세식 4칸, 주차 7~8대 가능
- 주인직접

010-3133-0018

사찰안내

- 위치: 경기 용인
- 대지 300평 대웅전 40평 요사 2층 80평
- 가액: 답사후절충

011-790-4809
031)334-4832

사찰 안내

- 위치: 나주에서 5~10분거리
- 대지 : 395평, 법당 : 25평
- 요사채 : 45평
- 방5개, 주방, 목욕탕, 화장실 밖에도 화장실 있음
- 가액 : 8천만원(절충가능)
- 주차장완비

061)337-3357
016-9578-3357

사찰 및 부지안내

- **충청권 요지에 있는 전통양식사찰**
- 경부, 중부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사정원할
-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명당자리임
- 투자적요소를 동시 만족시킬 수 있는 충청권요지
- 가액: 10억원
-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016-9558-030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대로변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23평, 법당, 방1, 시설A급
- 3층건물에 3층
- 철학관으로도 적합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7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최요지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3층 약30평 삼존불 후불 지장단 신중단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철학관으로도 적합
- 사정상급하게 인수 (인연되는 스님께는 최저렴양도)

황 호
011-202-2205

사찰부지안내

- 위치: 서산시 해미 IC 5분거리
- 부지: 1천6백평중 6백평 허가득 토목공사 완료, 조경 완료
- 특징: 가야산 좌청룡 우백호 터에 산세수려
- 수도권 전체로 학교버스 운행되어 신도분들 언제나 차없이도 왕복가능
- 가까운 거리에 덕산 온천 소재
- 가액: 평당 14만원

017-341-9967
017-341-6969

일주문



'태고종 교육불사' 특강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3월 8일 동방불교대 승가과 신입생 및 불교 · 범패 · 불교미술과 재학생들에게 '태고종의 교육불사'에 대해 특강했다.



불교TV 개국 10주년

불교텔레비전 회장 성우 스님(대구 팔공산 파계사 주지, 조계종 계단위원회 계단위원)은 3월 9일로 불교텔레비전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동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에

상주 남장사 주지 성웅 스님은 3월 17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호텔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한다. (02)737-1053



3일간 무료 공개강좌

광주불교교육원장 영조 스님은 교육원 개원 11주년을 맞아 3월 17일부터 광주불교문화대학에서 3일간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062)228-9098



호스피스 연수차 대만으로

천안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은 3월 24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대만 자제공덕회를 방문해 임상실습 등 호스피스 교육연수를 떠난다.



국민대 제8대 총장에 취임

탄허불교문화재단 김문환 이사(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3월 24일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국민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02)910-4171



강릉MBC 사장에 취임

문화방송 불교연구회원 김영일 해설위원은 3월 10일 강릉MBC 제14대 사장에 취임했다. 김사장은 문화방송 국제부장, 보도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일보 편집국장에

부산울산경남 불교언론인회 박병곤 부회장은 3월 2일 부산일보사 편집국장으로 선임됐다. 박 국장은 2002년 통도사 부산포교원 대광불교대학을 졸업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장 취임

부산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는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제8대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서울도시철도 창사 10주년 법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법우회 이정환 회장은 3월 18일 서울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창사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16일 취임식 가진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

"면학 여건 개선해 질적 향상 매진"

3월 16일 취임식을 가진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사진)은 9일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일산 불교병원이 내년 3월 개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금 100%를 병원에 돌려줄 생각이지만 재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동국대 홍기삼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대부분과 생각이 달라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일산 불교병원은 어떻게 되나?

"개원을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수적인데 알다시피 2월말에야 이사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개원은 상당히 무리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총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개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생각이다."

—홍기삼 총장은 일산 불교병원 영안실은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아보니 재단에서 직영하는 대학병원도 많았다.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되 수익금은 100% 학교로 돌려주겠다."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재단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재단 전입금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불교병원 건립할 때 종단의 스님들이 많은 돈을 냈다. 엄밀히 얘기하면 종단과 재단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회계처리는 학교에서 지은 것으로 됐다. 재단 전입금 문제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재단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학교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회계상 재단 수익으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영안실 운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한 구상은 무엇인가.

"양적 팽창보다 질적 발전에 신경을 쓰겠다. 내가 학교 다닐 때(64~71년)에 비해 학생 수는 다섯 배가 늘었는데 공간은 그대로다. 이사장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연구실이 토끼집만 하더라. 이런 여건에서 좋은 교수가 올 리도 없고, 좋은 학생을 유치할 수도 없다. 공간 확보를 통해 강의실, 연구실 등을 늘리고 우수 교수와 학생 육성에 힘쓰겠다."



"일산병원 개원 최우선 … 영안실 재단 직영
강의 · 연구 공간 확보, 재단 화합에도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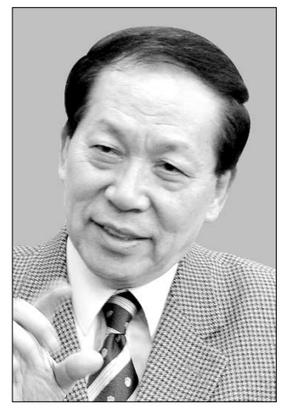
—이사회 내부 갈등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때그때 이사 스님들을 찾아뵙고 상담도 받고 지도도 받겠다. 이사장이라는 위치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금강대 신임 총장 김유혁 박사

"경쟁력 있는 대학 만들기 최선"



전문성 강화로 '신생大' 극복
종립대 장점 · 장학제도 등 활용

"불교라는 전통적 기반과 한국적 특성을 가져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대가 지역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3월 8일 제2대 금강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유혁(73 · 사진) 박사는 "신생대학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전문성을 갖춘 일류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김유혁 신임 총장은 "학생 지원율과 재학률,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금강대가 일류대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종립학교의 정체성과 우수한 장학제도, 수준 높은 교수진, 알찬 커리큘럼 등 금강대만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어느 대학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올해 9월 착공하는 폐가식과 개가식이 혼합된 1.5세대식 종합도서관 건립불사도 교육환경 갖추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 연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1.5세대 도서관은 금강대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금강대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훌륭한 인재 양성의 산실이면서 확실한 자기가치를 발견하고 참성품을 계발하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재단과 교직원, 학생이 혼연일체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유혁 총장은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도시학 박사, 중국학술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단국대 부총장,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약천사 태중아기 영가 천도재 봉행



대한불교일승종 약천사(주지 자운)는 3월 7일 총무원장 혜정 스님을 증명법사로 태중아기 영가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조상부모의 천도에 치중돼 자칫 소홀하기 쉬운 태중아기(낙태, 유산) 영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천도재에서 자운 스님은 "이런 법회가 계속돼 생명경시와 낙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02)3391-8523

광주 동부경찰서불자회 창립



광주 동부경찰서 불자회(회장 이승언)가 3월 10일 무등산 혜룡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미타종 부종정 혜우 스님, 서부경찰서불자회 김창배 회장을 비롯 동부경찰서 회원 1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혜우 스님은 법어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진각복지재단 '황석영 초청 특강'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법인설립 6주년을 맞아 3월 5일 진각종 총인원내 강당에서 재단 상임이사 혜인 정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석영 선생 특별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황석영 씨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불교대 제5기 입학식 개최



안양불교대학(학장 현호 · 지장선원장)은 3월 11일 대학 강당에서 불교대학 제7기 기초반, 제5기 경전반 입학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 신입생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에서 안양불교대학장 현호 스님은 "밤낮으로 부처님 법을 갈고 닦아 참다운 불자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31)444-5935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 영혼적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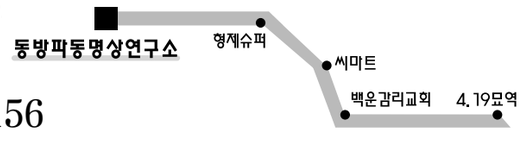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3월 둘째주,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서울,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선택'의 바른 잣대

조금 웃기는 얘기가 있다. "한강에 스님과 정치인이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해야 하는가?" 정답은 정치인이다. 한강이 오염되니까.

정치관련 세미나에서 요즘의 정치인을 '공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았다.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하면서도 허탈함 또한 자리잡는다.

한달정도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다. 누군가가 출마할 것이고 또 당선될 것이다. 출마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알맞은 지도자이고 과거에 어떤 공로가 있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외칠 것이다.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인물이니까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적 상황은 어떠한가. 첫째, 앞날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안개속이다. 예측가능한 것이 거의 없다. 둘째, 갈등의 소용돌이 안에 있다. 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보수 ? 혁신간의 갈등, 여야간의 치졸한 갈등, 거기에도 지역간 갈등의 응어리가 아직도 상존해 있다. 셋째, 경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어있다.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하류층으로 편입되어가는 현상이다. 넷째, 자살인구 증가, 이혼율 증가, 고령화 사회, 마약인구 증가, 합계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 위기요소가 상존하는데 이에 관한 대안도 없고, 대안이 있다할지라도 실천불가능 할 정도로 정치권이 무력하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등장했지만 일부 네티즌, 시민단체 이외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참여정부에 참여가 없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야당은 어떠한가. 수구로 무장하고 자신의 이익만 밝히는 낡은 정당이다. 차떼기 정당이고 거기에다 질퍽거리는 정부여당에 싸움만 걸고 있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란 말인가. 암담하고 무기력해진다. 그러나 정치는 선택의 과정이고, 선거는 잔치다. 잔치를 잔치답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次善)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 입장에서 첫째, 올바른 역사관, 민족의식을 가진 후보자, 둘째, 사회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지도자, 셋째, 통일에 대한 비전, 국민화합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있는 지도자, 넷째, 도덕성이 있고 신념과 신뢰가 있는 지도자, 다섯째, 자신에게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여섯째, 지혜와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일곱째는 건강한 인물이여야 할 것이다.

부정적 입장에서의 지도자는 첫째, 부패 · 부정 · 탈세 · 횡령 · 파렴치범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지역감정 조장, 패거리정치, 골목정치 졸개로 따라다니던 정치인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 우물안 개구리 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대인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이 높은 사람을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사람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협동을 하고, 목표달성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인류역사상 간디를 최고의 지도자로 보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이 갖춰야할 조건으로 첫째, 공정한 사람 둘째,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을 꼽는다.

우리도 이번 선거에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후보자를 잘 보고 잘 뽑아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 웰빙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도 불교야말로 가장 앎과 이해를 통하여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종교이다. 신해(信解)라 하지만 믿음과 이해는 둘이 아니며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요즈음 여러 불교대학들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반가운 것은 불교대학들의 교과 내용이 다양화되어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여러 과목들이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체험적 실천의 장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위에 노년층과 여성불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수강생들이, 청장년층과 남성불자들로 확장되고 있기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건강한 한국 불교를 이룩하는 바탕을 불교대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리를 가진 불교이기에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추세를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당장의

불자들의 '향학열'

호황에 안주한다면 불교 선양의 큰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방만하고 무분별한 교육으로 오히려 비불교적인 것이 끼어들어 불교를 어지럽게 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나날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 식상한 수강생들이 오히려 불교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준 높은 교과과정을 범 종단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여법한 교과과정을 통해 불교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핵심적인 과정을 함께하면서 각 불교대들이 독자적인 과정을 추가, 창의적이고 독창성있는 다양한 과정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대학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불교대학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주는 데는 종단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불교에 대한 지적인 요구가 앞으로 얼마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결코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불교대학의 활성화가 불교 중흥의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약풀' 같은 삶

모진 질병 돌 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 이익한 일 한가진들 빼오리까
('이산 혜연 선사의 발원문' 중에서)

불자들은 예불 때마다 이산 혜연 선사의 발원문을 읽으며 그렇게 살고자 발원한다. 이산 혜연 스님처럼, 약풀이 되고 쌀이 되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매주 일요일 성남시 분당 보건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무료진료하고 있는 최윤근 박사(포천 중문의대 교수)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이 없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성남시를 설득해 2002년 1월 무료진료센터를 개설해 6,000여 환자를 돌보았다. 무료진료소를 찾는 근로자는 하루 평균 70~80명, 이들의 60%가 중국계지만 한국말은커녕 간단한 영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최박사는 환자들을 보다 잘 진료하기 위해 이번 학기 방송통신대학 중문과 3학년에 편입했다. 틈나는대로 중국어를 익혀 의사 소통은 가능하지만 외국인들이 마음편하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더 배우고자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말하는 최박사에게서 진정한 인류애, 실천하는 종교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느낀다.

불자들에게 친근한 말이 동체대비, 보시, 보살행, 육바라밀 등이다. 그러나 그 말들은 법문 속에, 책 속에, 관념속에만 있는 단어는 아닐지. 보시를 안하겠다는 불자는 없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여기니까 문제다. 나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 소외감과 피해망상에 신음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마음이 났을때 바로 '보시행'을 실천하자. 시작이 반이다.

■이경숙 (취재부장)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600회 맞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3월 17일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수요집회를 시작한지 600번째 되는 날이다.

할머니들은 70세가 훨씬 넘는 노구를 이끌고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참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 왔다. 할머니들께서 개인적으로는 결코 되뇌고 싶지 않을 고통의 세월을 공개하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시위하는 동안 우리 한국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보자.

지난 2월 말에는 국제 사회에 일본군 성노예 실상을 알려온 정서운 할머니가 8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역사의 파랑에서 개인적인 삶을 파괴당한 할머니들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일본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자.

고하영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문화재청 승격' 기사를 읽고

문화재청이 1급청에서 차관청으로 승격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 기사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 또한 들었다. 법개정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차관청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관청이 된 것보다 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문화재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화재청이 차관청이 되기 이전에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이었다. 그런데도 문화재 보존 · 관리와 연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장은 1급 공무원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마인드라면 차관청에 맞는 조직과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문화재청이 제기능을 하기위해서는 그 위상에 걸맞게 조직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다. 김장우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법보시 해주시는 분들께

예년에 비해 더 추운 날씨 때문에 유독 창가에 고드름이 많이 열린 올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엔 동장군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더욱 따뜻합니다. 이 곳 원주교도소에 법보시로 신문과 책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 길다란 고드름을 따서 칼싸움도 하고, 똑똑 깨물어 먹기도 하고, 동무의 옷 속으로 집어 넣기도 하고, 서로의 선을 호호 불어주던 기억들. 다른 기억과는 달리 아주 따뜻하고 맑은 추억이기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어립니다. 더불어 마냥 즐겁게 뛰어놀던 그 동무들의 얼굴이 그리운 것은 인지상정이겠지요.

어느덧 3월도 여러 날이 지났고, 덩달아 봄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해가 바뀌어도 변함 없이 법보시를 보내주시는 많은 불자님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박진선(원주교도소 불교회장)

독자 시

위선

곧추 선 대나무야
곧추섬을 자랑마라

너의 곁에 다다르면
한숨소리 수이들고
고엽(枯葉)으로 덮은
치부(恥部)
드러날까 머뭇노라

이 글은 무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성규 씨가 죄를 참회하면서 선행이 '위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쓴 시입니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부처님의 가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 박원구 불자 돕기를 회향하며 -

제불보살님과 원로대덕 큰스님들께 일심정례 귀의하옵니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급성간부전증'으로 서울 모 병원에서 간이식을 한 박원구 불자(전, 대불련 대구경북지부장, 현대불교신문 대구주재기자, 대구불교방송 기자)는 부처님의 가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던 박 기자와 가족들이 한 올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 하던 그 때, 부처님의 자비심과 대학생불교연합회 등에서 닦은 반연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의 큰스님들과 불자들이 박 기자를 후원하기 위해 나섰던 일은 이렇게 뜻깊은 감사 인사로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 기자는 아내와 사촌 남동생으로부터 간이식을 받은 후 경기도 이천 부모님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열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이번에 부처님의 영험과 불자님들의 후원은 자비심의 무게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박 기자의 복됨을 칭찬하지만, 박 기자는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이번 인연을 생이 다 할 때까지 시은(施恩)으로 여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박원구돕기불자모임을 회향하면서, 박 기자의 빠른 쾌차를 기원하며, 아울러 그간 돕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대덕 스님들과 경향각지의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원하시고 보시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기 2548(04)년 3월 11일

박원구돕기불자모임 공동대표 일동

대구 중구 동산동 714번지 전화 **053)253-2886**
cafe.daum.net/0909samo(09사모)

※ 저희 모임은 회향하지만, 아직 통원치료 등 병원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박기자를 위해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 은행 구좌로 해 주시면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대구은행 014-08-031387-9 (예금주 : 박원구)
■국민은행 006-21-1103-644 (예금주 : 박원구)
■농 협 171560-51-031721 (예금주 : 윤수태(박원구모친)

1. 2004년 1월 19일부터 3월 10일 까지 박원구 불자 통장(대구은행,국민은행,농협) 계좌로 입금된 성금내역입니다. (통장 입금 날짜순 및 입금자명임)

신정식 100,000 이효원 20,000 이경림 500,000 김기언 50,000 조영순50,000 87학번일동 800,000 부산 김영곤 100,000 부도암 500,000 박진수 100,000 이한득 50,000 남용태 1,000,000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스님 1,000,000 반야사 명권스님 100,000 수도암 현선스님 100,000 송향사 정환스님 100,000 광덕사 운성스님 100,000 염불선원 성범스님 100,000 통천사 선지스님 100,000 최정사 금봉스님 100,000 불교방송 최현태 500,000 향림사 정관스님 200,000 금용사 혜선스님 300,000 포교사단 조수호 30,000 불교방송 김영성 50,000 영남불교대학(1차) 300,000 변윤경 50,000 불교방송 이응진 100,000 이재원 100,000 장태호 150,000 불교방송 김양모 200,000 김수진 100,000 양혜윤 50,000 불교방송 류창수 100,000 김성수 1,000,000 불교방송 박명한 100,000 관음사 원명스님 100,000 불교방송 박치민 200,000 김순희 500,000 심인수 200,000 심명여 50,000 이호(누벨) 50,000 불교방송 박수경 100,000 김병주 10,000 장재규 50,000 이광석 20,000 손성희 50,000 서봉사 경희스님(1차) 500,000 86학번 800,000 김정림 100,000 이형숙 50,000 불교방송 종수스님 1,000,000 장윤선 100,000 파계사 법천스님 1,000,000 불교방송 박재현 100,000 곽병호 500,000 이철순 100,000 자비의전화 고경순 100,000 서현숙 300,000 장계수 50,000 한우진 50,000 월간해인 200,000 김인숙 30,000 공애란 200,000 원종동 30,000 불교방송 이현구 100,000 김은영 100,000 대전사 법일스님 1,000,000 이형신 20,000 이수찬 200,000 정순희 10,000 이잠태 10,000 오봉삼 100,000 백원하 30,000 조정희 30,000 불교방송 김형웅 300,000 승형칠래인 350,000 이정희 10,000 심성학 100,000 백재원 20,000 이은희 50,000 이순자 10,000 허미숙 100,000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100,000 이유호 100,000 장치욱 300,000 이석순 30,000 원만사 신도회 715,000 장은지 5,000 백은숙 20,000 최성훈 100,000 김상분 50,000 서봉사 경희스님(2차)500,000 군위 동림사 주지스님 50,000 만호사 효정스님 50,000 청수사 성환스님 100,000 청수사 종열스님 100,000 연왕사 용안스님 100,000 원만사 보현스님 100,000 옥련암 정륜스님 100,000 수덕사 성각스님100,000 양진암 성연스님 100,000 보리회(서봉사,원만사,수도암,옥련암,금용사,수덕사,양진암) 500,00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장 손문철 800,000 망월사 동진스님 100,000 민경희 100,000 강승화 30,000 강민정 50,000 안홍사 장적스님 500,000 이지현 100,000 매화복지관 100,000 정귀혜10,000 김희승 50,000 임지영 200,000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1,000,000 동화사 신도회 일동(1차) 1,000,000 지산스님 500,000 불산스님 200,000 통도사 김경혜 10,000 영남불교대학(2차) 30,000 양명숙 20,000 이성호 30,000 이종수 5,000 광주 한마음선원 1,000,000 신혜숙 30,000 김문주 50,000 이숙향 5,000 익 명 10,000 이재도 50,000 해암스님 100,000 최인숙 30,000 강조영 100,000 법성사 부용스님 210,000 최영숙 20,000 배선혜월 50,00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 310,000 장병석 30,000 김춘선 100,000 원문스님 50,000 정희경 10,000 임순님반야 75,000 불교방송 배종식 200,000 강조영 400,000 고경순(김옥희) 50,000 김선엽 200,00 익명(0 삼) 50,000 김창원 20,000 주영미 50,000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모금함 4,681,000 감천사 오정스님 1,000,000 동화사 강주 해월스님 100,000 금용사 혜선스님 100,000 동명사 105,000 동화사(2차):164,000원 현모사 27,000 보현사 378,000 내원암 111,000 복전선원 60,000 김순덕 10,000 평불협 경북대구본부 100,000 홍순덕 10,000 대구광역신도회 부회장 최정숙 50,000 동화사 종무소 직원일동 200,000(이종길5만,서재원5만,박은희2만,김교연3만,우주명5만) 조귀자 30,000 영명옥 10,000 대구 한마음선원(1차) 261,400 홍구 20,000 박기동 50,000 김희주 10,000 박유경 50,000 양후남 10,000 배석희 50,000 불교방송 사대동 100,000 김숙자 10,000 조옥순 30,000 김종숙 50,000 장훈석 30,000 이보형 50,000 김계옥 30,000 정미옥 50,000 용화굴 300,000 이린영 90,000 김정임 10,000 장만수 5,000 김호겸 20,000 박종경 50,000 김분선 50,000 주병수 50,000 세이-청불대경 100,000 강영도 100,000 윤상호 100,000 원만사 법홍스님 200,000 원만사 미타회 500,000 원만사 신도회 60,000 조정희 50,000 한기경 30,000 정선덕화 50,000 장기찬 10,000 최병조 100,000 김옥수 10,000 광주 이준엽 300,000 정보숙 50,000 홍광식 30,000 동명사 원종스님 415,000 신명옥 30,000 윤여란 50,000 박향란 50,000 정경순 10,000 강정희 10,000 김상길 207,000 김이숙 30,000 유금옥 110,000 김재욱 100,000 여옥세 30,000 김순자 50,000 은적사 10,000 임정숙 100,000 거해100,000 최병헌 50,000 대구경북 포교사단 염불포교팀 200,000 법광사 효신스님100,000 여태자 30,000 김병찬 15,000 김금주 30,000 전정윤 500,000 김현숙 50,000 상암스님 100,000 장경숙 20,000 신점기 30,000 김홍분20,000 최봉희 100,000 하형기 100,000 이천남 1,000,000 영주 고경사 300,000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1,000,000 맑고향기롭게(사랑회) 500,000 보현신협 서서열 200,000 하순식 50,000 자비의전화 100,000 이갑덕 30,000 이태일 25,000 이옥련 50,000 청 다 30,000 정법회거사림100,000 홍복사 청년회 200,000 송선희 10,000 한외태 20,000 최용수100,000 이동훈 30,000 김영희 10,000 은적사 윤명분 20,000 민해숙100,000 김영주 100,000 이용임 100,000 고희경 50,000 부처님 뜰 살림꾼들의 모임(조계종사찰종무원) 1,000,000 이순덕 10,000 이인기 100,000 이춘화 200,000 최은섭 30,000 백창현 200,000 강승구 50,000 강형구 50,000 포항관음사 1,389,000 양정임 200,000 박춘희 50,000 송원학원 권춘길 200,000 김정숙 100,000 은적사 허운스님 2,000,000 박철호 30,000 배기연 100,000 박숙희 30,000 영봉사 100,000 대덕암 50,000 이희관 100,000 오상심 30,000 범로스님 100,000 하종스님 100,000 혜휴스님 50,000 우해인심 50,000 전진우 30,000 이윤정 50,000 조명영 30,000 지보사 200,000 선석사 50,000 대구 한마음선원(2차) 2,536,500 김가자30,000 설영근 30,000 이복상 10,000 이재현 20,000 대구 운불련회장 신상용외 회원일동 1,000,000 길상회 회원일동 1,000,000 안덕순 30,000 한미자 50,000 영남불교대학(3차) 1,239,000 박종일 20,000 김명자50,000 지봉스님 100,000 이상번 100,000 홍순아 10,000 권오성 200,000 불교방송 정윤철 100,000 김명주 70,000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신동수,이월명화,동산불교대학 박선미,묘향산한의원, 지보사, 이명신,오희백) 1,130,000 김대희 30,000 미타선원 자비회 1,000,000 영남불교대학(4차) 24,000 대광맹인불자회 200,000 93학번일동 900,000 **합계 61,992,900원 (04.3.10. 현재 통장 입금액)**

2. 박원구 불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성금내역입니다.

박원구씨 배우자로터 확인된 금액이며, 경황이 없을 때 받은 것도있으므로, 명단에 누락된 불자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스님 500,000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종수스님 300,000 대구불교방송 직원일동 1,300,000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서서열 100,000 여래기획 곽병호 200,000 이수경 400,000 서울여래기획 공훈배 50,00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장 손문철 100,000 해인사수련동문회 전원중200,000 월간금강 최승천 100,000 서울불교방송 박호창 50,000 성왕기 200,000 김경자 50,000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1,000,000
팔공산답사회 회원 성금내역 ((남명주 50,000 이병규 100,000 곽연하100,000 이옥주 50,000 이은경 50,000 구수경 100,000 박명한 200,000
최광일 100,000 김명숙 50,000 이성예 100,000 이상현 100,000 정명교 300,000 류은화 20,000 손동미 80,000 곽홍태 100,000))
대불련 31년차 지부장 모임 1,000,000 한국불교기자협회 성금내역((천태종 500,000 진각종 500,000 대한불교신문 100,000 만불신문 150,000 밀교신문 100,000 불교신문 350,000 법보신문 500,000 불교와문화 30,000 불광 100,000 여성불교 50,000 주간불교신문 120,000 천태종보 100,000 한국불교신문 100,000원 현대불교신문 2,090,000 현대불교신문 신수회 300,000 현대불교신문 지사장단모임 200,000)) **합계 12,340,000원**

● 이 알림은 박원구돕기불자모임 공동대표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서 게재합니다.

겨울 철새들 '동안거'하는 피안의 땅



철원 평야의 철새들.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3) 철원 화개산 도피안사

봄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 우수(雨水)를 눈앞에 두고 봄 처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옛 사람들은 절기를 생태계의 변화에 견주어 표현했다. 그래서 우수를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늘어놓고,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는 절기'라 하였다.

근래 들어 반 생태적인 물고기 방생 대신 겨울철새 먹이주기나 조류방생이 새롭게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안거를 끝낸 철새들이 귀향채비를 하고 있는 철원 도피안사를 찾아 길을 나섰다.



철원 도피안사.

철원 땅에 들어서면 놀랍게도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현무암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이 지역에 화산이 폭발한 것은 추가령 구조곡이 생기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다. 그때 흘러내린 용암이 구조곡을 뒤덮고, 더러는 구조곡을 따라 흘러내려 넓은 평원을 이룬 것이 지금의 철원평야이다. 지질학상으로는 '용암대지'라고 부른다.

기러기들이 길 옆 논밭에 시커멓게 앉았다. 기러기들은 철원의 철새 먹이주기 방생행사의 주

헬기 굉음 · 관광버스 낟알묻은 채 갈아엎은 논… 두루미들의 겨울나기 위협

대상이 된다. 먹이는 주로 벼와 옥수수 등이다. 기러기들은 미각이 예민해서 묵은 옥수수는 별로 즐겨하지 않는다. 그리고 먹이를 줄 때는 철새들이 없는 곳에다 주어야 한다. 먹이를 준답시고 철새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내려놓으면 철새들이 금방 도망가고 만다.

사람들에게 한번 놀란 철새들은 그곳을 다시 찾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방생법회 등으로 너무 긴 시간을 현장에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월정리에서 옛 철원 시가지로 가다보면 샘통(물솟음터)을 지나가게 된다. 현무암 구릉지대에 자리한 샘통은 제4기 화산활동기간에 생긴 천연샘이다. 사계절 내내 수온 15℃의 물을 내보내는, 말하자면 노천탕 같은 자연 연못이다. 이 물이 드넓은 철원 평야를 적시고 철원 사람들의 목을 축여준다. 철새들을 철원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 이 샘통 덕분이다.

샘통을 지나 도피안사로 가는 길은 옛 철원 시가지를 관통하는 길이다. 군데군데 두루미 가족들이 한가로이 곡식을 주워 먹고 있다. 철원의 두루미 배웅길은 아쉬움이 많다. 진주에서 시작된 3번국도가 최근 신탄리를 지나 민통선 안으로까지 들어오면서 주위환경이 많이 변하였다. 수시로 날아다니는 헬기들의 굉음, 안보관광을 핑계로 드나드는 많은 차량들, 해마다 늘어나는 비닐하우스, 철새들의 식량인 낟알들을 묻은 채 갈아엎어진 논…. 이 모두가 겨울철새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염려스런 요인들이다.

노동당사를 지나면 왼쪽으로 화개산(花開山)이 보인다. 높지도 깊지도 않은,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야트막한 마을 뒷산에 불과한 산이다.

안내판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산속에 천년고찰 도피안사(到彼岸寺)가 자리하고 있으리라 짐작도 못할 그런 야산이다.

도피안사가 이 산에 앉게 된 인연사가 <유점사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에 소상히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경문왕 5년(865) 도선 국사가 철불상을 조성해 울이리에 자리한 안양사(安養寺)에 봉안하기 위하여 가던 도중 화지리 암소고개에 이르러 잠시 쉬게 되었다. 그런데, 쉬는 사이에 불상이 소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백방으로 찾아 나선 끝에 다행히 화개산 골짜기에서 불상을 찾았다는 것이다.

'아유차처 무피난처(我有此處 無被難處)로다. 부처님 스스로 이곳으로 오셨으니 이운을 중단하고 이곳에 절을 짓자'

도선은 화개산에다 암자를 지어 불상을 모시고자 했다. 그러나 화개산 산세를 돌아보니 도저히 부처님을 모실만한 피안의 형국이 아니었다. 바람[外勢]이 불면 연꽃처럼 흔들려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연화부수형 땅이었다.

이에 도선은 절터에 철불과 함께 석탑을 세워 비보(裨補)하고서야 비로소 절을 지을 수 있었다.

요즘 도피안사는 불사로 좀 어수선하다. 산 이름[花開山]에 걸맞게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답시고 중장비를 동원해 엄청난 면적의 숲을 훼손시키고 산자락을 벌겋게 밀어냈다.

철원군에서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벌인 장난이 아닌지 모르겠다. 야생화 단지도 좋지만, 무성하던 숲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벌일

야생화 단지 조성위해 무성하던 숲 벌겋게 밀어내 '황당'

까닭이 있었을까 싶다. 기존에 있던 숲을 훼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상에 초본류를 식재할 수도 있고, 초본류가 아닌 목본류를 중심으로도 꽃나무 숲을 조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숲만 애꿎게 망가뜨려 놓았다. 사찰 가꾸기도 좋지만, 너무 작위적으로 불사를 벌이면 탈이 난다.

도피안사 앞마당에는 수령 550년의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교목인데도 불구하고 아랫줄기부터 부챗살처럼 퍼져 있어서 화마와 전쟁으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보는 듯하다.

대적광전 앞 석탑은 지난 1966년부터 해마다 금와보살(金蛙菩薩)이 나타나 세간의 주목을 받은 탑이다. 언론은 이 불가사의한 개구리의 정체를 '금개구리'라고 발표했지만, 아무래도 청개구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석탑의 수직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개구리는 발바닥에 점액을 가진 청개구리뿐이기 때문이다. 또, 1센티미터 밖에 안 되는 돌 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몸집도 청개구리 밖에 없다. 그리고 동면에 들어갈 무렵이면 주위의 색깔에 맞추어 보호색을 띄는데, 발견 당시 개구리가 회갈색의 불규칙한 무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적광전 뒤로 화개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이 나 있다.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뒤섞인 혼효림이지만, 인간의 간섭을 너무 받아 자연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게다가 전쟁 통에 식생이 많이 훼손되어 고참급 나무들이라야 수령이 기껏 30~40년 정도이다. 게다가 지하벙커를 비롯한 군사시설들이 산을 곳곳에 파헤쳐서 화개산이라는 미명을 참혹케 만들고 있다. 식생의 아수라장을 보는 듯하다. 언제쯤 통일이 되어 화개산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화개산 정상에 오르면 학저수지가 내려다보인다. 10년 전(1992) 민통선이 해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수지 주변 들녘은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친정마을이었다. 그래서 이름도 '학저수지'이다. 때마침 몇 마리의 두루미들이 도피안사 쪽으로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저녁 예불에 참례하러 오는 길인가….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약사여래 원력으로 청진기를 잡습니다



단전호흡강의 듣고 불교와 인연
힘들고 어려울땐 경전 읽으며 극복
성실하고 밝은 천성에 별명 '달마'
값싼 진료비, 친절한 병원 위해 최선

광주 방부불교병원 **홍/기/표** 원장

"오늘 제가 당직인디 응급실에 환자가 있어 먼저 다녀올랍니다."

광주 계림동에 자리한 방부불교병원 홍기표 원장(洪箕杓 · 44). 바쁠 것이라 예상하고 일과가 끝난 저녁에 병원을 찾았건만 원장실에 잠깐 붙들어 놓기가 쉽지 않다.



여기저기 병원 내를 서성이는데 복도 벽면에 붙여진 글귀가 눈에 띈다.

약사여래 동방정토(藥師如來 東方淨土) / 광주동방 계림방부(光州東方 鷄林邦父) / 약사여래 서원성취(藥師如來 誓願成就) / 계림방부 불교병원(鷄林邦父 佛敎病院)

'광주의 동쪽 계림에 자리한 방부불교병원은 동방의 약사여래 서원성취 도량이다'는 홍원장의 불교병원 건립의지가 담긴 글귀다. 약사여래는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해 열두 가지 원을 세운 부처이다.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하고,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완전하게 하고, 중생의 기갈을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가난한 이에게 의복을 갖추게 하여 무상보리를 증득케 하는 원이다. 이러한 약사여래의 원을 좇아 홍 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불교병원을 개원했다.

"의대 재학 중 나주 다보사 일륜 스님 병문안을 갔지라. 스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찡 합디다."

스님 수술에 앞서 목사가 머리맡에서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더라는 것이다. 기독교 병원이었던 것이다. 목사의 마음은 고맙지만 불교병원 하나 없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으로 마음이 상해있던 차에 의대생을 만나자 불교병원 건립을 당부했던 것이다. 이때 세운 불교병원 건립 원력이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기까지 홍 원장은 또 다른 인연이 몇 있다.

홍 원장은 나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시골 돌팔이'를 만났다. 살이 썩어 들어가 결국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쓰게 됐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의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광주 원각사에서 송광사 현묵스님의 단전호흡 강좌가 있었다. 동양학과 건강에 깊은 관심이 있던 그에게 단전호흡은 불교와의 인연이 되었다. 그 후 고등부, 대학부 불교학생회를 거치면서 신심 깊은 불자로 거듭나게 됐다. 학생시절 한 권 짜리 '한글 대장경'을 머리맡에 놓고 살았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글대장경을 펼쳤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무난하게 이겨냈다.

사회에 나와서도 그러했다. 전문의를 마치고 개업하기 위해 '대촌리' 시골로 들어갔다. 약사여래 원력을 안고 살아온 홍 원장에게 의술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었다. 경전을 읽고 또 읽고서 결단을 내렸다. 그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찾아가자는 것이었다. 당시 전문의는 대부분 시, 군 단위에 개업하는 것이 통례였다. 부지런하고 낙천적인 천성과 약사여래의 원력을 담은 손길은 환자들에게 쉽게 다가갔고 지역에서 으뜸가는 병원이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홍 원장에게는 '달마'라는 별호가 붙었다. 서글서글한 외모나 성품이 친근하게 다가와 하얀 가운만 승복으로 바꾸면 영락없는 달마다.

"아마 10만 명은 족히 진료했을 것이요. 환자는 일거수 일투족을 잘 봐야 허요. 그러면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제대로 보면 풀기는 어렵지 않지라."

홍 원장은 '명의'로 소문이 났다. 그의 전공인 가정의학과 특성상 신체를 골고루 공부했고, 단전호흡은 몸의 전체적인 흐름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환자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 분명히 병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내린 그의 진단은 틀림이 없었다. 많게는 하루 300명이 넘는 환자를 봤다. 그러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부모님 모시듯 했다.

홍 원장은 "의학이란 막히면 뚫고 뚫려 있으면 막아서 생명이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한다. 병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그동안 서양의학은 분야별로 매뉴얼화 되어있어 책이 대형도서관으로 하나가 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진단만 정확하면 고쳐지지 않는 병이 없다는 것이다.

도심지 한복판에 자리한 방부불교병원은 10층 건물에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진단의학과 등 첨단학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진료를 담당하는 준 종합병원이다.

건물을 다시 개조해 개원한 방부불교병원은 깨끗하고 아늑하기가 호텔을 방불케 한다. 50여명의 진료진이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서비스이다. 그렇지만 홍 원장은 "치료 잘하는 병원이 우선이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다음이 전국에서 가장 값싼 진료비를 받는 곳이고 그러면서 친절한 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 이념인 '생명발현'을 나비로 상징화 한 방부불교병원 마크.

방부불교병원이 개원하자 인근 교회에서 '불교병원 간판내리기 작정기도'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불교병원에 대한 불교인들의 관심이 많은 편도 아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병원내부에서조차 은근히 간판에서 '불교'를 지웠으면 하는 무언의 압력도 있다.

"너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일은 신경쓰지 안해버려요. 불교병원에서는 분별없이 누구라도 항상 열어놓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뿐이지라."

며칠 전 입원환자가 100명이 넘어섰다. 홍 원장 명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제 운영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약사여래 열두 서원 가운데 일곱째가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려는 원이다. 의사, 환자를 둘로 보지 않고 병을 치료한다기 보다 환자를 도와 함께 부처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홍 원장의 원이다. "불교병원 건립을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돕겠다"는 홍 원장은 "일산 불교병원의 개원을 계기로 지역마다 불교병원들이 생겨서 전국의 네트워크화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발원도 잊지 않았다.



글=이준엽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예수재법회

절재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사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산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옹큰스님사리친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회	우리절
막재	4.18	일	봉송법요식	우리절

제 3재 태화산산신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제 8권을 나누어 드리고 제 6재 관정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제4재 점안법요식에서는 예수재용품을 비롯하여 금강경탑다라니와 광명진언탑다라니를 점안합니다.
예수재용품은 회향 때 살라드리지만 이번 윤달에 우리절에서 점안한 탑다라니는 종이가 아닌 비단 위에 그려진 것으로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5>

관세음보살 염하면 복 받나

불자들을 향해 당신이 믿는 불교의 신앙대상 가운데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단연 관세음보살을 으뜸으로 꼽을 것입니다. 수많은 관음성지와 각 사찰마다 끊이지 않는 관음기도만 보아도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우리 불자들에게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최고로 추앙 받아야 될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욱 불자들의 인식 속속에 이처럼 관세음보살이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은 그 만큼 관세음보살의 중생을 향한 원력과 자비가 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천수천안관세음



보살 대비 심 대다라니 경>을 비롯한 <능엄경>이나 <화엄경> 등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경전은 역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이 경은 예로부터 <금강경> 그리고 <원각경> '보안 보살장'과 더불어 불자들에게 항상 수지독송 되어 왔던 경으로 특히 중생의 크고 작은 소원을 들어 준다는 믿음 측면에서 더욱 선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 것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 받게 되는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가피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수호신이며 만능의 해결사로 불교 믿는 사람은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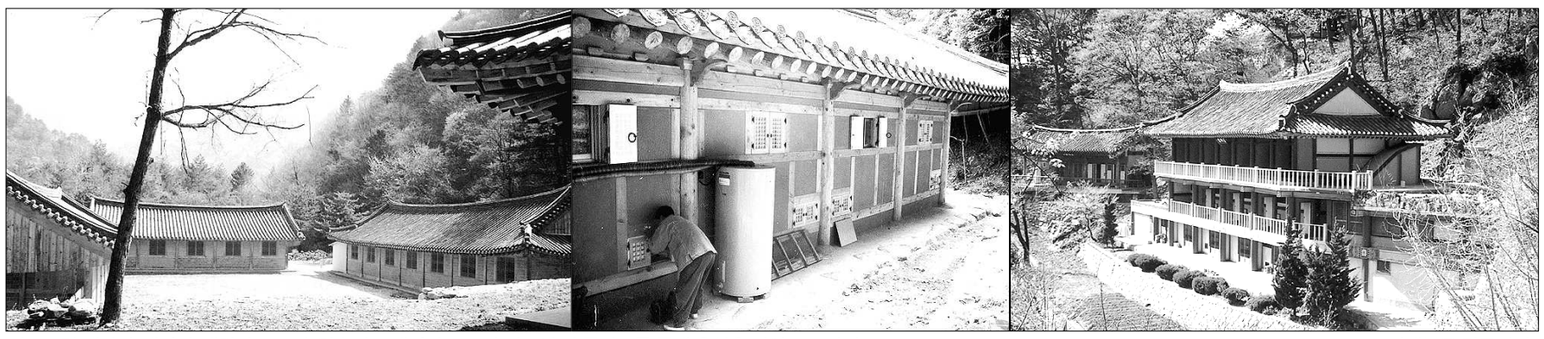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많은 불자들은 이 경을 봄에 있어 자신의 욕심이나 들어주고 액운이나 막아주는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여 그 참뜻을 놓치는 예가 없지 않습니다. 늘 말해왔듯 경전은 비유와 상징으로 중생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주된 주제는 거의가 중생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설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불구덩이니 바다나 산봉우리니, 족쇄니, 독충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중생들 마음속에 들어 있는 번뇌와 미혹을 상징한 것으로 수행 차원에서 이해해야 옳습니다. 즉 불구덩이는 중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애욕을 말하는 것이며, 바닷물은 어리석음과 집착을 말하는 것이고, 산봉우리는 고독과 절망을 말하는 것이며, 도둑과 칼은 탐욕과

마음에서 번뇌 사라져 해탈 이룬다는 의미

악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랑과 족쇄에 묶였다는 것은 온갖 인연과 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을, 악한 짐승과 독충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가지 악하고 독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귀신을 만나고 저주를 당한다는 것은 마음이 산란하거나 삿되게 되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액란이 소멸된다는 말씀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 해결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번뇌들이 사라지게 되어 마침내는 해탈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항상 마음에서 염하되 그로써 자신의 마음을 되비추어 저 번뇌들을 깨뜨리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무엇인지 진정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밖에서 오는 재난이나 막으려는 목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어리석음만 더해져 길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마선원장>



왼쪽부터 백담사, 백련사, 대자암 무문관. 가운데는 백련사 무문관 뒷쪽에 난 공양구를 통해 음식을 넣어주는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중생의 시방세계가 거대한 무문관"

"무문관에서 깨달음을 얻고 벽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짓된 껍질을 완전히 부수어 내외가 명철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오롯이 일념으로 화두의심만 챙기는 것이니 최소한의 생활로 선정삼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무명속에서 생사여일의 활로를 찾는 과정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무문관입니다."

좁은 독방에서 자물쇠 걸고 3개월에서 3년 면벽참선

2월 28일 원적에 든 관응 스님(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직지사 조실 역임)은 지난 2000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문관 수행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관응 스님이 6년간 천축사 무문관에서 용맹정진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생사(生死)의 관문을 뚫는 무문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무문관 수행이란** = 겨우 한 사람이 기거할 만한 공간,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몇 년이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 독방은 가로 한칸, 세로 두칸 크기의 좁은 공간이다. 수세식 좌변기와 간이 샤워기가 설치돼 있고 상하기 쉬운 음식물을 넣어둘 수 있는 작은 냉장고도 한 대 있다. 매일 오전 11시 방마다 유일하게 외부와 통하는 작은 공양구(供養口)가 열리고 시봉을 맡은 스님이 음식을 넣어준다. 이처럼 4면이 벽인 방안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고 최소 3개월부터 3년 동안 면벽참선하는 것을 '무문관(無門關) 수행'이란 한다.

'무문관'이란 명칭은 송나라 무문혜개 선사가 지은 선어록 이름을 딴 것이다.

◇**무문관 수행의 유래** = 문을 닫아걸고 정진하는 '폐문 정진(閉門精進)'법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달마 대사의 면벽 9년이 시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규봉종밀 선사는 <도서(都序)>에서 달마선법인 '벽관(壁觀)'을 "밖으로 모든 인연을 멈추고 안으로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서 마음이 장벽과 같으면 도에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면벽하여 마음을 본다'는 의미에서 '면벽관심(面壁觀心)'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 달마 대사의 '면벽선'은 마음을 장벽과 같이 요지부동한 상태에서 도와 하나 되는 선 수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훗날 조주, 고봉 스님 등이 죽기를 각오하고 정진했다는 '사관(死關)'도 무문관 수행의 일종이었다. 한말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폐문수행하고, 일제시대 효봉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 선방에서 3년간 두문불출하며 정진한 것도 무문관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문관'이 하나의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주지 정영 스님(현 대자암 조실)이 '무문관'이라는 참선수행도량을 세우면서부터다.

◇**국내 수행 현황** =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선원은 천축사에 처음으로 무문관 수행 기풍을 세운 정영스님이 20여년의 정성으로 조성한 93년에 3층 규모의 '삼매당(三昧堂)'이란 이름의 선원이다. 현재 제1 무문관선원에 비구니스님 4인 등 10명이, 제2 무문관선원에 비구니스님 3명 등 7명이 5개월과정으로 무문관 수행 중이다.

대자암에 이어 94년 문을 연 무문관은 제주도 남국선원(선원장 혜국). 현재 7명의 중진급 수좌들이 정진중이다.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5년 후까지 접수가 끝난 상태.

98년 여름에는 설악산 백담사에도 '무금선원'이란 이름으로 무문관이 생겼다. 2000년 4월부터 3년과정으로 5안거 이상을 지낸 9명

1964년 천축사에 첫 개관 매년 40여 수좌 무문관에

의 스님이 정진결제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하안거부터는 8명의 비구스님들이 3개월과정으로 정진하고 있다.

2002년 4월 10일에는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도 처음으로 무문관 입제 방부를 받았다. 매 안거 때마다 5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밖에 2002년 통도사 백련암 죽림굴에서 3년간 독방 좌선을 마친 원산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처럼 개인적으로 무문관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 수좌스님들은 알려지지 않은 토굴까지 포함하면, 무문관은 10여곳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다 합치면 무문관 수행자는 40여명에 달하며, 매년 안거에 드는 2,000여 수좌의 2%에 달한다.

현재 수좌계에서는 종립선원인 봉암사에

6년 결제 마친 스님 3명 현재 원공스님만 살아계셔

30여명 정원의 무문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축사 무문관 거쳐간 고승들** = 1964년 천축사 무문관은 6년 결제에 들어갔는데, 2회차를 마친 후 79년까지 100여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였지만 기한을 제대로 채운 스님은 그리 많지 않아 2회만에 중단됐다. 너무나 규칙이 엄했기 때문에, 보문 관응 구암 제선 현구 지효 경산 도천 관묵 천장 도영 석영 무불 원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만이 이름을 남겼을 정도다.

이들 중 6년 기한을 채운 스님은 3명에 불과다. 1회 때는 관응, 제선 스님이, 2회 때는 구암 스님이 원만회향 했으며 원공 스님은 2년 늦게 들어와 4년만에 구암 스님과 함께 과정을 마쳤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산에 도라지를 심는 사람들'과 함께 국토 순례 행선(行禪)을 하고 있는 원공 스님이 유일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알아봅시다 / 조사선 전통 잇는 무문관 수행

무문관 수행 "1~3년이 적절"

선사 7인 초청법회 여는 지범 스님



"선방에서의 대중 정진은 결제기간에 쫓겨 흐름이 끊기기 쉽지만, 무문관 수행은 정진력이 붙을 때까지 치열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문관 수행은 1년 내지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 백담사 무금선원, 96~97년 갑사 대자암 무문관 수행을 마친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은 96년 대자암에서 정진할 당시, 6개월만에 무려 14kg이나 체중이 빠졌다. 참선 중 화두에 대한 의정과 호흡, 번뇌망상까지 모두 화두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상태인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되기 마련이어서 하루 1끼의 공양마저 거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심이 지속되다 보면 잠도 오지 않아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진다고 한다.

무문관 수행에서 얻는 힘으로 서울 도심에 참선도량을 일구로 있는 지범 스님은 3월 21~27일 보문사에서 7일간 '선사 초청 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는 고우(각화사 선원장, 21일), 일오(월명암 선원장, 22일), 현산(화엄사 선원장, 23일), 혜국(남국선원 선원장, 24일), 무여(축서사 주지, 25일), 대원(학림사 조실, 26일), 혜정(법주사 회주, 27일) 스님 등이 법사로 나선다.(02)823-7443

김재경 기자

BBS 광주불교방송 개국 9주년 특집공개방송

범능스님의 노래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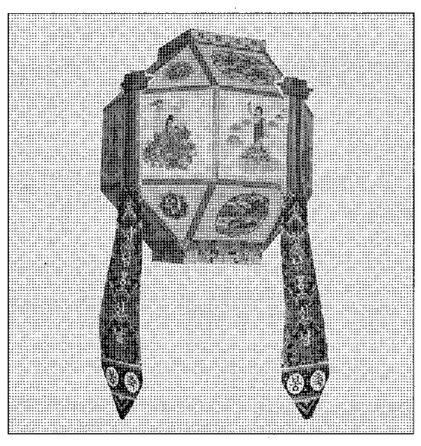
최루탄가스로 뒤덮인 금남로에서
광주출전가를 목놓아 부르던
민중가수 정세현이
수행자가 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높았던 목소리 대신
울림이 있는 사색의 메시지로 세상을 밝히는
범능스님의 음악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 / 노래하는수행자 범능스님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소리꾼 고현미.주소연
MC / 방송인 이진화

*때 / 2004년 3월 14일(일) 오후 3시
*곳 / 광주신세계백화점 야외무대

▮주최 : BBS 광주불교방송 ▮협찬 : 광주신세계백화점 / 신세계 성형외과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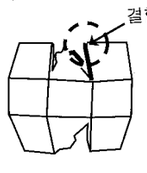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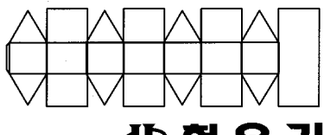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빨리 빨리 No!

이젠 천… 천… 히…

'느림' 명상문화 확산

최근 '속도'를 떨쳐낸 느림의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숨가쁘게 살아온 이들이 이제는 '슬로비족(slobbie:slower but better working people)'이 되기 위해 나섰다. 일상에서 느림과 여유를 녹여내다 보면 자기정화 및 자기변화의 계기를 절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명상의 의미나 목표와 통한다. 그래서 슬로비족에게는 삶 자체가 명상이 된다. 생활 전반에 널리 퍼진 '느림명상' 문화를 짚어본다.

단순·반복 명상음악 인기

◇문학·예술= 밀란쿤데라의 <느림>, 피에르 상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등이 연일 베스트셀러에 오른 뒤부터 출판계에 '느림' 바람이 매섭다. 초기에는 일상에 '느림'의 화두를 던지는 것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글쓰기·읽기 자체에서 느림문화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용인느린문화학교 강창래 교장은 "정보에 목말라하는 시대가 다독(多讀)과 테크닉 위주의 글쓰기만을 강조해왔다"며 "진정한 읽기·쓰기는 자기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느린 템포의 명상음악을 듣는 것도 곧 명상이 된다. 최근 단순한 형식에 느리고 반복적인 리듬으로 대표되는 명상음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음악평론가 김진묵 씨는 "'옴 마니 반메 훔' 등 만트라(진언)나 특정한 음악형식이 반복되는 명상음악은 듣는 이를 이완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느림과 깊이를 동시에 갖춘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한국 정가원 박종순 원장은 "최근 시조창을 배우려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며 "깊고 느린 호흡이 기초가 되는 시조창은 속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생활명상의 기회를 마련케 해준다"고 말했다.

◇놀이문화=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명상편의점.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듯 취향대로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성큼성큼 내딛는 몇 걸음이면 단숨에 오갈 이 공간을 5분 동안 느릿느릿 걷고 있는 직장인이 있다. 바쁜 업무 때문에 결코 한가롭지 않은 점심시간이지만, 5분간의 느린 걸음을 통해 그는 느림의 미학을 몸소 체험한다.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명상록을 읽기도 한다. 그 순간만큼은 삶에서 긴박함을 밀쳐내고 '여유'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상단체 '수선재' 홍보실장 박중양 씨는 "바쁜 일상에 시달릴수록 속도를 늦추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명상공간에 관한 수요가 급증해 오는 3월말 일본의 동경과 인사동에 명상편의점 2,3호가 추가적으로 마련된다"고 밝혔다.

웰빙바람을 녹인 취미생활에도 느림의 문화가 반영됐다. 온몸을 느리게 움직이는 태극권과 선무도를 비롯한 각종 동양 무예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들은 몸의 감각과 들숨날숨 호흡을 꾸준히 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운동이다. 덕성여대 건강심리학과 김정호 교수는 "걷기든 달리기든 숨쉬는 것이든 깨어서 볼 수 있으면 무엇이든 명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면 성찰에 무게 둔 읽기·글쓰기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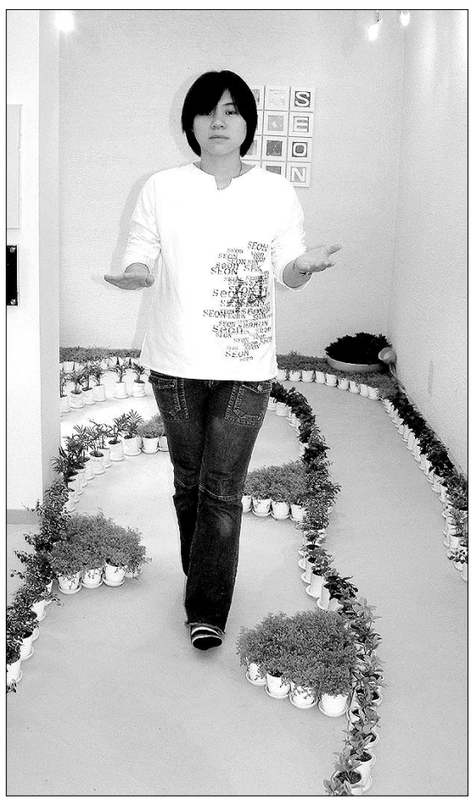
명상편의점 확산…여유롭게 즐기기

◇식생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슬로 푸드(slow food)'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발판을 넓혀가고 있다. 8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맥도날드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 푸드' 문화에 반기를 들고 여유로운 식사의 즐거움과 전통음식 보존 등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 같은 슬로 푸드 운동은 귀농 움직임과도 직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복잡한 도시를 등지고 농촌행을 결심하는 추세다. 이들은 자신들의 양식을 스스로 경작하며 느린 삶의 소소한 재미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직접 텃밭을 가꾸며 그 뜻을 함께 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국내 슬로 푸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경남대 사회학과 김종덕 교수는 "조리와 식사 자체에 투자하는 과정 역시 수행과 명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며 "식생활에 붙은 속도를 낮추고 여유로운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서울 광화문 명상편의점에서 걷기명상중인 직장인.

인터뷰

이론·기술 배제…자연스러움 추구

용인 느린문화학교 교장 강창래씨



"'느리다'는 것은 기계 속도의 기준에서 느린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제 속도입니다."

디지털로 대표되는 속도의 문화가 사회를 강타하고 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아날로그다. 그러나 시대는 제 몸의 속도를 망각하고 '보다 빠른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느림의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가 있다. 지난 해 9월 경기도 용인에서 '느린문화학교'를 시작한 강창래 씨가 바로 그 주인공.

"속도에 지쳐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학·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에서 느림의 가치를 적용하며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이끄는 느린문화학교 수업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는 지도강사들은 그 어떤 이론이나 기술도 가르치지 않는다. 수강생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주제들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전부다.

강 씨는 "4월부터 진행되는 올해 수업에서는 느리고 올곧은 삶의 실천이 다름아닌 생활명상임을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벨 훅스 (上)

흑인 여성운동의 대모

"내게 있어 여성운동은 이 사회에 자비의 토대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여러 사건들을 밝게 비춰줍니다. 나는 사회적, 문화적 비평 활동을 통해 독자들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패러다임을 개선하는 생각을 내도록 일깨웁니다. 이것이 나의 사회적 자비행입니다. 나의 여성운동은 도전과 방해를 받거나 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론 지지를 얻기도 하지만 시종일관 자비를 근거로 합니다."('샴발라 선' 중에서)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의 제자인 벨 훅스(Bell Hooks는 필명, 본명은 Gloria Watkins)는 인종, 성차별, 계급, 문화의 정치학에 관해 20여 권의 비평서를 집필한 인기작가이다.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욱 유명한 급진적 흑인 페미니스트 사상가이자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문화비평가이자 교육가, 영문학자로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어린이를 위한 책도 두어 권 썼고 미술에도 관심이 많은 팔방미인이다.



비평서 20여권 집필

"여성운동은 자비행"

페미니즘이란 '성차별주의와 이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는 운동'이라고 정의해 온 벨 훅스는 "페미니즘은 특히 우리 모두에게 삶을 살찌우고 긍정하는 방식으로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역설해 왔다. 페미니즘 역시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해 온 그녀는 여성운동가는 수행자와 같은 고행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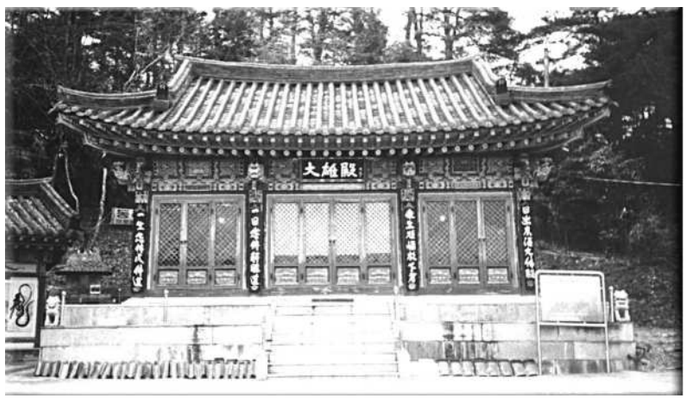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주의 운동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을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힘든 삶'입니다. 차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고된 삶'입니다. 새롭고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아는 '어려운 삶'입니다. 머리 속의 운동이 너무 편한 것만 쫓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Feminism is for everybody)> 중에서)

경력과는 걸맞지 않게, 미국의 가난한 남부 시골 흑인분리구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Hopkinsville, Kentucky, 1952년 9월 25일 생) 흑인 여성 훅스는 10대부터 사회의식에 눈을 떠 '남성지배를 거부하고 가부장적인 사고에 저항하며' 성장했다. 1년 간 고향에서 여자대학을 다니다 그의 재질을 눈여겨본 교수의 추천으로 2학년 때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겼다. 1973년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위스콘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1983년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현재 뉴욕시립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지적인 작업이 상아탑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사상적 작업에 장애가 된다고 말해왔다.

훅스는 70년대초, 당시 캠퍼스를 뒤흔든 페미니스트 운동의 영향으로 작가 다이안 미들러브룩(Diane Middlerbrook)의 여성학 수업을 들으며 의식화 그룹의 유일한 흑인 여성으로 참여한다. 페미니즘과의 조우는 백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훅스와 같은 젊은 흑인 여성들에게도 인종 및 성별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백인 우월주의적 자본주의 가부장제에 대한 분노는 그녀로 하여금 노예해방운동가 소저너 투루스의 피맺힌 절규를 제목으로 붙인 첫 번째 저작,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흑인 여성과 페미니즘(Ain't I a Woman: Black Women and Feminism)>를 쓰도록 이끌었다.

19 세에 쓰기 시작한 이 책은 8년간의 연구조사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92년 <퍼블리셔스 위클리>지에서 선정한 '지난 20년간 여성이 쓴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계속)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법비가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밤,낮 없이 법비가 내리고 92년 10월 29일 찬란한 무지개 발현. 11월 8일 오색불꽃이 발현. 새벽기도중인 신도들을 감탄케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와 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삼사순례도 하시고 10분기도로 한가지소원을 몸소 채험해 보세요.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흥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주장자 따라…

⑫ 고봉 스님의 '나귀삯'

조태호



고봉 스님(1901~1969): 황해도 장연 生. 25세에 서울 대각사에서 용성 스님에게 출가. 망월사에서 만일결사정진. 제방선원서 정진후 경전공부. 통도사 · 해인사 등서 강사.

네티즌 교리문답

"견성=성불, 맞나요?"

문 선종에서는 '견성 즉 성불(見性卽成佛)'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요? 어떤 분들은 견성한 조사스님들은 아라한과 같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최초의 아라한'이라하지만, 조사스님들은 부처님과 같은 공덕과 위신력은 갖추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ID '부천시민')

답1: 일단 부처라는 상에 이끌리고 있는 이 마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견성도 부처라는 상처럼 허망한 것이지요.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견성인데, 6신통을 구족했으면 부처요 깨쳤어도 6신통이 없어서 생과 사에 자재하지 못하면 단지 견성한 도인일뿐 부처의 지위는 아니라고들 나눕니다. 하지만 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밖으로 무수한 이름들에 끄달릴 뿐 그전에 뒤돌아 보지 못하는것 뿐입니다. (ID '야메중생')

답2: 원불교 정산 종사의 말씀에 이와 관련한 글이 보이네요. "모름지기 견성하는 것이 도(道)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어리석어 '견성즉성불'이라 하여 견성이 성불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모르는 소리다. 내가 우주인 줄 알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사람은 업습(業習)이 두껍기에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진실로 부처가 되지 못한다. 사실 무엇을 본다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 몸으로 나타내는 것, 지행일치가 중요하다."(ID '붓다팬')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㉟

불립문자(不立文字)-8

우주 만유를 다 포용하고 수렴하는 그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원리, 진리를 천명한 것이 고전사상과 고전종교 태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그 궁극적인 원리를 개개인이 내면화할 것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 적어도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스스로 세상만사의 궁극적인 원리를 체득하고 내면화하여 그에 부합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것은 그 이전의 이른바 원시종교나 고대문명의 종교와 비교해보면 매우 혁명적인 변화였다. 원시나 고대의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에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과 사람의 의지로 어쩌지 못하는 힘이 온갖 곳에 잔뜩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존재를 학술적인 용어로는 정령(精靈)이라고 한다. 우리 민속의 용어로는 천지신명이니 신령이니 하는 것과 또 갖은 잡귀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에도 중요한 것이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다. 중요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세상의 일,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힘이 센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원시나 고대 종교에서는 그런 존재와 힘을 잘 이용하거나 잘 달래서 사람에게 유리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고전종교에서는 모든 문제가 그런 바깥의 존재와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더 궁극적인 세상의 진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개개인이 그 궁극적인 진상을 모르고 이에 어긋나게 사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개개인이 세상 전체의 궁극적인 진상을 깨닫고 체득하여 그에 부합되게 사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전종교에서는 모든 문제와 해결이 개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니, 원시나 고대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준다.

모든 문제 진상에서 비롯
개개인 내면화 할 것 강조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고전문화의 태동은 문자문화의 태동과 시기와 현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고전 사상과 종교의 태두들은 문자문화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겼다. 문자는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 진상을 내면화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만사 전체를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앞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이를테면 불이적(不二的)인 원리이다. 각양각색의 현상과 사물을 각자 낱낱이 쪼개진 채로, 즉 물적(卽物的)으로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모두가 하나로 수렴되는 통합성을 깨닫고 내면화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고전 사상이요 종교인데, 가만히 보니까 문자문화는 통합성의 자각과 내면화에 장애가 되더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월터 옹은 시각과 청각의 차이를 거론한다. 말은 청각적이고 글은 시각적인데, 시각은 토막 나는 감각임에 반해서 소리는 통합하는 감각이다. 시각은 분리하고 청각은 합체시킨다. 시각의 전형적인 이상은 명확성과 명료성, 즉 나누어 보는 일인데 반해서 청각의 이상은 하모니, 즉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내면성과 하모니는 이미 인간의식의 특징인데, 글이라는 시각적인 장치는 의식을 분절화(分節化)시키고 타자화(他者化)해서 내면성과 통합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1>

천주광녀의 법문

부처님 일 일념으로 파악하여 드러내
깨끗한 마음에 의한 기억은 여래의 경계

마야부인의 가르침에 따라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선지식은 천주광녀(天主光女)다.

그녀는 33천(天)의 정념(正念)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다. 왕의 명칭이 '정념'인 것은 커다란 지혜의 작용이 아무런 조작됨도 없이 자재한 것이 천왕과 같음을 나타내고, 그의 딸의 명칭이 '천주광'인 것은 지혜의 작용이 생사의 속에서 자재하게 자비로운 신통 조화를 일으키는 것을 나타낸다.

선재동자가 천궁에 가서 그녀를 보고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걸림 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이다. 나는 이 해탈의 힘으로 지나간 세상을 기억한다. 과거에 가장 훌륭한 겁이 있었으니 이름이 '푸른 연화'인데, 나는 그 겁에서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다. 그 여래들이 처음 출가할 때부터 내가 받들어 수호하고 공양하였는데, 절을 짓고 모든 도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저 부처님들이 보살로서 어머니의 태에 계실 때와 탄생할 때와 일곱 걸음을 걸을 때와 크게 사자후할 때와 동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궁중에 계실 때와 보리수를 향하여 정각을 이룰 때와 바른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시킬 때에 여러가지 하시던 일을, 처음 발심한 적부터 법이 다할 때까지를 내가 다 밝게 기억하여 잊은 것이 없으며, 항상 앞에 나타나서 생각하고 잊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선지겁(善地劫) 묘덕겁(妙德劫) 무소득겁(無所得劫) 선광겁(善光劫) 무량광명겁(無量光明劫) 등에서 미진수의 부처님 여래를 공양하였던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렇게 항하의 모래수 겁에 내가 부처님 여래 · 응공 · 정등각을 항상 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저 모든 여래에게서 이 보살의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 해탈'을 듣고, 받아 지니고 닦아 행하여 항상 잊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겁에 나시었던 여러 여래께서 처음 보살로부터 법이 다할 때까지 하시던 모든 일을 내가 깨끗한 장엄 해탈의 힘으로 모두 기억하여 분명히 앞에 나타나며, 지니고 따라 행하여 잠깐도 게으르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천주광녀가 설하고 있는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법문은 기억(憶念)에 의해 여래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법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이 법문을 얻은 것은 무수한 겁 동안 모두 부처님 여래를 공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의 경계란 과연 어떠한 경계일까.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밝은 지혜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녀가 깨끗한 마음에 비추어 내어서 기억하는 것은 무량 무수한 부처님 여래의 경계이다. 부처님의 훌륭한 경계를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하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선재동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무수한 세상에서 모두 부처님들이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자비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시던 모든 일들을 아무런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경문에서 '깨끗한 생각의 장엄해탈을 성취함으로써 과거 일체의 보살의 행을 기억해서 잊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불보살의 공덕의 능력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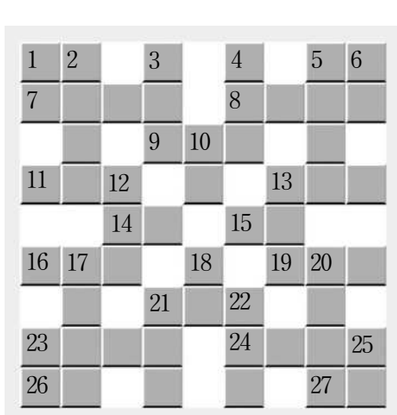
망념(妄念)이 없는 정념(正念)의 지혜는 걸림이 없는 지혜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일을 일념(一念) 속에 분명히 파악하여 들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주광녀가 "부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내가 깨끗한 장엄해탈의 힘으로 모두 기억하여 분명히 앞에 나타나게 하여 지니고 따라 행하며 잠깐도 게으르거나 중단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념(正念)에 의해서 자재하게 여래를 출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정념천왕(正念天王)의 딸의 이름이 천주광(天主光)으로서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해탈'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이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하시던 것을 지금 현재 이곳에서 분명하게 기억하여 잊지 않음으로 해서, 순간순간 천지에 가득히 부처님의 경계를 꽃피우는 커다란 장엄의 세계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주장자 따라…' buddhanews.com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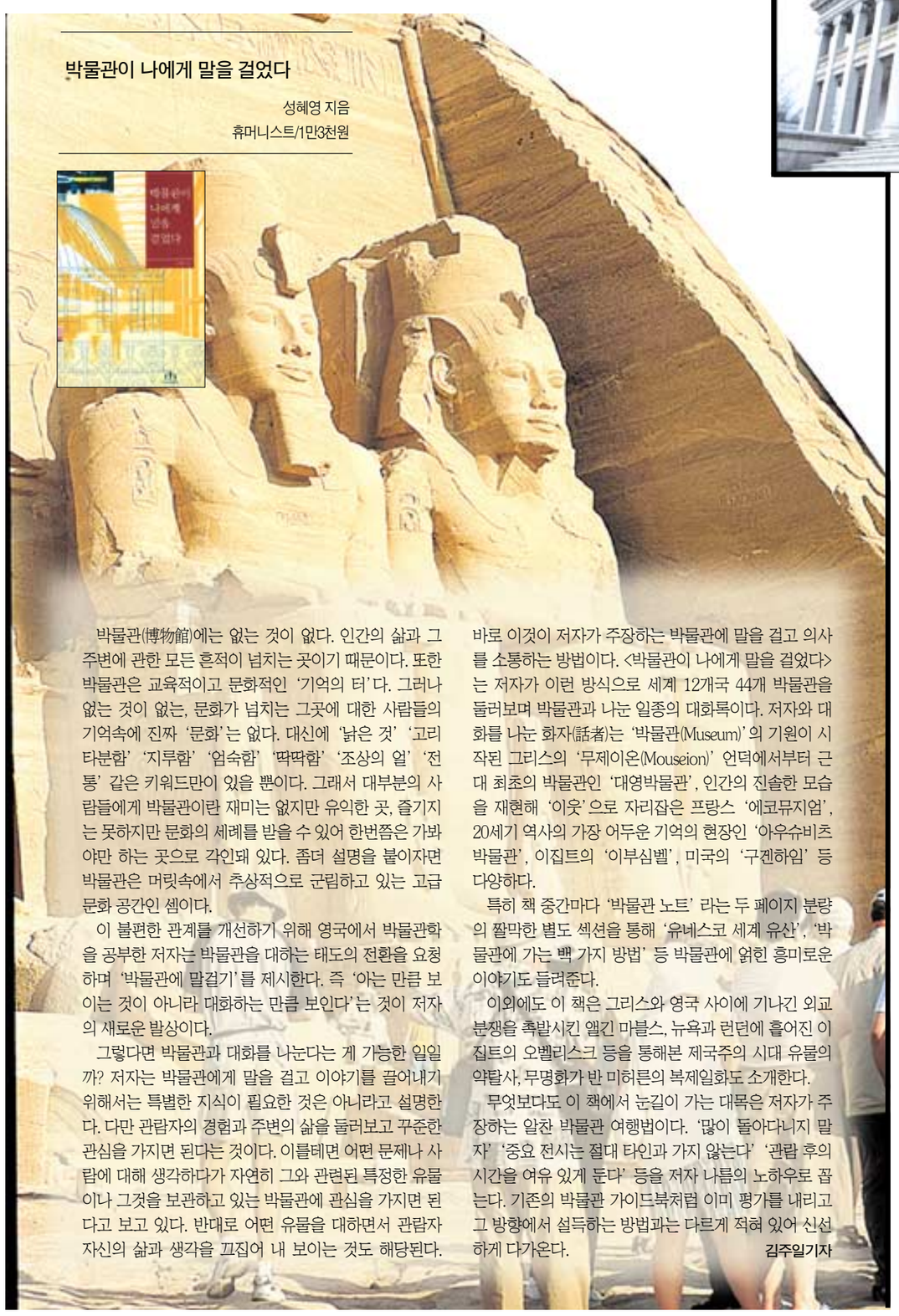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많이 내린 눈 5. 원줄기에서 갈라져 뻗은 줄기 7. 싯다르타가 동서남북 성문을 나와 생사병로를 체험 출가를 결심한 일 8.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9. 적으로 여기는 마음 11.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 내는 사람'을 비유한 말 13.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법 14. 두 가랑이가 진 한복의 아랫도리 겉옷 15. 가지고 있음 16.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19. 화장품을 넣어두고 화장을 하는 가구 21.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곳 23. 술 마신 운전자를 단속하는 행위 24. 사회 여러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기관이나 조직, 체제 26. 남을 해치려는 마음 27. 가구 등에 발라 윤나게 하는 투명한 칠.

세로 1. 자주 중요하고 큰 일 2. 어떤 사항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 3.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것 4.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5. '더하기 · 빼기 · 곱하기 · 나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6. 본사에서 갈라져 나가 일정 지역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업체 10. 어른 13. 국가 소유로 함 17.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향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는 주의 18. 물고기의 잔뼈 20. 시장에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바구니 21. 법률 · 규칙 · 조약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구속하는 효력 22. 몸의 표면이 나사 모양으로 홈이 진 못 23.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주로 악음(樂音)을 소재로 하여 나타내는 예술 25. 거대한 식인 백상어와 인간들 간의 목숨을 건 대결을 그린 영화.

박물관에게 말을 걸어봐!

12개국 44개 박물관과 나눈 대화록



박물관(博物館)에는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삶과 그 주변에 관한 모든 흔적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물관은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기억의 터'다. 그러나 없는 것이 없는, 문화가 넘치는 그곳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속에 진짜 '문화'는 없다. 대신에 '낡은 것' '고리타분함' '지루함' '엄숙함' '딱딱함' '조상의 얼' '전통' 같은 키워드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박물관이란 재미는 없지만 유익한 곳, 즐기지는 못하지만 문화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한번쯤은 가봐야만 하는 곳으로 각인돼 있다. 좀더 설명을 붙이자면 박물관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고급 문화 공간인 셈이다.

이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에서 박물관학을 공부한 저자는 박물관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을 요청하며 '박물관에 말걸기'를 제시한다. 즉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새로운 발상이다.

그렇다면 박물관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저자는 박물관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관람자의 경험과 주변의 삶을 둘러보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문제나 사람에 대해 생각하다가 자연히 그와 관련된 특정한 유물이나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어떤 유물을 대하면서 관람자 자신의 삶과 생각을 끄집어 내 보이는 것도 해당된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박물관에 말을 걸고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이다. <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저자가 이런 방식으로 세계 12개국 44개 박물관을 둘러보며 박물관과 나눈 일종의 대화록이다. 저자와 대화를 나눈 화자(話者)는 '박물관(Museum)'의 기원이 시작된 그리스의 '무제이온(Mouseion)' 언덕에서부터 근대 최초의 박물관인 '대영박물관',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재현해 '이웃'으로 자리잡은 프랑스 '에코뮤지엄', 20세기 역사의 가장 어두운 기억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박물관', 이집트의 '이부심벨', 미국의 '구겐하임' 등 다양하다.

특히 책 중간마다 '박물관 노트' 라는 두 페이지 분량의 짤막한 별도 섹션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 유산', '박물관에 가는 백 가지 방법' 등 박물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외에도 이 책은 그리스와 영국 사이에 기나긴 외교분쟁을 촉발시킨 엘긴 마블스, 뉴욕과 런던에 흩어진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등을 통해본 제국주의 시대 유물의 약탈사, 무명화가 반 미허른의 복제일화도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저자가 주장하는 알찬 박물관 여행법이다. '많이 돌아다니지 말자' '중요 전시는 절대 타인과 가지 않는다' '관람 후의 시간을 여유 있게 둔다' 등을 저자 나름의 노하우로 꼽는다. 기존의 박물관 가이드북처럼 이미 평가를 내리고 그 방향에서 설득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적혀 있어 신선하게 다가온다.

김주일기자



저자 인터뷰 | 성 혜 영 씨

"자주 가서 자기 방식대로 보세요"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며 본격적인 박물관 연구를 시작한 저자 성혜영씨는 영국 런던의 시티대학교 예술경영 대학원에서도 박물관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박물관 큐레이터를 하기도 했던 그가 이번 책 속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털어 놓았다.

△유물 자체에 대한 감상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너머의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유물 자체에 대한 감상과 이해만으로는 총체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담고 있는 삶의 흔적은 지나간 수많은 것 중 극히 일부이고, 그 가운데 다시 선택된 유물을 통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진실은 더욱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유물에 얽힌 의미와 제작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을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면?

"박물관이 제시하는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학문적 목적이 아닌 이상, '내 식대로의 탐색'에 장애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박물관에는 반드시 유물이나 전시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박물관의 정원이 마음에 들거나, 아늑한 분위기가 위안이 된다든지, 혹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등 어떤 이유에서 든지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덩달아 가까워 지듯이 자주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 있는 박물관들의 변화상에 비춰볼때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여전히 지난날에 멈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박물관도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박물관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문화교육 및 문화산업의 발전까지도 도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박물관의 본분은 망각되고, 이제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허상만 남은 것이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방통행식의 체계에서 과감히 벗어나 '작은 유물'을 통해서도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박물관의 행정체계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현대음악 사조와 구조분석
김규현,백기풍,임주섭 공저
작은우리/1만7천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처럼 컴퓨터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어 내는 학과가 많이 생겨났다. 이런 현상이 생겨난 데에는 컴퓨터와 디지털 음향학 그리고 뮤직 테크놀러지의 발전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손쉽게 쓰는 음악 프로그램(MIDI, 디지털 레코딩, 시퀀싱 프로그램 등)은 모두 현대 음악가들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는 시도에 의해 그 시초가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에서 더욱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현대음악 사조와 구조분석>은 그러한 의미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20세기의 음악에 대한 종합정리를 주요 사조(思潮)와 양식(Style) 그리고 작곡기법 등으로 분석해 설명한 책이다. 대중음악을 분석해 놓은 것에 비해 근·현대음악을 정리한 책은 숫자가 훨씬 적은데, 이 책은 작품분석을 위해 악보까지 제시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음악사적인 작품양식들을 설명했다.

현대음악 두배로 즐기기

악보 제시하며 작품양식·뿌리와 역사 설명

이 책에서는 20세기의 음악을 크게 근대음악 (Modem Music)과 현대음악 (Contemporary Music)으로 나누었다. 근대음악은 드뷔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상주의와 쇤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제 2 비엔나 악파의 표현주의 음악이다. 또 현대음악은 쉐페르의 구체음악과 슈톡하우젠의 전자음악, 그리고 존 케이지의 우연성음악 등을 통해 이 음악들이 오늘날의 컴퓨터 음악과 어떠한 맥을 통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오리엔탈리즘, 미니멀리즘, 신낭만주의 음악 등 다양한 현대음악의 작곡기법과 경향을 논하고 있다. 여기서 오리엔탈리즘이란 20세기 초부터 서양음악가들이 동양적인 음계나 리듬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을 작품 소재로 도입한 사조를 일컫는다. 미니멀리즘은 반복적인 선율패턴 중에 들려오는 부차적인 선율이나 불규칙성, 배음 차이가 생긴 예측 못한 음 등으로 구성되는 테마를 지니고 있다. 음악체험의 중요 부분은 청중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서 청중 자신이 지각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음악이 활동하는 장소는 밖에서 고찰하는 객관성과 안쪽에서 체험하는 주관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미니멀 음악이 차차 쇠하면서 이후로 미니멀리즘은 '반복의 원리'로서의 영향만 남게 된다. 이후 과거의 다양한 양식을 혼합해 다시 새로운 양식을 산출하는 미술에서의 '꼴라쥬'와 같은 성향을 띈 신낭만주의 양식 음악에 리듬반복과 모티브 반복 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현재 우리가 쉽게 듣는 트랜스, 테크노, 레이브와 같은 전자 음악들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리듬과 모티브도 미니멀리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간 음악사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현재 즐기는 음악들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 새로운 면을 알게 되는 재미를 맛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은영(소닉 아트컬쳐 대표)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원광식

● 문의처 032-772-5451
02-733-6141

●제 품 명 : 가릉빈가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엠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품기능 : 출력(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엠프 기능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있습니다.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종제작업체 : 성종사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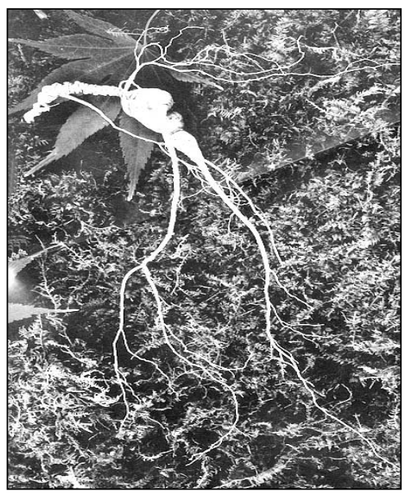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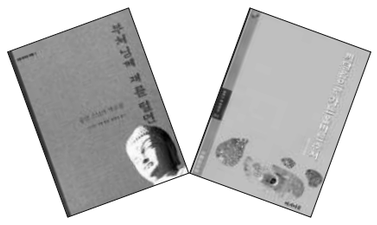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출판가 소식

여시아문 도서 2권, 대학 교재로



불교전문 출판사 여시아문이 출간한 <부처님께 재를 털면>과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가 각각 서강대와 동국대의 교양강좌 교재로 사용된다.

이번 학기부터 서강대 종교학과 개설 전공과목인 '참선과 삶'의 강의를 맡게 된 현각 스님은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부처님께 재를 털면>(스티븐 미첼 엮음, 최윤정 옮김)을 교재로 채택했다. 이 책은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에 앞장 서 온 스님이 미국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와 법문, 편지 등 100여 편을 묶은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강의하는 김성철 교수는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초펠 스님 편역)를 4년째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티베트 출신의 초펠 스님이 티베트 불교의 대표종단인 겔룩파의 성전인 <보리도차제론>을 번역한 이 책은 <보리도차제론>의 유래와 가르침을 듣는 방법, 올바른 수행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작은 책 안에 불교의 방대한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교재로 선택하게 됐다"고 말한다.

獨 국제도서전에 소개할 '한국의 책 100'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 · 별기' 등 불서 5권 선정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선정된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 · 별기>(은정희 역주, 영어), <지눌의 선사상>(길희성 지음, 독어), <선가귀감>(법정 스님 옮김, 영어), <한국선시>(김달진 엮음, 영어), <Korean Buddhism: Tradition and Transformation>(심재룡 지음, 독어) 등이 소개된다.(괄호 안은 지은이, 번역 언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강숙) 산하 선정위원회(위원장 황지우)는 3월 8일 위의 불서 5권을 포함, 도서전에 번역 · 소개할 '한국의 책 100'을 선정했다.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한국문학번역원 추천도서, 출판사 신청도서 등 3천500여 종의 도서 가운데서 100권을 가려 뽑은 것이다.

이들 도서는 각각 영어(46종), 독어(23종), 불어(10종), 일어(8종), 스페인어(7종), 중국어(6종)로 번역되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특집 부스에 전시될 예정이다.

禪수행서 한자리에 모았다

여시아문 전문코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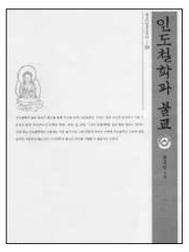
최근 불고 있는 수행열풍에 발맞춰 수행관련 서적 출간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은 수행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다양한 서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선수행서 전문코너'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백일법문>, <불교수행법강의>, <화두참선> 등의 개론서에서부터 <선의 역사와 사상>, <선의 세계>, <간화선>, <묵조선 연구> 등의 전문 서적 50여 종을 선별해 전시하고 있다.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법문을 하는 고우 스님과 무여 스님, 혜국 스님, 현웅 스님 등 12명의 스님들이 직접 쓴 책과 법문 녹음테이프 등도 구할 수 있다.(02)737-0695

떼려야 뗄 수 없는 고대인도와 불교

인도철학과 불교

권오민 지음
민족사 / 1만3천원



동일한 사유구조 등 사상사적 기반 살펴

경상대 권오민 교수는 <인도철학과 불교>에서 인도철학과 불교의 관계와 그 흐름을 조명하고 있다. 대학에서 '인도철학과 불교'를 강의하고 있는 지은이는 "지금까지는 기존에 발간된 책을 교재로 사용하다보니 어느 해에는 인도철학을, 어느 해는 불교를 중심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론서들 대부분이 역사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불교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기술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불교는 단일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전개된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은이는 '인도'라는 동일한 풍토와 사유구조 속에서 발생한 인도철학과 불교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책을 시작한다. 먼저 정치적 격변과 지리적, 인종적, 언어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인도철학의 일반적 특성을 살핀다. 이어 '인도의 전통철학'에서는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 그리고 인도의 반(反)전통철학인 차르바카의 유물론, 자이나교의 고행 등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인도의 불교철학'은 초기불교의 가르침부터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의 성립배경과 그 사상, 중관학파의 기원과 사상 유식, 여래장 사상의 기원과 발전과정 등을 짚어보면서 보는 순서로 구성된다.

<인도철학과 불교>가 불교의 사상사적 기반과 그 흐름을 살폈다면 <고대인도사회와 초기불교>는 고대 인도의 시대적 상황을 살피고 있다.

델리대학 미란다 하우스 교수인 우마 차크라바르티는 불교가 생겨나고 발전해 온 당시 사회 속에서의 의미를 파악한다. 지은이는 "초기불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붓다의 가르침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의 산물로서의 불교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인도사회와 초기불교

우마 차크라바르티 지음 / 박제선 옮김
민족사 / 1만5천원



정치 · 경제 · 종교 등 당시 사회상 고찰

책에서는 부처님이 살았던 B.C. 6세기 인도의 정치 · 경제 · 사회 · 종교적 환경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탄생하고 자리매김했는지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영역의 확대, 정치적인 통합, 새로운 사회 · 경제적 계급의 대두로 특징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사상을 일으켜 세우고자 한 부처님의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사회 경제적 주요 계층으로 대두된 '거사(gahapati)'의 뜻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성장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다보탑><안압지>**(대구MBC, 이른아침)=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는 천년 고찰 불국사가 있고, 그곳에 다보탑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다보탑을 보고 그 안에 담긴 뜻과 아름다움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제작 방영된 대구MBC 창사 40주년 기념 특별 다큐멘터리 '다보탑'을 책으로 묶은 <다보탑, 부처의 자비와 신라 장인의 숨결>은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형을 찾기 어려운 다보탑이 언제,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으며 탑에 담긴 미학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창사 39주년 기념 특별 다큐멘터리 '우리조경'도 책으로 펴냈다.

■ **<남북의 단청>**(민족공동체추진본부 엮음, 비매품)=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한 '북한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불사 협력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소개한 <남북의 단청>이 발간됐다. 책에는 그동안 추진된 단청불사 협력사업 실사보고서와 학술토론회 원고, 북한사찰의 단청현황 등이 사진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 (02)720-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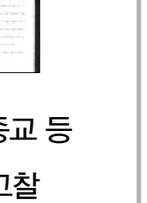
■ **<유심 2004년 봄호>**(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엮음, 7천원)= 이번 호에서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인 효림 스님의 대담과 시인 최동호, 김영재 씨의 시세계를 조명하는 특집, '제2회 유심작품상' 수상자인 정끝별, 고정국, 방민호 씨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화두참선

이계묵 역해
우리출판사 / 1만3천원

참선 이렇게 하라



"수마(졸음)가 올 때는 마땅히 이것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깨닫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화두를 한두 번 소리 내어 들어라."

10여 년 가까이 출가수행을 하다 환속한 후 수행과 집필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이계묵 씨가 수행 지침서 <화두참선>을 펴냈다. 이 책은 선어록에 담긴 가르침을 가려 뽑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참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좌선할 때는 마음가짐', '화두는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다', '선정 중에도 화두는 놓지 마라' 등 실제 참선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책에는 좌선할 때의 자세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역대 선사들의 수행일화를 모은 <선의 뜰에서 거닐다>를 펴내기도 한 지은이는 "지혜는 마음을 닦는데서 나오며, 마음을 닦는 법은 참선 밖에 없다.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자아 성찰을 해야 한다"며 "자기 내면의 마음을 관조하다보면 참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2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3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4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김영사
5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6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7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8	운명을 뛰어 넘는 길	김지수	불광
9	대승입능가경 외	동국역경원 편집부	동국역경원
10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생명의 빛 신등의 비밀공개
-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어 세포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파괴된 염증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미량원소 조절의 신비에 있다.)

※ TDP에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분은 우송해드립니다.

미국 FDA검증(No.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허 01-506호)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장기간 와병 생활로 등창 욕창이 심하신분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소화가 잘안되고 깊은 잠을 못자는 분
◆고질적인 치질 · 치루 ·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재증상)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전립선 기능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이 많으신분

유고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벨기에 부뤼셀 만국방람회 은상 수상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의 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한국 95년도 보건복지부 인정 독점수입
◆한국 각 종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건강백세 (특정 TDP치료기) 상담전화 02)457-2831~2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화됩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 초급 · 중급 · 상급 · 고급 각 3개월 과정
● 명상 · 사범과정 각 1년
● 지도 : 보덕현호선사
● 수강료 : 3만원(월1만원)
● 개 강 : 4월 7일(水) 오후 4시
● 접 수 : 마포문화원 문화학교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0-2
● 전 화 : 02)312-1100
● 위 치 : 아현고가도로 마포쪽
아현중학 앞 지하보도 內

법안명상기공회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매장묘 및 납골묘 설치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 031-775-0114



경면주사 100% 혜월법사의 생필(100점 한정)
신비의 부적 팔만대장경 부적을 아십니까?

팔만대장경 부적은 고탑에서 출토되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신비하고 영험스러움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영가에 시달리는 가정 입시생 사업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고 **혜월법사가 260자 한 자 한자 기도하며 경면주사로 사경**하고 달마도를 넣어 그 기를 충만케 하고 특히 **화엄경 80권을 천일기도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 경면주사로 사경중**이며 각종 병풍 진언달마도등 불자들이 소장하고픈 많은 작품이 있어 답답하고 고민 많으신 분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보세요!



www.ajeaje.co.kr
전화 055)648-5093
H.P 011-231-5094
주문신청:
농협
823031-52-042561
예금주 : 김수영

▮작품크기 : 가로 50cm
세로 120cm

사경 기도 도량 팔만대장경 마을 건립 불사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01-5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김갑숙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온다 〈상〉



그림 · 김흥인

갑작스런 '가게 비워라' 통보…"부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부처님께 다가가고서 마음의 무명을 밝히기 위한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천수경 독경과 108배, 관음정근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아침. 나는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으로 생활해 왔으며 항상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주인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가게를 비워달라는 말을 듣게된 것이다. 12년 동안 아무 불편없이,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우리 부부는 개미처럼 열심히 뛰었었다.

그런데 계약만기를 한달 반 남겨 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유도 없이 비워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날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그냥 무덤덤하기만 했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은가. 남편과 나는 막연히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괜히 불안했다. 불안함 더욱더 증폭됐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도를 올렸다. 머리 속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 속에 가게 생각을 가득 채운 채 기도를 드렸다.

두 눈을 감고 부처님께 '부처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을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게를 하루빨리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두 눈을 감고 있는데 생각이 쭉 한 골목에서부터 넘어가다가 현재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가게에 가서 멈추었다.

점포를 비워놓은 지도 몰랐는데 왜 생각이 그곳에 가서 멈추게 된 것일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주인에게 물어봤다. 혹시 가게 내어놓았느냐고…. 그는 그렇다며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다. 어제 복덕방에 내 놓아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순간 환희로움인지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가슴이 뛰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그 가게를 얻겠노라고 했다. 두말도 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다. 우린 구두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쉽게 가게를 얻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었다. 남편도 몰랐다. 남편한테 계약서를 쓰고 오라고 하니 내어놓은지도 모르는 가게를 어떻게 얻게 됐냐며 의아해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부리나케 계약서를 쓰고 와서는, 내 두손을 꼭 잡으며 '당신 때문에 산다'며 고마워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비록 하루였지만 그의 걱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한다. 내가 불자가 아니었더라면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더 열심히 기도정진하며 신실하게 생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주위 모든 이들께서 우리가 가게를 이사하던 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열심히 살고 악하게 살지 않으니 이렇게 가게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일 또한 어렵지 않게 풀린다며 진정으로 축하해 주셨다. 너무나 잘 되었다고….

우리 부부도 고마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생활하자며 다짐하고 약속했다. 그리고 불자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가슴 속 깊이 맹세했다. 그 동안 '나'만 알고 욕심으로 가득찼던 내 마음에 변화가 온 것인지, 나는 비로소 주위를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까이 사시는 동네 노인정에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이자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남편 역시 그런 생각을 했다며 어떻게 둘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며 좋아했다.

우리 부부는 마음을 내어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들께 대접을 해 드렸다.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다.

조그마한 마음으로 낸 행복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다. 이제 나만 챙기고 생활하기보다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자고 다짐했다.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니 몇 푼 돈이 아깝기는커녕 깊은 뿌듯함으로 마음이 충만해졌다.

전에는 나눠줄 줄도 모르고 꽉꽉 채우려고만 했었다. 그런데 스님들께서는 항상 비우라 하신다.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 항상 비우라,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채워진 그릇은 채울 수 없고 채우려 하다보면 넘치게 되지만, 비우면 다시 깨끗한 새것으로 채울 수 있다며 항상 비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비우려 노력하다 보니 주위를 돌아보게 됐고 작은 실천으로 가슴뿌듯한 행복을 얻게 됐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김철규
드림위즈 솔루션개발팀장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느낌은 사라졌다. 그대신 한가지 의문이 남았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커피를 마시는 느낌을 온갖 상카라(SanKhara: 맹목적인 반응)가 대신했다는 것.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희석되어 가면서, 글쓰는 동안 머리 속의 생각들을 옮겨 적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프로그래머이지만 말을 많이 하는 개발자이다. 그래서 늘 회의가 많다. 그 회의 중에서도 중역회의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 회의 중에 나를 마음챙김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미얀마의 우조띠까 스님의 글 중 "말을 할 때 가장 마음을 챙기기 힘들지만 그때 마음챙김 해야 한다. 사띠(sati: 마음챙김)를 챙기기 어려울 때가 가장 사띠하기 좋은 순간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회의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처방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맡김(방하착)'이었다.

지난해 7월 휴가 때의 일이다.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마음챙김' 위빠사나 명상은 자기 성찰의 기회

아눌라 스님을 만나기 전에 법문을 담은 책들에 이끌려 여러 책을 찾고 있을 때, 우연히 휴가지에서 발견한 책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Power Of Now)>, 이 책은 휴가동안 머리 속의 많은 개념들을 흔들어 놓았다. 저자가 말한 '지금'에 눈물나도록 집중해 보기도 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현존(Being)'과 '에너지장' 그리고 '내맡김'은 핵심 키워드이다. 사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설명은 위빠사나 수행서와 다름 없었다. 나는 이 책을 이 잡듯이 읽고 있다. 류시화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한 문장에 열흘은 명상해야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렇게 열흘씩 명상 전에 숙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내가 찾는 그 무엇이란 사띠를 통한 알아차림의 느낌이다. 깨어 있는 동안은 사띠를 통해서 더욱 더 명료하게 깨어 날 수 있는 길을 알았고, 조용히 명상하는 동안은 일어남과 사라짐을 더 명료하게 보고, 집중해야할 대상인 그 무엇도 아닌 그것을 쳐다본다는 것. 매순간 사띠하고 있으면서 또 알아차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눈을 뜨고 걷더라도 삼라만상의 변화를 모두 볼 수 있어야 현존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수행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지 않는 동안, 잠을 자지 않는 동안은 대부분 수행이 아무리 깊어도 점점 녹아져 수행 과정에 쌓았던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 느낌만이 남는다. 그래서 더욱더 갈증을 느낀다.

바로 그 순간이다. 가장 마음챙김하기 어려운 순간이 그 순간이다. 무명의 시간은 곧 알아차림으로 나아간다. 지친 정신은 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혼란이 밀려오고 갈증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때는 혼란과 갈증이 상쾌한 에너지로 바뀐다. 그런 혼란도 개념일 뿐이며 내 몸과 마음만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순수한 에너지 자체인 참된 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 몸을 언제나 그랬듯이 지켜보고 있다.

급하고 밀어 붙이는 스타일인 나의 성격상 위빠사나 명상과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만남이었는지도 모른다. 살아온 날들이 세상과 치열한 투쟁이다 보니, 자가치료가 늘 필요했던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사고를 내고 자신을 합리화 하거나, 도덕적 결함에 자신을 몸서리 치면서 이겨보려는 것과, 그러면서 본능적인 돈에 대한 애착에 대한 성찰의 기회였던 셈이다.

제19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무료수강생 모집

강 좌 명	과 정	강 의 일 시
수지침	초급	매주 토 10:00 ~ 12:00 2004. 3. 27 개강
수지침	중급	매주 토 09:30 ~ 11:30 2004. 3. 27 개강
원왕생	초급	매주 목 14:00 ~ 16:00 2004. 4. 1 개강
불교호스피스	초급	매주 목 10:00 ~ 12:00 2004. 4. 1 개강
환 경	초급	매주 화 14:00 ~ 16:00 2004. 3. 30 개강
합 창		매주 목 14:30 ~ 16:30 2004. 4. 1 개강

▶ 교육일시 : 2004년 3월 27일 ~ 6월 19일(주1회, 3개월간)

▶ 교육비 무료 ▶ 수료후 상담을 통해 희망 봉사영역 배치
▶ 봉사활동 인증제(보건복지부)실시로 각종 혜택부여
▶ 봉사 횟수 · 시간에 따라 상해보험가입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3월 1일 ~ 3월 31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본회중앙사무국 (☎ 02-723-6258~9 / FAX 723-6257)
■ E-Mail : buvolcen@chol.com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불교자원봉사연합회
Buddhist Volunteer Association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58-1 청양빌딩[시사저널] 9층
☎ 02)723-6258~9

제6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6th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을 확립하기 위해 '진각논문대상'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주 제 : 불교일반 (불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진각종 교학 (진각종학과 회당사상 관련)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소정양식: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접수마감 - 2004년 4월 22일(목)
당선작 발표 - 5월 21일 발표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11월 23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3편 · 밀교분야 3편, 진각종 교학 2편, 각 200만원

진각논문대상과 아울러 불교 및 밀교 관련 대학원생(석 · 박사과정)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모임**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소모임 : 종단 외부 2팀(월 30만원), 종단 내부 2팀(월 20만원) 1년간 지원 예정
▶ 지원자격 : 대학원생 5 ~ 6명 이상
▶ 전형방법 : 연구소모임 지원 신청서 1부 (소정양식: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접수마감 - 4월 22일, 발표 5월 21일
▶ 접 수 처 : 우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 jingak. or. kr
e-mail : kimchion@hanmail.net
전화 (02) 913-0133, 0134 / 전송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최 :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 불교의식반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교육기간 : 속성 3개월 교육 (제17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개강일시 : 4월 1일 (목) 오후 6시 (목탁, 필기구 지참)

● 바라작법반
6개월 특별과정으로 49재 · 천도재 등 법회시 필요한 사물과 바라 작법의식을 지도합니다.

• 교육내용 :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도량게 · 복청게 · 다게작법(나비춤) 등
사물 : 북, 태징 등 사물 교육
• 개강일시 : 4월 6일 (화) 오후 3시,

문의 전화 02)720-1836 733-1959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④

주제 : 마음은 무엇인가



■ 함주 스님 1941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한 함주(含周)스님은 1960년 대구 동화사에서 입산 출가해, 70년 수덕사에서 일타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고 백양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은사는 금오 스님. 현재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를 맡아 간화선풍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수행지침서' 발간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요령껏…쉽게…' 이것이 病

지상 백고좌

함주 스님 (법주사 총지선원장)

마음은 무한한 힘입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입니다. 마음이 착하면 착한 사람이라 하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생의 마음을 가지면 축생이 되고, 미물과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덕스럽고 인자하면 덕인이라 하고, 성현의 마음이면 성현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이 됩니다.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생에서부터 저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또 인간부터 성현, 부처님까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세계는 다 틀립니다. 인간은 인간의 업연에서 이 세상을 보고, 또 삶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각자의 업연을 따라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성현의 경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능력은 무한해서 생각하면 느끼고, 축생의 마음이면 축생의 행이 이루어집니다. 행이 이뤄지면, 자연히 습관이 되고 업연이 돼 그 이상을 못 보게 됩니다. 성현의 마음을 가지면 성현의 행위를 해야 해요. 안하면 안 됩니다.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력을 갖고 하면 자연히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무한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런 집의 어머니, 할머니는 밖에 나가서 군인을 보면 전부 다 아들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음에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밖에서 새가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새소리를 슬프게 들어, '참으로 새소리가 슬프게도 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게 노래를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스런 소리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감정에 의해 그 새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새소리를 참으로 바르게 알아듣는 것은 뭘까요? 새가 슬프거나 기쁘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 슬픈 감정,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감정을 '딱' 놔버려야 합니다. 편안하게 그 새소리에 임하면, 그 새가 기쁘게 슬프게 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 참 새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제각기 다른 감정에 의해 듣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힘을 가진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잠깐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무시겁래로 잊어버려, 이제는 근본이 뭔지 감도 안 옵니다. 우리 중생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는 무한한 힘과 법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허송세월해왔습니다. 그것도 갖은 고통과 고뇌 속에서 이제까지 삶을 이어왔습니다. 때론 축생도 되고, 때로는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고. 사실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다 자기 마음에 다 있는데요. 때로는 축생도 지옥도 인간세계도 만들지만, 마음이 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 알지요? 일체가 마음으로 조작된 거라는 말입니다.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안 그렇습니다. 허망된 경계에 의지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갖춰진 대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보통 각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하면, 또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무한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고생을 합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자꾸 일을 편하게 하려고 이리 저리 요령을 피우면 오히려 힘이 더 드는 겁니다. 우리 중생의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더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허망한 경계에 치우쳐 구하려고 합니다. 욕심때문입니다. 허망한 경계에서 얻으려는 그것이 바로 병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 인연과 업연, 근기에 따라 공부법이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참선하는 게 쉽습니다. 요즘 간화선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간화선을 해야 딴 데로 안 빠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가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하기 쉽고, 열심히 하면 빨리 성취하니까 간화선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겁니다.

간화선을 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공부)은 최상승인이 아니면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상승인을 우리말로 하면 '대(大)인격인'입니다. 먼저 대 인격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 인격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참선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어려운 겁니다. 수승한 근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진실해야 합니다. 가장 진실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안 됩니다. 그럼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뭐냐? 그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정한 바, 상황에 맞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이가 옳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헛된 욕심과 무리하고 과도한 생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순수해져, 번뇌 망상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과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모든 것을 취해서 자기 알음알이로 알아서 하려하고, 그것이 안 되니 망상 번뇌가 일어나 다 그르치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편해집니다. 그것이 제일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고, 주변에서 칭찬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직관(直觀)이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이 치성해집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면 그것이 업인(業因)이 돼,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이른바 대도(大道)를 공부하는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부처님에게 천 배 만 배 기도를 해봐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공덕이 안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면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어요. 만사가 다 이렇게 이뤄지는 그것이 바로 불성(佛性)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먼저 닦으십시오.

마음이 불편하면 중생의 마음이 동합니다. 오만가지 생각이 툭툭 튀어 나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해 합리적이면 자기 점검이 됩니다. 감히 알지 못한 사람이 좀 알았다고 하면서 해석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도(道)하고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도를 말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런 분을 스승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순수하면 모든 것을 바로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보입니다. 그르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간절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지혜가 열립니다. 선지식도 그렇습니다. 선지식은 형상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의해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 맞게 선지식이 출현합니다. 그 근기에 맞도록 말입니다. 또 어떤 형상을 필요로 하면 형상이 되고, 형상이 아닌 어떤 무형으로써 마음의 공부를 원한다면 선지식이 무형으로 출현합니다.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고 중생의 업을 단

마음 편해야 간절함 생기고 스스로 점검하는 지혜 열립니다

간화선 닦기 전에 진실한 인격 먼저 갖춰야



꽃샘추위에도 불자들이 대웅전 앞마당에 앉아 함주스님의 법문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받아적고 있다.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베푼 것은 남듯이 내가 클 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 문 열 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3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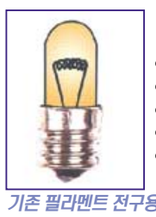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 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 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5566-9098,7550 FAX : 02)2266-7557 E-mail : kibosa@kornet.net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3월7일-조계사 대웅전)

절하겠다는 결심이 있기 위해서는 뼈저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각오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데로 하면 안 됩니다. 수행은 '고행'입니다. 고행이 전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도를 성취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춰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분심(大忿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망된 경계에 치우쳐 자기와 이웃을 망치는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자기를 깨우치고 자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발심(大發心).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먼저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간절한 발심이 생깁니다. 마음의 무한한 능력은 절대적인 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업연에 따라 경계가 나타납니다. 죽음도 각자의 업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어떤 절대 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허망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와 판단, 생각에 근본된 마음을 잊었다는 분한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그런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본래 내 힘을 회복하겠다는 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심이 이뤄지고 자연히 해야겠다는 발심을 하게 됩니다.

또 용맹심이 있어야 합니다. 큰 용맹심을 내서 철저하게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고행은 보통 고행이 아닙니다. 못해서 못 먹어서 생기는 그런 고행이 아닙니다. 첫째 인격이 안 되면 그것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우리 생활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만 잘 실천해도 우리가 선지식을 만날 인연이 생깁니다.

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말씀이 경전에 의해 모두 다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처님은 이미 법상으로 나투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말로써 표현된 것입니다. 말로써 부처님의 경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고 순수하면, 또 인격이 갖춰져 마음이 편안해져 부처님의 경전에 입하면, 부처님의 마음으로 감화되고 동화됩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진실한 마음에 순수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번 법회가 불자님들이 참으로 공부할 수 있는 큰 인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들이 스님의 법문에 열중하고 있다.

'처음 생각' 없애야 번뇌·망상 사라져

'묻고 답하기' 현장

▲살면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수행을 통해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두가 잘 안 들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을 덜 하세요. 한마디로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방법은 '처음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 한 단계 두 단계로 계속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처음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버려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에는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감정이 결부되면 더 복잡해져요.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인 사고에 생각을 덜어 내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두는 어떻게 해야 잘 드는건지요?

"화두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만 잘 챙기면 됩니다. 일체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두는 의심입니다.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스스로 간절해 질 수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자 화두를, 어떤 사람은 '이뭣꼬'를 듭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간절한 의심이 일어나는 화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두를 간절히 들 뿐 이 다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경계를 찾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것화 하려면, 간절히 화두를 찾아 '몽중일여(夢中一如)'가 되어야 합니다. 톨톨 뭉쳐 그 근본이 확 드러나기 이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화두를 깨친다는 것은, 잠자다 꿈속에서 꿈을 깨는 것입니다. 꿈을 깨지도 못한 사람이 꿈을 이야기는 하는 것은 꿈 이야기 일뿐입니다. 꿈도 못 깬 사람이 꿈밖의 이야기를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행인으로서 열심히 화두를 챙겨 그 근본이 확 드러나기 전에는 열심히 정진을 해야 합니다."

▲독경이나 염불할 때 화두는 어떻게 듭니까?

"독경하면서 화두를 들면 '독경선', 염불을 하면서 화두를 들면 '염불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 길이 있습니다. 참선하는 길도 있고 염불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염불은 관법에 의해 부처님을 지극히 생각합니다. 요즘 불자님들이 그 길에 대해 분명치 못합니다. 화두를 간절히 들어 의정(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염불도 간절히 부처님의 길을 생각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부처님과 내 밖에 부처님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불인지 간경인지 참선인지 뭔지 잘 모르고 다 하나라고 말하면, 부처님이 왜 팔만사천 법문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빨리 성취하고 편안하게 선택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다 똑 같은 길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화선이 제일 공부하기 쉽고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0년만의 폭설…스님모시기 '비상'

취재 후기 갑작스런 폭설로 '함주스님 서울 모시기' 비상이 걸렸다. 특히 충청권에는 60㎝가 넘는 눈이 내려 고속도로를 비롯 길이 끊어져 법주사 총지선원에 계신 함주 스님 모시기 특급작전이 벌어졌다. 조계사 신도국장 선응 스님은 전날인 6일 아침 제설 기구를 4륜 구동차에 싣고 속리산 법주사로 달려갔다. 선원에서를 제외하고 대중법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함주 스님은 "평생 주지 소임과 어른 노릇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서게 됐네. 불자들에게 유익한 법문이 되어야 할 텐데…."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

"법문, 테이프로 다시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1>



붓다가 처방한 다이어트 비법

비만 원인, 과식·잠·자만·게으름·생각없음
식사량 줄이고 마음 쓰면 식탐의 고통 감소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 일의 능률이 향상되기도 한다. 기분전환으로 외식을 하는 것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반대로 맛 없는 음식을 먹거나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기분만 상하게 된다.

대체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문제는 과식에 있다. 특히 요즈음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과식은 비만을 불러일으키고 질병을 불러온다.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움직이는 동작도 불편하다. 비만 치료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고 한다.

매일 신문, 잡지, 홈 쇼핑 등에선 각종 새로운 다이어트 제품이 수시로 광고되고 있다. 다이어트하다가 목숨을 잃는 여성도 있다고 하니 정말이지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결국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데, 붓다 당시에도 과식으로 인한 비만에 고생한 사람에 관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법구비유경의 애신품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다.

파세나디 왕은 교만하여 정욕을 마음껏 누렸고, 눈은 색깔에 현혹되고, 귀는 소리에 혼란해지며, 코는 냄새에 집착하고, 혀는 다섯 가지 맛을 한껏 즐기며, 몸은 마음껏 촉감을 향락하였다. 특히 왕은 먹고 먹어도 전혀 만족할 줄 몰랐고 분량은 갈수록 늘어났다. 그래서 몸은 자꾸 살찌고 불어나 수레를 타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다. 심지어 숨이 가빠 숨이 끊어졌다가 한참만에 다시 깨어나기도 하였다.

어느날 왕은 명령하여 수레를 장엄하게 꾸며 타고 부처님께 나아가, 시자(侍者)에게 부축된 채 문안드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뵙지 못하였습니다. 여쭈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무슨 죄인지 몸이 저절로 자꾸 살만 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지 못하여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였다.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서 늘 사람을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먹는 것이고, 둘째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는 잘났다고 뽐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는 생각없이 사는 것이며, 다섯째는 일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니 만일 살찌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음식을 줄이고 마음을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붓다는 다시 게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유념해야 하나니, 먹을 때마다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식탐의 고통 점점 적어지리니, 적게 먹고 소화시켜 목숨 보전하라."

왕은 이 게송을 듣고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곧 요리사로 하여금 음식을 내올 때마다 먼저 이 게송을 외운 뒤에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요리사는 음식을 내올 때마다 이 게송을 외웠고, 왕은 이 게송을 듣고 하루에 한 숟갈씩 줄여 차츰차츰 적게 먹게 되었다.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자 몸이 가벼워지며 비대하던 체구도 어느덧 날씬해졌으며 용모도 단정해졌다. 이렇게 살이 빠지자 왕은 매우 기뻐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족 받지 아니하고 혼자 걸어서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예배하였다.

부처님은 왕의 단정한 모습을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무상한 것을 추구하면서, 몸뚱이의 정욕만 기르면서 복 짓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떠나고 몸은 무덤에 남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기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몸뚱이를 기릅니다."

비만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육체의 보존에 필요한 양 이상의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다. 많이 먹는다고 육체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은 아니다. 장수하는 사람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소식이 장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처님도 비만의 원인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과식하면서 마음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써 마음 공부는 하지 않고 먹기만 하니 결국 돼지처럼 몸뚱아리만 살찌우고 마음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을 때 육체는 부패하겠지만 정신은 남으니 어느 쪽을 돌보아야 하겠는가라고 부처님은 묻는다. 물론 답은 배부른 돼지보다 생각하는 갈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육체만 살찌우고 마음은 돌보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며 건강한 육체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음식의 맛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8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함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까바에파고다-짜신사리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4월 22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아 고대왕궁-담불리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4월 20일, 6월 6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잦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 정 : 라서-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사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주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밝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시

돌에 새긴 예술혼

'최규일 전각 · 묵화전' 세종문화회관


최규일 씨의 전각 '법성해인도'

옥돌에 <반야심경>과 '해인도'를 새긴 작품이 선보인다.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신관에서 '돌에 새긴 예술혼'을 주제로 최규일 전각 · 묵화전이 열린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각 5백여점과 수묵화 50여점 등이 나란히 전시된다. 얼핏보면 최 씨의 전각은 깨진 돌에 새겨진 고대 상형문자같은 느낌이 들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특히 금강도(金剛刀)로 돌 위에 한뜸한뜸 파내려간 작품 <반야심경>에서는 장인의 예술혼을 뛰어넘은 수승한 불심(佛心)이 그대로 전해진다. 또 '개구리' '학' 등 동물을 그린 수묵화는 농담(濃淡)과 여백의 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3년만에 관객들을 찾아온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2천여 작품이 넘는 다작 불사를 해온 최씨의 장인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02)914-5500

눈으로 듣는 종소리

'한국의 범종 탁본전' 진주박물관




평창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 사진 위)과 비천상 탁본.

국립진주박물관이 3월 31일까지 '한국의 범종 탁본전-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상원사종 탁본을 비롯한 한국 범종 탁본 30여점과 실물 종 1점, 사찰에서 불구(佛具)로 사용되는 범종, 목어, 법보, 운판 등 총 50여점의 유물이 소개된다. 전시회는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시대의 범종과 범전사물 등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눠 진행되며, 일본에 있는 한국 종 10점도 탁본으로 선보인다.

또 전시실 내부에는 특수음향시설이 설치돼 성덕대왕신종의 타종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탁본체험장에서는 직접 범종 무늬를 탁본해 볼 수 있다. (055)742-5951

예쁜 그림 무료로 …

정현 스님 '날마다 좋은 날' 초대전


정현 스님의 '우담바라' 작품.

누군가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하며 예쁜 그림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좋은 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현 스님(전 용주사 주지)이 3월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홍익빌딩 5층의 한국고미술 상설전시관에서 그 즐거운 그림을 선보인다. 1996년부터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그림을 그려주기를 시작한 정현 스님은 2002년까지 1만 8백장의 그림과 명함크기의 '차걸이 그림' 코팅 40만장을 배포했다. 이번에도 관람객에게 코팅된 그림을 선물한다. (02)732-2240

공연


비공 스님의 무작작위(無作作爲).

'이뭐꼬' 퍼포먼스

'비공 스님 선화전' 분당 삼성프라자

퍼포먼스 작가로 알려진 비공 스님(분당 무심정사 주지)이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분당 삼성 프라자 6층 미술관에서 초청 전시회를 연다. 제목은 '이뭐꼬'다. 비공 스님이 출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화두를 전시 주제로 삼았다. 팔만대장경을 다 뒤져도 그 안에 '화두의 정답'이 없는 것처럼 스님의 그림에도 뚜렷한 메시지가 없다. 다만 수행자가 화두를 깨칠 때 오로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 가듯이 작품 해설은 관객들의 몫이다.

3월 20일 오후 6시에는 비공 스님의 퍼포먼스가 마련된다. (031)754-4661

극장가



내 생애 최고의 데이트(Win a date with Tad Hamilton!) / 코미디 / 95분
개봉예정일: 3월 19일
감독: 로버트 루케틱
출연: 케이트 보스워스, 조쉬더하멜, 토퍼그레이스 등
'금발이 너무해'의 로베트 루케틱이 메가폰을 잡은 로맨틱 코미디. 시골처녀 로잘리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영화배우 태드 해밀턴과 일일 데이트를 하게 된 것. 일일 데이트로 가슴이 벅찬 그녀에게 대스타 태드는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미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본 피터가 있다….



송환 / 다큐멘터리 / 148분
개봉예정일: 3월 19일
감독: 김동원
출연: 조창손, 김선명, 김영식 등
비전향장기수 노인들에 대한 감독의 시선과 주관을 직접 나타낸 '오테르 다큐'. 1992년부터 2000년 9월 북한으로 송환될 때까지 비전향장기수 노인들과 보낸 12년 동안의 이야기가 담긴 필름이다. 2004년 선댄스영화제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했다.



맹부삼천지교 / 코미디
개봉예정일: 3월 26일
감독: 김지영
출연: 조재현, 손창민, 손현주 등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강북에서 전교 1등인 아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빚까지 얻어 강남으로 이사했지만 옆집의 건달이 사사건건 피해를 준다. 아들의 최고 교육환경을 위해 아버지는 결국 사태수습에 나서는데….

'텃밭 가꾸기' 재미있네

서울 외곽 30여 주말농장 3월말까지 회원 모집

주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인근지역 주말농장으로 향해보면 어떨까?

도봉산과 청계산 등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30여곳의 주말농장들이 새봄을 맞아 3월 말까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온 가족이 흙냄새를 맡으며 고추와 상추 싹을 틔우고 자연의 신비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 특히 이번에 개장하는 주말농장들은 재배 농작물에 따라 텃밭 가꾸기, 배나무 기르기, 자연학습장으로 나눠 진행돼 농사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농사짓기에 익숙지 않은 도시민들을 위해 농장주들이 밭갈이와 이랑만들기, 모종준비는 물론 재배방법도 알려준다.

농장은 대부분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한 가지 작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추 · 고추 · 배추 · 시금치 등 가족이 즐겨먹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주말농장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키우는 가족들.

분양가격은 텃밭 가꾸기형은 3~5평에 5만원~9만원선이며, 자연 학습형은 20평에 20만원선, 배나무 임대형은 1그루에 9만원선이다. 농장위치와 특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http://agro.seoul.go.kr) 홈페이지 '텃밭 가꾸기' 코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02)3462-5703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 서울시 주말농장 ●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이름	위치	분양면적(평)	연 락 처
주말농장이름	위치	분양면적(평)	연 락 처	대모산	〃	4	2226-0462
도봉산	도봉구 도봉1동	4	954-0329	자곡	〃	4	3411-2432
청산	〃	4	955-3168	초록텃밭	강동구 하일동	4	794-7270
무수골	〃	4	955-0220	고덕	강동구 고덕동	4	429-6203
정의공주	도봉구 방학4동	3.5	3492-6761	상일	강동구 상일동	3	441-4723
신정	양천구 신정3동	5	815-2125	둔촌1동	강동구 둔촌1동	15	474-1740
삼하사	〃	5	815-2136	형제	강동구 상일동	6	427-4758
대원	서초구 원지동	3	574-4187	초군농원	〃	5	426-0940
청계산마루	〃	3	577-5209	배나무 임대			
청계	〃	4	572-7902	능말	중랑구 신내동	1	432-1304
원지	〃	4	3462-5703	햇님	〃	1	2207-7965
미래농원	〃	5	706-1900	자연 학습장			
옛골	서초구 신원동	3	486-5501	무수골	도봉구 도봉1동	20	955-0220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서초구 방배동	1	587-8997	상일	강동구 상일동	20	441-4723
				홍씨마을	서초구 내곡동	20	572-9309
옥천	강서구 가양동	5	3662-5545	청계	서초구 원지동	20	572-7902
뭇골	강남구 자곡동	4	451-1121				

영어와 불교 함께 배워요

연등국제불교회관 주말강좌

"영어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세요."

연등국제불교회관이 새 봄을 맞아 3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3시 30분 '생동하는 불교'를 주제로 일요 영어불교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브라이언 베리(3월 14일) 조인숙 건축가(21일) 일고 스님(28일) 김희정(4월 4일) 지광 스님(18일) 무진 스님(25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영어불교의 이해를 돕는다.

3월 14일, 첫 강사는 (주)대우의 컨설턴트로 한국에 왔다가 성철 스님의 법어록 등 많은 한국불교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있는 브라이언 베리 씨. 그는 이번 강의를 통해 불교우화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또한 조인숙 씨는 사찰 건축에 나타난 만다라상을, 연등국제선원에서 수행중인 스위스 스님 일고 스님은 마음 이야기를, 김희정 씨는 단청으로 읽는 조화의 세계 등을 영어강의를 통해 이야기한다.

이밖에 한국에서 계를 받은 호주 비구니 스님 지광 스님과 영국의 비구니 스님 무진 스님의 강의도 이어진다. 강의가 끝나면 한국어나 영어로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02)735-5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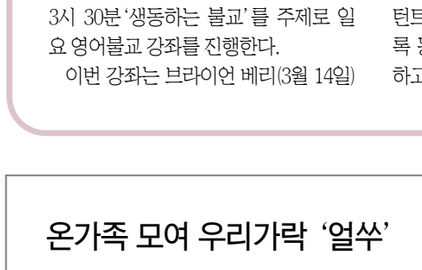
온가족 모여 우리가락 '얼쑤'

국립국악원, 주말국악강좌 신청 접수

국립국악원(www.ncktpa.go.kr)이 다양한 가정생활문화와 건전한 여가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국악문화강좌'를 진행한다.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하는 강좌는 총 8주 과정으로 사물놀이, 가야금, 판소리, 해금, 사물북, 장구와 전래동요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며, 초 · 중 · 고등학생을 비롯한 일반인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주말 국악문화강좌에 참여를 원할 경우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02)585-0154



20면 상식 퍼즐 정답

대	설		비		애		가	지
사	문	유	관		국	정	감	사
	조		적	대	심		승	
불	사	조		인		국	제	법
		바	지		보	유		
애	향	심		가		화	장	대
	락		구	시	나		바	
음	주	단	속		사	회	구	조
악	의		력		못		니	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7:10 아침저널
09:05 차한잔의 선율
11:10 행복스튜디오
14:45 고승열전
19:00 BBS 저녁종합뉴스
21:25 우리들의 찬불가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불교TV <ch 32>

17일 09:1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18일 12:00 향토음식기행
19일 16:05 디지털 동의보감
20일 12:50 충성 성불하십시오
21일 14:00 오늘은 좋은 날
22일 12:50 TV법회
23일 14:25 특별법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행복스튜디오 구효서입니다(3월 19일 11:10~12:00)- 소설가 구효서 씨가 진행하는 주부대상 교양프로그램. 다양한 문화가 소식과 청취자들의 사연으로 꾸며진다. 한의사 조성태 박사가 청취자들의 건강을 전화상담해 주는 순서도 마련된다. (02)705-5555~8

■불교텔레비전: 디지털 동의보감(3월 19일 16:05~16:45)- '당뇨병의 한방치료'. 당뇨병을 한방에서는 '소갈병'이라고 하는데 위나 대장의 열성변화로 소화기 내분비계에 이상으로 인한 체중감소를 뜻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의학점 관점에서 당뇨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살펴본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향로용 유리알



순수유리를 녹여 진원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구슬. 쌀과 모래대신 향로에 담아 향을 꽂으면, 향이 부러지지 않고 일정온도에서 원적외선을 방출해 인체에도 유익한 제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격: 1kg당 1만원, 1kg 5개 세트: 4만 5천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무료꽃꽂이 강습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이 불전공화용 꽃꽂이 강습회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불교문화원 내 청한산방에서 진행한다. 강습회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단 재료비 1회 2만원. (02)245-7048

분다빠라 스님 초청법회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부산동문회가 근본불교학교 지도법사인 분다빠라 스님을 초청, 3월 20일 오후 7시 부산시 소림사 큰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1)255-5675

핸들벨 배워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핸들벨 강좌를 3월 23일부터 복지관 2층 작품실에서 진행한다. 복지관 이용회원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선착순 16명. (02)804-4058

전원생활희망자 농업이론 및 실습교육 서울시 농업기술센터(http://agro.seoul.go.kr)가 노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 희망자 교육을 4월 18일부터 실시, 3월 12일부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전원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농업이론과 농업관련 제도, 텃밭실습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수강료 5만원. (02)3462-5704

함께 해요

차인들과 함께하는 음다회 신라문화원이 경주의 차인들과 함께 차문화 강의를 듣는 음다회를 3월 19일 저녁 7시 신라문화원 강의실에서 진행한다. (054)774-1950

가족 치아건강 교실 대한소아치과학회가 4월 11일까지 매 주말마다 서울 · 경기지역의 주요 할인점에서 '가족 치아건강 교실'을 연다. 이 행사에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소속 전문의들이 참여, 올바른 치아관리법 교육과 어린이에게는 무료치아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080)023-3333



서울대공원 아름다운 꽃의 향연(사진) 서울대공원이 3월 21일까지 새봄을 상징하는 벚꽃, 목련, 개나리, 진달래 등 아름다운 꽃의 대향연 '새싹 대잔치'를 진행한다. 또한 처녀치마, 둥글레, 노루귀 등 60종 300여점의 희귀식물 새싹 퍼레이드도 펼친다. (02)500-7241

밑반찬 배달 도와주세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무의탁 독거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466-62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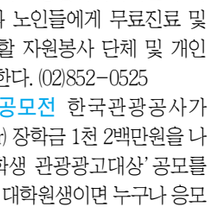
불우이웃 무료진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저소득 주민과 노인들에게 무료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 의료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대학생관광광고 공모전 한국관광공사가(www.visitkorea.or.kr) 장학금 1천 2백만원을 나눠주는 '제1회 대학생 관광광고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관광공사 기업이미지 PR'과 '관광안내전화 1330홍보' 두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출품은 참가신청 후 우편 또는 내방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수는 제한이 없다. (02)729-9485

국제 육아용품 전시회 이플러스가 19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제5회 서울국제 임신출산 육아용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태교용품부터 임산부용품, 임산부서비스, 영유아식품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다양한 용품들이 선보인다. 입장료 3천원. (02)556-2236

취미 · 학습 · 교양 강좌 은평구립도서관이 컴퓨터강좌, 독서교실 등 취미 · 학습 · 교양 강좌를 개설, 4월부터 '제12기 문화교실'을 진행한다. 단 은평구민에 한함. (02)385-1671

즐겁게 떠나요



한성백제 도읍지 탐방(사진) 서울시는 10월까지 매주 넷째주 수요일 서울의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3월의 답사주제는 '한성백제의 도읍지, 송파-강동'으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자료실에서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02)413-9626

3도 3사 순례법회 대구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3월 23일 생전예수재 행사로 경남 쌍계사, 전남 화엄사, 전북 실상사로 3도 3사 순례법회를 떠난다. 동참금 2만 5천원. (053)474-8228

적멸보궁 순례법회 능인선원이 3월 21일 원정사와 상원사로 적멸보궁 순례법회를 떠난다. 동참금 2만 5천원. 017-214-3440

카페트에 소금 뿌려두면 미세먼지 '싹' 흡수

친환경 봄맞이 청소요령

매년 이맘때쯤이면 가정에서는 봄맞이 대청소 울력이 한창이다. 겨울 내내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찌든 때를 없애기 위해 흔히 곰팡이제거제, 왁스 등 각종 청소용 중성세제들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김영란 간사는 "손쉽게 때를 제거하는 제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계면활성제, 글리콜에테르, 제균제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대청소를 마친 후에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화학약품에 인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집안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까? 신문지, 헌 스타킹 등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봄맞이 청소요령을 살펴보자.


창틀은 젖은 걸레나 물을 이용해 때를 불린 뒤 신문지로 닦아낸다.

위→아래·안쪽→바깥쪽으로

◇ 청소에도 순서가 있다=청소를 하기 전에는 먼저 순서를 정해놓아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의 순서로 청소하는 것이 기본. 침실, 주방, 욕실 등을 청소한 뒤 거실, 베란다, 현관 등을 청소하면 효율적이다. 마무리 단계에서 베란다 청소를 하면 물청소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어 편리하다.

카페트, 신문 말아 보관

◇ 침실 및 거실= 침실과 거실을 청소할 때 중점을 둬야하는 것은 진드기 등 각종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운 침구, 커튼, 카페트 등의 세탁이다. 침구를 세탁할 때에는 60℃ 이상의 물에서 세제는 최대한 적게 사용해 세탁한다. 건조시에는 햇볕이 강한 오후 2~3시경에 말려야 살균효과가 탁월하다.

손이 닿지 않는 장롱 위 등에는 긴 막대에 스타킹을 씌워 닦으면 먼지를 깨끗이 제거 할 수 있다. 침대 밑의 먼지는 물에 살짝 적신 신문지로 닦아낸다. 방 바닥은 젖은 걸레로만 닦아주면 눅눅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남는다. 젖은 걸레질 후 바로 마른 걸레질을 해주면 보송보송함을 유지할 수 있다.

거실의 형광등에는 보통 등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이것을 떼어내 식초를 탄 맑은 물로 닦는다. 형광등은 마른 천이나 면장갑을 이용해 먼지를 털어낸다. 실크벽지나 페인트 칠 된 거실벽의 얼룩은 지우개나 식빵으로 제거한다.

카페트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이나 먼지는 테이프로 떼어낸다. 카페트 표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뒀다 청소기를 돌리면 미세한 먼지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카페트를 보관할 때는 신문과 함께 말아두어 습기를 방지한다.

레몬·콜라로 찌든때 제거

◇ 욕실=욕실에는 세면대, 욕조, 타일 구석구석에 물때와 곰팡이가 잘 생긴다. 이는 평소 샤워나 목욕을 마친 뒤 욕실 안에 수증기가 차 있을 때 닦아내면 쉽다.

세면대의 오래된 때는 레몬찌꺼기를 이용해 제거한다. 변기에 찌든 때를 없애려면 변기통에 김빠진 콜라를 부어 몇 시간 뒤 닦는다. 샤워꼭지가 때가 쌓여 막혔을 경우에는 식초물에 담가둔다.

기름때 녹차 티백으로 없애

◇ 주방=대청소를 할 때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주방이다.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띄던 온갖 기름때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기름때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대부분의 기름때는 녹차 티백, 레몬, 감자 으깬 기름 등을 이용하면 쉽게 없앨 수 있다. 가스레인지 표면에 눌러 붙은 때는 마른 천에 식용유를 묻혀 닦으면 힘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이나 키친타올을 10~20분간 표면에 대어 때를 불린 후 면도기로 제거한다.

마무리로 무, 오이, 당근조각을 이용해 닦으면 과일 성분이 알루미늄 표면을 윤이 나게 한다. 싱크대 안에 부직포를 깔아두면 물기를 흡수해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청소할 때는 부직포만 꺼내 빤다.

주방 악취의 원인 싱크대 배수구는 칫솔에 식초를 묻혀 구석구석 밀어줘 물때를 제거한다.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기 쉬운 찬장은 소다를 물에 풀어 닦아주면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칫솔로 창틀 먼지 닦아

◇ 베란다 및 다용도실=베란다와 다용도실의 창틀, 방충망은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해 안쪽을 닦고 물줄기를 뿌려 바깥쪽을 동시에 닦는 효과를 이용한다. 창틀은 물을 살짝 뿌려 때를 불게 한 뒤 뾰족한 것을 이용해 휴지나 신문지로 닦아낸다. 못쓰는 칫솔도 훌륭한 청소도구다. 유리창은 전체에 물을 뿌린 다음 신문지로 닦기만 하면 된다. 젖은 유리창은 반드시 마른 천이나 신문지로 닦아줘야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

신문지 잘라 물 묻혀 뿌리기

◇ 현관=현관 청소의 주역 또한 신문지. 신문지를 잘게 잘라 물을 묻힌 뒤 현관에 뿌려뒀다 물기가 마르기 전 빗자루로 쓸어내면 깨끗해진다. 손때가 많이 타는 현관손잡이에는 알코올을 살짝 뿌려두면 소독효과가 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불단 청소할땐 붓·마른 천 사용

집안의 가장 경건한 곳. 부처님을 모신 불단을 청소할 때의 핵심은 함부로 물걸레질을 하지 않는 것.

개금된 불상이나 대부분 한지로 된 장엄 등에 물기가 닿으면 훼손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대신 붓을 이용해 먼지를 살살 털어내고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아 마무리 한다.

또 청수 등을 올리는 놋기는 광택제를 발라 신문지나 지푸라기 등으로 반짝반짝 해질 때까지 정성스레 닦는다. 향로속의 타지않은 향은 핀셋으로 집어낸다.

단/신

제6회 서울여성영화제 4월2일 신촌서 개막



제 6회 서울여성영화제(WIFFIS2004)가 4월 2일부터 9일까지 신촌 아트레온 및 녹색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제인 캠피온 감독의 '인 더 컷(In the cut)'을 비롯해 신인 여성감독들의 작품을 모은 '영 페미니스트 포럼'과 '아시아 특별전', '마가레테 폰 트로타 감독 특별전' 등의 주제로 나눠 22개국 7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류미례, 임순례, 박경희, 이수연, 김소영 등 국내 감독들과 안젤리카 레비(독일), 리사 마도에린(스위스) 감독 등이 관객과 대화를 갖는 순서도 마련됐다. www.wffis.or.kr

한국여성불자상 제정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한국여성불자상을 제정, 4월 21일 시상식을 갖는다.

불교포교활동 15년 이상인 여성불자 가운데 포교에 앞장서 온 사람이라면 추천 가능하며, 불교관련단체나 기관대표의 추천서, 해당 부분 활동 공적서, 주요 경력 및 이력서, 관련 부분 실적자료 등을 첨부해 4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02)738-5586, www.kwba.or.kr

'부녀 포교사'로 통합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5>

수원포교당 권중서 포교사 가족


지난 1월 새해를 맞아 도선사를 참배한 권 포교사 가족.

세상에 어떤 인연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몇 만겁이 보태져야만 비로소 맺어지는 부모자식의 인연만큼 값진 것이 또 있을까. 수원포교당 권중서(50) 포교사와 딸 가연이(6)를 보면 이를 실감케 한다. 권 포교사 부녀는 수원포교당, 용주사 등 일대에서 '부녀 포교사'로 유명하다.

결혼한 지 18년 만에 태어난 늦둥이 가연이는 어린나이지만 포교사인 아빠 못지 않게 활약이 크다. 가족과 함께 수원포교당의 법회에 나가는 것은 물론, 안성 연꽃마을 감로당 봉사, 용주사 사찰안내, 심지어는 여주교도소 교화봉사까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빠의 포교신행활동에 동참한다. 갓난아기 때부터 법회를 따라다닌 덕에 가연이는 삼일같이 들리던 목탁소리가 안 들리는 날이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안부를 물을 정도다.

"불교계는 유독 청소년불자의 수가 적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는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아침 7시 온 가족 예불로 하루 시작
포교·봉사 현장에 아내·딸 함께 '출동'

귀의, 찬불가는 기본이고 반야심경, 108배 등도 곧잘 해 웬만한 어른 불자들에게도 모범이 된다.

"제 신행활동에 가연이는 든든한 힘입니다. 봉사를 위해 방문하는 교도소 여성 수감자나 중풍, 치매 등을 앓고 계신 할머니들께도 가연이는 큰 역할을 하지요. 그분들께 재롱으로 기쁨을 주고, 맑은 모습으로 정화되는 느낌을 준답니다."(권 포교사)

가연이가 일찍부터 신행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역시 불교적인 가족분위기의 영향 때문이다. 매일같이 새벽 2시 30분에 기상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비롯해 천수경, 아미타경 등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머니 이문호(79) 보살, 가연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권 포교사의 신행활동에 빠짐없이 동참하는 엄마 정무근(47) 씨. 언뜻 봐도 불심이 유별난 이 가족은 매일 아침 모두 모여 7시에 예불을 드려야만 하루일과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이웃들도 매

줘야지요. 저는 가연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불교문화원에서 불교미술강의를 하는 등 오래 전부터 불교미술에 특별한 애정을 보여온 아빠 권 포교사는 가연이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함께 사찰안내를 하면서 불상과 탑의 아름다움, 역사를 통해 가연이의 불교미술에 대한 눈을 조금씩 뜨게 해주는 것이다. 가연이도 조금은 서툴지만 각 부처님의 수인을 따라해 가며 사찰 참배객들을 안내하는 등 불교미술과 역사에 흥미를 보이고 있단다.

"앞으로 가연이가 불교미술 쪽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외 받는 이웃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가족신행으로 가르쳐주렵니다."

한상희 기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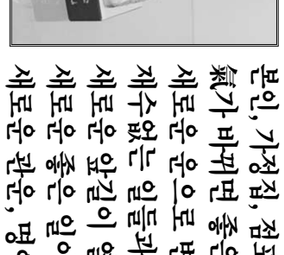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3월 5일. 서울 안국동 백상기념관에는 불교TV 대표이사 성우 스님과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을 비롯한 차인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바로 월간 〈다도〉가 마련한 '중국 자사호 대표작가 7인 초대전'을 보기 위해서다. 자사호 전시와 함께 제작 시연, 작가와의 대화 등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최근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중국차와 다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일반인에게는 아직 낯선 자사호에 대해 알아본다.

자사호 - 작은 주전자에 비밀 많네!



중국 의흥지방 자사(紫砂)이용
수분흡수, 공기투과 차향 잘 표출
견고 윤기 흙냄새 나야 정상
입구 작은것 홍차, 넓으면 녹차 계열



지난 3월5일부터 9일까지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열린 '중국 자사호 대표작가 7인 초대전'은 중국차와 다기에 대한 차인들의 높은 관심을 잘 보여준 행사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사호란

중국의 대표적인 다기인 자사호(紫砂壺)는 중국 의흥(宜興)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사(紫砂)를 이용해 제작된 주전자를 말한다. 의흥 지방은 예로부터 공차(貢茶)를 생산한 곳으로, 차와 다호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됐다. 철의 함량이 비교적 높은 자사로 제작한 다구는 가마 속에서 고온소성 과정을 거치면서 자사 속에 함유하고 있는 광물질들이 분해, 용해, 수축 등의 변화를 일으켜 미세한 공기구멍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불규칙한 기공으로 인해 자사호는 수분을 흡수하고 공기를 투과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차를 우려낼 때 찻잎 속에 함유된 본래의 향, 색, 미를 잘 표출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오색토'라고도 불리는 자사는 자색 이외에도 황색, 백색, 흑색 등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으며, 가소성이 좋아 일반 도자기와 달리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사호 선택요령

자사호를 선별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실용성과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인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태토로 제작된 자사호는 외견상 색채에 윤기가 있고 견고해 보이며 만졌을 때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진다.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면 소리가 맑고 정교하다.

둘째, 자사호의 형태가 균형이 잡혀 있고 정교한 장식과 색채의 조화가 어우러져야 한다.

셋째, 자사호의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흙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이다. 기름 냄새나 염료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자사호의 정밀도 즉 뚜껑과 몸체의 긴밀도가 좋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향이 쉽게 흩어지는 현상이 생겨 차의 맛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측정방법으로는 자사호에 물을 전반 이상 채운 후 뚜껑 손잡이에 있는 공기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자사호를 손에 들고 물을 무었을 때,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긴밀도가 좋은 자사호이다.

다섯째, 자사호에 물을 채운 후 부었을 때, 물줄기가 힘차면서도 곧고 끊어짐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 좋다.

여섯째, 뚜껑을 열고 뒤집어서 평평한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때 자사호의 입구와 물주둥이 그리고 손잡이가 탁자 표면에 접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자사호의 크기와 모양은 사용자의 용도에 알맞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사호의 몸체가 높으면서도 입구가 작은 자사호는 홍차나 흑차 계열의 차를 우려낼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호의 몸체가 낮으면서 입구가 넓은 것은 녹차 계열의 차를 우려내는 데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자사호의 외부 바닥과 뚜껑 내부 등에 찍혀있는 작가의 도장이 선명한 것이 좋은 자사호이다.



▌올바른 사용방법

새로 구입한 자사호의 경우 몸체 전반에 분포된 공기구멍 속과 몸체 안팎에 묻어있는 먼지나 자사 부스러기, 흙냄새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먼저 깨끗하고 냄새가 없는 냄비나 솥을 준비한 후 새로 구입한 자사호를 넣고 깨끗한 물을 자사호의 가장 높은 부위보다 2~3cm 높게 채운다. 처음에는 약한 불로 시작해 천천히 가열하다가 물이 끓으면 자사호의 사용용도에 맞는 찻잎을 넣고 3분 정도 삶는다. 삶아진 찻잎을 건져내고 약한 불로 30분 가량 다시 삶는다. 삶아진 자사호는 깨끗하고 냄새 없는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건조시킨다.

간편한 세척을 원할 때는 내부에 냉수-온수-끓는 물을 순서대로 붓고 따라낸 다음 따뜻한 물에 담가 둔 칫솔로 치약을 발라 씻는다. 마지막으로 끓는 물로 자사호의 안팎을 한 번 헹궈 낸 후 그늘지고 냄새 없는 곳에서 천천히 건조시킨다.

차를 우려내기 전 뜨거운 물로 자사호의 안팎을 헹구게 되면 소독과 동시에 자사호를 데워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의점

차를 우려낸 후에는 반드시 자사호 내부에 있는 차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몸체에 묻어있는 찻물을 깨끗이 씻어낸 후 청결하고 그늘진 곳에서 뚜껑을 열어 보관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내부에 곰팡이가 피거나 나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끓인 물을 가득 채워 천천히 흔들면서 물을 쏟아내고 곧바로 냉수에 담그면 된다. 화학세제를 이용해 세척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자료제공=월간 〈다도〉

우리 사찰 차 모임 — 천태종 관문사 다도회

엄격한 교육 평생 수행 지향

"마음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찻잔이 흔들립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나 마음을 닦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월 9일, 천태종 관문사 다도회 교육현장에서 만난 강숙일 회장은 다도를 통한 수행을 강조한다. "차를 배움으로써 마음을 닦는 법은 물론이고 예절을 몸에 익힐 수 있다"는 강 회장은 "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이를 통해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1999년 결성된 관문사 다도회는 교육이 엄격하기로도 유명하다. 현재 5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2년에 걸친 기초, 중급 과정과 1년간의 연구과정 등 5년에 걸친 다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지 춘광 스님(천태다도연구보존회장)과 이혜자 교수(성균관대 겸임교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회원들 스스로 매년 도자기 제작과 다복(茶服) 염색에 쓰이는 천연염료 제작법을 배우고, 성균관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받기도 한다.

"차는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하는 종합 예술"이라는 이 교수는 "일반 단체들과는 달리 관문사 다도회는 차로써 마음을 닦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과 유리된 행위로써의 다도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의 방편인 셈"이라고 말한다.

다도회원들은 사찰의 중요한 행사 때 마다 다도 시연과 차 공양을 하고 있지만,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법회 때 육법공양을 올리는 것은 절대 빠뜨리지 않는다. 전통 육법공양의 재현을 통해 역대 천태 선사들의 수행법과 다선일여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잊혀진 천태다도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차문화대전'에 참가해 육법공양 시연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5년과정 이수해야 '인정'
도자기 제작, 다복 염색 실습
매달 전통육법공양 재현

현재 이 교수를 비롯한 다도회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숙제'는 '천태다법'의 정립이다. '천태다법'을 정립함으로써 다법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알리고 불교다도의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행다만이 아니라 찻상 하나 찻잔 하나에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을지를 고민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차를 배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빈 집에 들어가도 사람이 가득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자세가 바로 '천태다도'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인터뷰 — 강숙일 회장

'천태다법' 발전에 최선 다할 것



"처음 차를 배우기 시작한 5년 전과 지금의 제 모습과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다도회원들과 천태다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숙일 회장은 올해 큰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 매년 진행해 온 도자기 제작실습과 시연행사 외에 차의 본고장을 탐방하고 제다실습도 겸하는 중국연수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광 스님과 이혜자 교수님을 비롯한 다회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에 힘입어 더욱 내실 있는 다도회로 꾸려가겠다"는 강 회장은 "현재 관문사 다도회는 3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한 관심과 '나를 낮추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당부한다. 017-718-3935

여수령 기자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체의학 天神氣 전수
21세기는 대체의학으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유하는 세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불자님들의 중생제도와 포교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시도록 우주에너지의 초능력 氣를 전수하여 드립니다.
1. 전수과목 : 대체의학, 기치료, 양자파동, 음 양택수맥탐사차단, 초능, 영접, 4차원(氣과학, 氣의학, 생명공학, 양자과학, 동양철학, 4차원 세계)
2. 전수기간 : 4개월간 매주 수요일 10 ~ 13시, 14 ~ 17시(2개반)
특별반 - 지방 10명이상시 출장강의 가능
3. 자 격 증 : 수료후 시험과 논문 합격자에 자격증 수여
4. 수 료 후 : 지방 전수원 개원 희망자에게 지원
5. 기 타 : 현재 난치병 불치병 치유, 수맥 묘소 주택 차단 명당화
지암박사의 세계최초기적
1. 氣사진 : 인체, 주택, 묘지, 수맥파 차단과 질병치유로 신체를 활성화하고 안전보호로 제반사고를 예방하며 (-)전자파를 (+)전자파로 전환하여 전자파 피해를 방지한다.
2. 氣영감 : 직, 원격 건강진단과 지하자원 수맥탐사와 기계 고장부위를 탐지하고 생로병사와 인간관계를 판단하며 설계도와 세계지도만으로 탁상 탐지 판단한다.
3. 氣주입 : 직, 원격 병원체 소멸과 수맥 동기감응 차단제거와 충기 보강으로 인체를 활력화 하며 영기파동수로 난치병을 치유한다.
4. 氣측정 : 생사기력 판단과 인류사적 고금 경세경륜 및 흥망성쇠를 판단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 예지하며 신변문제를 판단하고 지질학적 지기 길흉명당을 판단한다.
5. 氣집판 : 주택, 묘지, 점포, 공장, 병원, 학교, 온실, 축사, 양식장등의 흉지를 길지 명당화 하여 불운을 행운으로 전환하며 가축 가금류의 전염병을 예방한다.
6. 氣전환 : 음료수 의약품 음식물의 음성을 양성전환함으로 세포와 조직 기관을 활성화 하고 (-)유해 전자파를 (+)유익 전자파인 양성으로 전환하여 활력과 건강을 촉진한다.
7. 氣의학 : 인체와 음식물의 적부, 인체와 약품의 적부, 한의학의 4상체질 4초내, 8체질의학 8초내 체질 감별하며 전화 음성만으로도 즉시 감별하고, 사진을 보고 건강진단과 과거 현재 미래를 예지 판단한다
정신세계연구원 KI ACADEMY
대체의학센터 知岩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전철 5,6번 출구 신궁전 예식장뒤 화니빌딩 301호
☎ 02)953-7027, 7077 / H·P 017-409-4758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 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심장마비·협심증·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1965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물러서지 않는 마음 한시도 떠나지 않아야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 법을 믿으러 다니기 때문에 여기 이 절에 왔다고 하실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한 생각, 행동 하나, 한 발자국을 다 따져본다면 하나도 진리에 관한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고,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한도량인 것입니다. '한'이라면 전체를 말합니다. 예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전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요. 이 세상에 죽은 세상 산 세상이 다 가설이 되어 있어서 그 의식 자체가 전부 근본에 가설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두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두어서 광력 자력 통신력 전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말해서, 하늘을 받치고 땅을 딛고 그대로 원을, 전체를 같이 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백지를 알아야 붓대를 굴릴 수 있고, 붓대를 굴릴 수 있어야만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을 한 발로 디뎠다고 하는 것은 평발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도량을 디딘 거죠. 전체를 받치고요. 전체를 굴리고요. 그래서 불바퀴는 그대로 영원한 걸 말하고 물바퀴는 지혜를 말하고 법바퀴는, 즉 말하자면 대권(大權)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대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허명무실한 게 아닙니다. 자비의 대권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안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주의해야 할 상황, 이런 것을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생명들의 의식이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몸 바깥에도 자력으로써 밀어내는 게 있고 밀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도 있고 어떤 혹성에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나고 들고, 든번 난번 교차해가면서 방어하는 게 있단 얘깁니다. 그걸 세 가지 요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몸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든번 난번 이렇게 방어를 해서 지키는 게 있다 이겁니다. 지키는 건 뭐냐면, 레이다망에서 들이느냐 내느냐의 그 지키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을 때 이 레이다망에, (머리를 짚어 보이시고) 즉 누진통(漏盡通)에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벨을 눌러서 온통 집안 식구들을 다 모으듯이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의식 자체가 전부 쏟아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안에서 나가는 것 이걸 상황에 따라 대치를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서로 순환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오로라'라고 이름 짓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모습 없는 의식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습 없는 의식 자체가 한생각에 만 개가 되느냐, 천 개가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하나도 없어지느냐. 이거는 바로 작용에 따라서 그렇게 생기고 일어나고 줄고, 일어나고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바깥의 생명들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깥의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안에서 일어나서 나가고 바깥에서 일어나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고, 안에서 일어나가서 그냥 대치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남을 만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좋게 화하게도 할 수 있고, 돈을 받고 그냥 치우는 것도 있고, 서로 좋게 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권은, 대권은 누가 가졌느냐. 여러분에게 직결돼 있는 근본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믿는 마음에 따라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행을 하는 거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돼서 말을 하는지 어떻게 돼서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즉 말하자면 화두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인공도 있는 것이요, 상대도 있는 것이요, 세상도 있는 것이요, 모두 이름들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발견하고 의식에서 벗어나면 되는 줄 알지만 의식에서 벗어나도 자기 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게 닥쳐오든지 그거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 지혜를 넓혀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자기 공부 재료를 막고 '나는 이런 거 싫다.'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가면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냥 놓고 가거라, 그냥 놓고 가라. 그 근본에다 놓으면 다 된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더 알려고 하지도 말고, 더 내려가서 모르지도 마라. 오직 거기 근본에 직결되어 있는 그 자체에만 놓는다면 그대로 한생각에 가정의 12대 종손까지도 모두 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생각에서, 무슨 돈을 들여서 많이 차려놓고 하는 것보다도 한생각에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고 그저 남한테 기대고 말입니다. 모두 여러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한테다 의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의존하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모든 게 속상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고, 불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비참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힘이 줄어들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거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절대적으로 아주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더욱더 그것은 자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수만 번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경험을 스승 삼아서 오로지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날까지 내가 손을 이렇게 한데 모으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내 양심입니다. 양심에 맹세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여러 식구를 등에 업고서 걸음을 걷는데 무겁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여러분이 다 자기 자신의 자성을 알고, 의식에서 벗어나고 몸에서 벗어나고 진리 속에서, 끄달리지 않아야 여러분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고 세계를 거둘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하면 벌써 이거는 공생(共生)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인 여러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인공' 하면 포괄적인 주인공이지 어째서 개별적인 주인공입니까? 하나 얘기할까요? 작게는 여러분의 속에 들은 의식이 전부 한마음으로 합쳐진 모임의 장소 한생각일 것이고, 두번째 죽은 세상 산 세상이나 천체 한마음의 근본이 한데 합쳐지는 포괄적인 주인공이죠. 첫째도 포괄적이요 둘째도 포괄적이요 셋째도 삼천대천세계가 한데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데 돌아가는데 지금 마음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동시에 여러분이 '내가 물이 없다' 이랬을 때는 포괄적인 데서 개별적으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것을 입을 축이려고 해도 포괄적으로 돌아가야만이 목을 축일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공덕이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경고한다고 한 거는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얼른 안 나서 그럽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을 믿고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찾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본래 있으니 발견하라'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모순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주인공을 머리로 굴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을 검증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굴리는 경향이 즉 30%, 20%는 되더라 이겁니다. 머리는 쉬게 끔 내버려두고 마음으로써 뜻을 가져라 이겁니다. 믿음의 뜻! 뜻으로 내고 들이고 하는 거지 머리로 굴린다면 머리가 고장이 나요.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마음이요, 굴리는 것도 마음이요, 들이고 내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에다 하면 절대로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머리로 굴리니까 머리로 산발이 돼서 바깥으로 내닫고 머리가 도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많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딴 짓들을 하고 말입니다.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다." 요런 소릴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 주인공이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상황을 봐야지요. 지켜보는 놈은 누구냐 이겁니다. 한 발 딛고 받치고 굴리는 놈은 누구냐 이거예요, 굴리는 놈도 그 놈이요, 지켜보는 놈도 그 놈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서 누(累)가 될 일이냐, 누가 안 될 일이냐? 이것을 잘 보고, 내가 이익할 거냐, 이익하지 않을 거냐? 이것을 해서 남이 보기 좋은 거냐, 보기 나쁜 거냐 하는 걸 잘 봐야지요. 그런데도 무조건 주인공이 하란다고 나가서, 바깥에 가서 춤을 추란다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춤을 춰라.' 주인공에서 그런다고 하면 '허허!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해보는구나. 참! 갑사하구나.' 좀 이렇게 다시 굴려서 되놓을 줄은 왜 모르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노예가 돼서 그냥 살지. 이렇게 노예짓을 하나 저렇게 노예짓을 하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머리로 굴리지 말라.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다 놔라.' 하는 거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대로 하는 건 노예생활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가정에 가지 말고 다스님이 되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 다 스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약으셔서 "몸은 비록 이렇게 속세에 있으나 마음이야 스님과 저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아주 틀림없이 고렇게 말을 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값싸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대한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내가 든든하더라도 한 번 더 딛고 한 번 더 흔들어보는 그런 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자나깨나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자나깨나 손을 한데 모으고 자다가도 일어나요. 그렇게 수효가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전부 자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죽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때는 그냥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보죠. '에이, 저건 마음 한 번 돌리면 저 속에서 전부 의식들이 그냥 한마음이 돼주어서 파워 일으켰던 것 다 원활하게 만들고 또 세포가 부패됐던 것이 모두 원활하게 되면 저 얼굴이 그냥 뽀얗게 하얗게 될 텐데.'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고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지 않고 무슨 부처가 필요 있고, 무슨 이 세상이 필요 있고, 상대가 필요 있고, 사랑이 있으며 의리가 있고 도의가 있겠습니까?

날더러 어떤 사람은 부처님 법을 설하지 않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지 남이 해놓은 거 읽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해드려야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한다고 싫다고 그런다면 그만이지 아니, 내가 뭐 골이 비었습니까? 싫다 그러면 그만이지.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 정신을,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눈 코 달린 것도 같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땠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 차이입니다.

오늘 내가 또 한 가지 말해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오로라'라는 의식과 안에서 일어나는 것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바깥에서 바로 자력으로서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그것과 또 방어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방어를 하는 거는 두뇌에서 모든 걸,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일어나서 들어오는 거를 연방 제시한다고 그럴까요? 통신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안에서 일어나서 막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것도 영계의 문제라든가, 세균의 문제라든가, 유전의 문제라든가, 업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대동소이합니다,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치이느냐, 여러분이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성이 없으면 진리라고 이름도 안 붙었을는지도 모르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도에 따라서 항상 나눌 때가 있다면 또 같이 할 때가 있고, 유능하게 지혜 있게 굴려야 될 텐데 그거를 아차, 수습을 못 하면 그 지경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걸 잘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나 보세요. 내가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잘못됐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하다가 가면 가고 말면 말지 하는, 아예 그냥 다 버렸기 때문에 이만이라도 하지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면 되게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고난이 일초에 그냥 막 나한테 다가왔다고 합시다. 그거를 아주 무겁게 놓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셔야지 만약에 그걸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방방 뛴다면 아주 어지러운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거기다 놓고 그냥, 모든 것을 거기 맡겨 놓고 있으면 스스로서 그냥 굴러져서 스스로 평화스러운 게 옵니다, 가정에도 모든 게. 그런데 주인공을 발현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땐 더 터무니없이 야단법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못됐어요. 오히려 거기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말입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떡하나 볼 양으로 그러는 거를 거기 속아가지곤 자꾸 일어나니까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하고, 옆의 사람들 고통만 주게 되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외려 명주올이 전부 묶여 돌아가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묶이면 보이지 않는 데서 풀어야 할 텐데, 보이지 않는 데서 오히려 묶어놓는 형상이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마음, 마음자리 골수를 보려면 여러분의 골수를 알아야 부처님의 골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일산(日傘) 오백 개를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굴려서, 요리를 만들어서 보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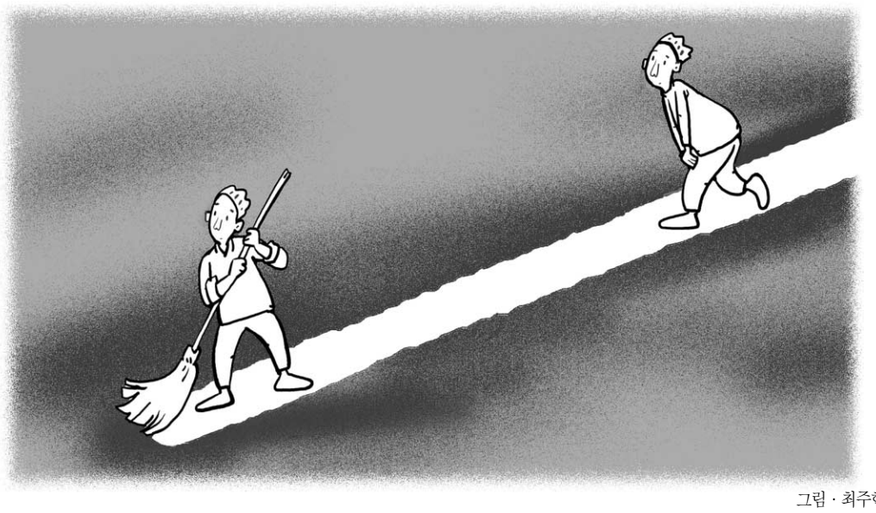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한테 본래 있으니 발견하라

☞29면에서 계속

여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성신,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안이 궁이거든요.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궁. 그 궁, 등(燈) 밝은 그 마음들을 밝은 거기에다가 한데 그냥 합쳐서 탁 주장자를 보여주니깐 확 밝아지면서 대천세계가 그대로 잘 보이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좀더 그렇게만 가실 수 있다면 스스로 그 궁 안의 밝은 등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바깥이나 안이나 다 볼 수 있어요. 머리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게 된다 이겁니다.

봐도 도가 아니에요. 보기만 한다고, 뭐 되는 줄 아세요? 보기만 해도 안 되고 갖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이래도 안 되고 또 이거 있다는 거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도가 아니에요. 단지 이거를 (컵받침을 가리키시며) 마음대로 들고 왔다 갔다 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그 속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왔나? 이거를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선 요게 요렇구나 하고선 요걸 갖다 주기도 하고, 요걸 갖다 먹기도 하고 이래야 도예요. 예? 과정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고,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대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대권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으니 그 대권을 얻어라 이겁니다.

오늘 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했다 금방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 잊어버린 걸 찾으러 갈 수도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처음에 주인공에 놓는 공부, 무조건 믿고 놓고 물러서지 않는 거, 아프든지 어떠한 일이 생겼어도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한다고 거기다 맡겨 놓는 거, 한 발짝도 우리가 그냥 떼는 게 없어요. 생각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깐 거기다가 그렇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자기가 발견이 됐다 하면은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도 또 거기다가 맡겨 놓고, 역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서 좋을 일은 하고 하라는 대로 해서 나쁠 일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좋지 않을 일은. '아하! 이거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런 거를 시키나. 아! 나의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는구나!' 하고선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싱긋이 웃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야죠, 맡기고. 거기에 속아서 그냥 그걸 듣고는 남의 호박 따란다고 호박 따고, 호박잎 따란다고 호박잎 따고, 도둑질 하란다고 도둑질 하고, 온통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고, 이게 무슨 야단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기가 걸어보지 않고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하게 이대로 하신다면 나도 거기 대동소이하게 따라주는 겁니다. 도둑놈이란 게, 뭐 망보는 놈은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이나 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나나 다 도둑놈이 되듯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으니깐 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이거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또 이거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 마음에다 맡기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못된 사람도 횡설수설하는 거를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맡겨 놓으면 그 정신병자들이 다 나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못해서 더디지, 그냥 잠깐 그렇게 그랬던 사람은 그냥 금방 괜찮아지죠. 그러니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날뛰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극치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새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요, 그런 말 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숨길 것 같지만 난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욕을 하든 말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번에 이틀인가, 사흘을 그냥 수분이 다 빠지고선 껍데기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의식들이 다 나가가지고선 채 수습을 못한 거예요. 아예 그냥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나는 절대로 그걸 뭐 망각하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받치고 서 있는 거야. 그대로 서 있죠. 이걸 글리지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모두가 죽어도 죽은 게 없고 살아도 산 게 없구나! 지금 새삼스럽게 그런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죽은 게 없고 살아도 산 게 없구나! 한 발짝도 에누리가 없고 한생각도 에누리가 없구나!'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권세와 돈만 생각하고 희희낙락 '이것만 하면 족하지 이까짓 것 뭐 필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참 너무나 그 사람네들이 안됐구나.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죽을 때 가서는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네가 좋아서, 네가 나 좋아서 따라다녔지 내가 너 좋아서 따라다니지 않았지 않아.' 하고 돈은 답아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전부 그렇죠, 뭐. 그런데 인간이 돼가지고 이 도리를 못 느끼고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 있는 거는 그저 자식들이 담벼락을 지고 돌아서서 울지 않도록만 이끌어주면서, 이 마음의 뿌리를 도와주면서, 재산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될 때는 조금 덜어서 우리가 이런 데 지원이라도 섭립하고 또 이런 데 강당이라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이런 도리를 좀 알고나 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더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냥 배고파서 울게끔 놔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누구 자식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 부모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 가정이니까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한테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들을 생각은 하지 말고 얘기만 하시고 가실 요량 하십시오. 우리 스님네들한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답변은 안 합니다. 왜냐? 멋대로 생각한다면 멋대로 생각하는 대로니까. 생각을 잘 하시라 이겁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따라드리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한다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시더라도 급한 상황은 얘기만 하시면 그대로 상황을 돌리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급하면 급한 대로 주인공에 다 놓고, 여기 들어오셔서 예배 올리실 때에 전체 둥글려서, 즉 말하자면 공덕의 공양을 올리는 거지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상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굴리고 돌아가고, 잘 완화시킬 건 완화를 시키고 급한 건 급한 대로, 여기 와서 기도드릴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그냥 재깍재깍 해나가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급하면 "스님,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곤 그냥 턱 끊어요. "너 들었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아니, 정말이에요. 그냥 얘기만 하고 가는 사람은요, 야! 그 사람 그렇게 알고 가는데, 믿고 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제 놈이. 그러니까 그게 외려 여러분한테는 낫지, 말을 시키려고 애쓰고 목탁을 두들겨줄 때를 바라고 한다면 외려 그 일은 망쳐버려요, 더더서. 아니 한 시간 내에 할 일을 일초에 할 일을 그냥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그 일은 망쳐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 하겁땅 그냥 자기만 따닥따닥 해버리고 딱 끝내요. 그렇게 하면 벌써 입력이 돼 돌아가니깐요. 자꾸 말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도 급박해지고 여러분도 믿지 못하는 게 되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을 다닥다닥 해놓고 입력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되지, 야! 그 뭐라고 그렇게 그러냐 말입니다. 저 부처님이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고) 대답해줍디까? 여러분이 그냥 자유자재껏 말을 하고 온통 원을 다 세우고서 가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산 부처의 일이라는 것이, 즉은 부처의 일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산 부처 즉은 부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여기 무슨 껍데기만 있느니 알맹이가 있느니 하지 마시고, 알맹이가 따로 있고 껍데기가 따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껍데기만 있는 줄 아는 신도님은 자기가 껍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껍데기로 보이는 겁니다. 부처가 부처로 보인다면 자기도 부처일 것이고, 껍데기로 보일 것이면 자기도 껍데기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껍데기 알맹이, 이것을 둘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절대로. 그래도 그 솥 안의 그 팥죽이고, 그 팥죽 안에서 펄펄 끓는 그 방울이 솟구쳐 분수보살이 나오고 보현보살이 나오는데, 어디라고 감히 껍데기 소리가 나오고 알맹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이 행복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도리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십시오. 신행회의 회장님뿐만 아니라 신도 전부가 하나하나 이끌어서 이 도리를 가르쳐주십시오.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가르치고 오면 오는 대로 가르치고, 그냥. 자식들도요,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것 좀 좋습니까? "얘, 네 마음 안에 엄마 아빠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도 다 한데 합쳐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합장하시며) 하는 것도 주인공에 하면은 아빠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급하면 생각나는 겁니다.

어느 학생이 엄마한테 그 소리를 가끔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친구가, 나쁜 친구가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학교를 안 나오고 있던 친구가 나타나가지고는 "너, 아무 데 가자." 그러는데 안 가니까 그냥 주먹으로 여기 볼때기를 지르더래요. 그 순간에 그냥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휴! 이거 이거!" 쥐고만 흔들고는 세 놈이 그냥 가더니만 "에이, 너한테 다 내가 손을 대느니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참,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마는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그러겠죠. 우연히는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길을 걷고,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파괴를 하고, 여러분이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뚱이를 파괴하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지구도 인간들이 다 주인으로 살면서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몸도 보호해가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온 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가 생긴 것도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해나가면 마음들이 스스로 포용력이 생기고, 조화를 이루어서 파괴될 것도 안 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우리들한테 일러주면 우리는 또 마음으로 커버하고 가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과학자들은 연구하면서, 또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걸 해가면서 자꾸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우리는 그거 커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세운다면 이렇게 하찮은 몸뚱이도 수명이 길어질 겁니다, 아마.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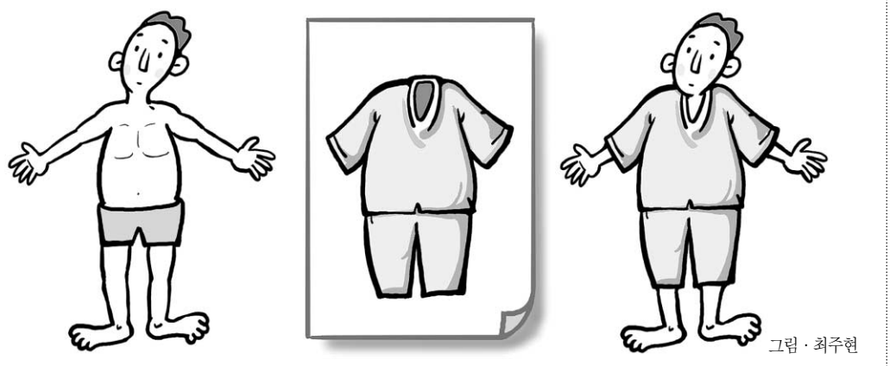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머리는 쉬고 마음으로써 뜻을 가져라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36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님을 모십니다



Size : 54 X 82 (Cm)



Size : 67 X 54 (Cm)



날로 변해가는 세파 속에서 바쁘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저희 효산에서는 인등 심지위에 모양을 그려 아름답게 핀 꽃에 불경을 실어 디지털인화지로 실크코팅 처리하여 작품화 하였으며 부처님은 정근기도문을 실어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지혜로워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희 효산에 작품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판매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작품종류
지장보살,관세음보살,약사여래불,윤회의등불
벚꽃3송이,나비,NS꽃,왕관꽃,왕관,제비꽃,진달래,
토끼풀,봉선화,매화

효산

구입문의 및 상담 02) 422-5335 02) 422-0110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상임 연구원 초빙 공고

학교 법인 한국 불교 학원 · 재단 법인 능인 불교 선양원 부설 세계 불교 문화 연구원에서는 21세기 세계 불교 문화 연구를 주도하며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매진할 유능한 상임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초빙 분야 및 인원

초빙 분야	초빙 인원	자 격
불교학, 선학	약간 명	영어권에서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응모 자격
불심이 돈독하고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영어에 능통하고 공고일 현재 만 40세 미만인 자.

3. 제출 서류
1) 지원서 2부(사진 부착, 연락처 명시)
※ 양식은 능인선원 홈페이지에서 Down Load(http://www.gotobuddha.org)
2) 학력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외국 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술 진흥 재단의 박사 학위 신고 필증 사본(원본제시) 1부 제출.
3) 교육 및 연구 경력 목록(소정 양식)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4) 연구 실적 목록 및 연구 실적물(최종 학위 논문 포함) 각 1부
※ 공고일로부터 만 4년 이내의 연구 실적물에 한함.
5) 자기 소개서 1부(A4 용지에 두 쪽 분량으로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4. 지원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04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우편 접수는 불가함)
2) 접수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능인선원 내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 · 재단 법인 능인 불교 선양원 세계 불교 문화 연구원 준비팀
☎577-5800(700번)
※ 담당자 : 김기호(HP 019-9735-1123 · E-mail : neungin1234@hanmail.net)
※ 인터넷 접수(neungin1234@hanmail.net)

5. 전형 방법
기초 심사(서류 심사), 전공 심사(교육 및 연구 경력, 연구 실적물, 공개 강의), 면접

6. 연구원 대우
국립대학교 교수에 준함

7. 기타 사항
1) 지원자가 극히 적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제출 서류는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공개 강의 대상자 및 면접 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4) 최종 합격자는 계약제로 임용하며, 채용 이후라도 지원 자격 등 임용 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음.

학교법인 한국 불교 학원
재단법인 능인 불교 선양원 부설
세계 불교 문화 연구원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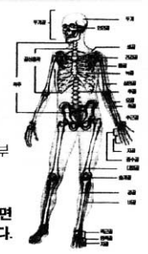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모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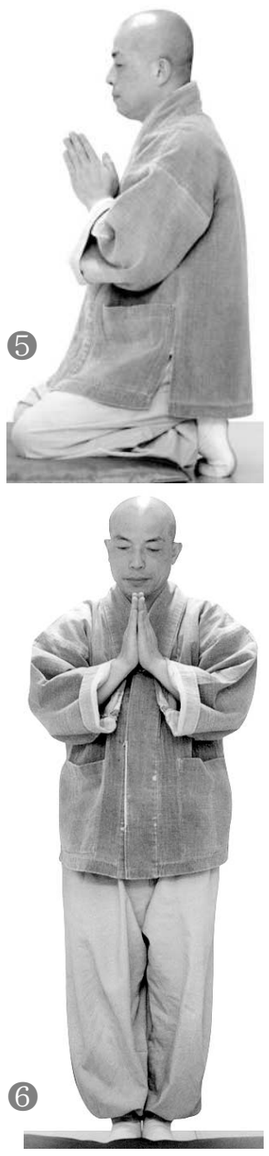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氣차게 절하고 氣 채우자





청견 스님에게 듣는 '절과 호흡'

인간은 숨쉬는 동물이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호흡을 할때 인간의 신체는 반복적 변화를 일으킨다. 숨을 들이쉬면 가슴 속 횡경막이 내려가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 이때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며 배꼽 밑에 있는 단전에 힘이 생겨 마음이 가라앉는다. 반대로 숨을 내쉴때는 내려간 횡경막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마음이 고요해 진다.

절할시 오체투지때 일어서며
들숨-날숨-들숨 반복 호흡

참선, 주력, 절 등 불가의 수행법은 호흡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참선 수행시만 복식 호흡을 할 뿐 절을 할때는 특별히 호흡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법왕정사 주지 · 사진) 스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이 참선이라면 육체를 조복 받는 수행법은 절"이라고 말한다. 절을 한다는 것이 육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절이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절과 호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은 반복되는 동작과 호흡이 조화를 이룰때 몸과 마음에 기(氣)가 원활하게 순환되어 그 효과가 커진다. 합장해 무릎을 구부리며 오체투지 하는 법, 손을 올려 부처님을 받치는 접족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은 스승의 지도만 받으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호흡은 끊임없는 자기 반복을 통해 익혀 놓지 않으면 금세 흐트러지게 된다. 절하는 동작에 맞추어 호흡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장하고 절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히고 엎드리게 되는데 이때 코로 숨을 들이 쉰다(①~③). 오체투지를 할때 코를 땅에 대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일어나기 위해 합장할 때까지 입으로 숨을 내쉬면 된다(④~⑤). 합장하고 일어설 때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쉰다(⑤~⑥). 즉, 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들숨을 쉬고,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려 할때 다시 한번 들숨을 쉰다.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청견 스님은 '흡흡호(吸吸呼) 호흡법'이라고 말한다. 절을 하는 동작과 함께 무의식중에 2회의 들숨과 1회의 날숨이 어우러졌을 때 절을 잘 할 수 있다. 청견 스님은 초보자의 경우 들숨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날숨은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효과

절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면 단전호흡이 되어 복압이 높아지며 정맥을 통한 혈액순환이 순조로워진다. 또한 정신 상태가 안정되며 몸이 편안해짐을 느낄수 있다. 이때 슬픈 감정이나 서글픈 마음 등 번뇌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숨을 내 쉴때는 평상시보다 호흡이 5~6배 정도 길어져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뇌파의 알파파가 증가해 기분이 좋아진다. 더불어 폐 속의 탄산가스와 노폐물이 완전히 빠져나와 집중력, 인내력이 좋아진다. 집중력 강화는 자신감을 길러 자연히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게 한다.

단전 절로, 혈액순환 원활
더운 기운 내려가 머리 맑아져

호흡과 함께 하는 절은 심장의 뜨거운 불기운을 아래로 내려 손발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을 위로 올려주어 머리가 맑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므로 분노와 울화도 풀 수 있다. 호흡에 맞추어 절을 하면 기(氣)가 머리로 모이거나 숨이 차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법왕정사 신도들 가운데는 수행과정에서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질병이 낳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은 이도 적지 않다.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구병수 교수는 "숨을 쉰다는 것이 너무 일상화 되어서 그 중요함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며 "호흡과 함께 한 절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말했다.

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⑪

각 도샤 지나치면 몸에 이상 반응

3도샤가 인생의 각 단계에 미치는 영향 Ⅲ



바타에 부조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평소의 생활 습관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TV를 지나치게 오래 시청한다든지 컴퓨터에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잦은 야간 작업이나 불충분한 수면, 태양 빛을 충분히 쬐지 못할 경우에도 조화가 깨진다. 또 껌을 씹으며 지나친 운동을 한다든가 찬바람에 과다 노출되거나 지나친 여행, 불규칙적이고 정리되지 않은 스케줄, 인스턴트 식품 등도 심신의 조화를 깨뜨린다. 질병으로는 위장내 가스, 골다공증, 불면증, 변비, 감각 이상, 폐기종, 어지러움, 말더듬증을 수반한다. 근육의 경련이나 위축, 통증, 경련, 경직, 건조증, 신경 쇠약, 혼미, 심신 쇠약 등을 가져온다. 감정 변화로는 수다가 심해지고 교만, 허풍,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며 건망증이 심해진다. 또한 불안정, 두려움, 근심, 안절부절, 정신 착란, 우유부단해지는 등 숨기고 비열하며 변화무쌍해진다. 음식은 여름엔 날것보다는 불에 익힌 것이 좋은데, 만약 채소나 샐러드를 날로 먹을 때에는 많은 양의 기름을 쳐서 먹도록 한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 잘 익힌 밥이나 국수, 채소 뿌리를 섭취하면 이롭다. 바타 체질은 뜨겁고 달고 짜고 신 음식이 맞다.

'조화' 깨진 생활이 바타 부조화 초래
뜨겁고 달고 짠 음식이 이로워
산행 · 감각 자극 등 통해 카파 감소

이상에서 보았듯 각 도샤는 지나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지나친 도샤들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유르베다에서는 그 방법들을 신체의 감각 기관별, 심신의 활동별로 나누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카파 도샤가 지나칠 때 감소시키는 방법들이다. 이때는 건조한 지역이나 높은 산을 걷는 것이 좋다. 특히 태양이 밝게 빛난 바람 부는 날이 좋은데, 등산을 하거나 평지를 기운차게 걸어주면 된다. 강한 유산소 운동, 달리기, 일광욕, 사우나, 바람 쏘이기, 잠 덜 자기 등도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감각 기관을 이용한 감소법을 보자. 카파 체질은 강하고 자극적인 것이 도움이 되는데 자극적인 음악, 강하고 힘을 주는 소리들이나 노래 등을 듣는 게 좋다. 시각적인 면 역시 노랑이나 오렌지색, 금색이나 빨간색처럼 밝고 자극적인 색깔을 접하도록 한다. 음식은 가볍지만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것, 또는 양념들을 많이 넣은 쓰고 떫은 맛이 좋다. 가끔씩 굶는 것도 괜찮다. 향기 요법엔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주로 사향, 삼나무, 미루과의 몰약, 장뇌나 유칼립투스 향기를 이용한다. 겨자 오일이나 분말로 피부를 강하고 깊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다.

감정은 초연하게 가질 것을 권한다.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다. 장기나 바둑 같은 정신 운동이 도움이 되며 과거나 전통에 매달려 스스로 속박당함이 없도록 한다. 마음을 고요히 가져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명상 시 만트라를 외우는데 이때 카파의 나쁜 기운을 줄여주는 주문---아임(Aim), 크림(Krim), 훔(Hum)과 같은 만트라를 반복해서 외워주면 좋다.

■ 포천중문의대

주지스님 초빙공고

본 사에서는 가람수호와 불법 홍포 발전에 기여할
덕높으신 주지소임스님을 아래와 같이 초빙코져합니다.

아 래

1. 자격 및 년령
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및 3안거 성만 이상
40세 이상의 비구, 비구니스님
2. 초빙인원 : 0명
3. 구비서류
가. 수행이력서(사진부착) 1통
나. 주민등록 등본 1통
다. 승려증 사본 1통
라. 강원 졸업 및 안거 성만 확인서 1통
마.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통
4. 접수방법 : 우편접수
5. 접 수 처
우 770-872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충효사
6.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후 개별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기도영험도량 충효사
주말 용맹정진 기도도량 무학사
천일지장경 독송회 근본도량 염불원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회주 석해공 합장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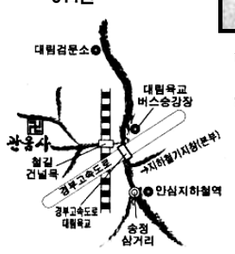
노천에 모셔진 약사여래 불상 앞 다기에 거꾸로 치솟아 맺힌 고드름



약사여래기도도량인 대구 동구 안심 태고종 관음사(주지 벽파스님)에서 지난달 2월 9일 새벽 3시경 예불을 올리고 난 다기물에 위로 10Cm쯤 치솟은 모양으로 고드름이 형성된 기현상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라 생각하면서 뒤늦게 알려져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한국불교 제406호)



▶ 찾아 오시는길
대구시 동구 안심지하철역에서 하양쪽으로 약300m전방 대림육교 좌측 철길앞 이정표 표시
<버스노선 대림육교하차>
좌석 : 708, 508, 518, 555번
입석 : 55, 818, 808, 814-1, 814번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29-2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관음사
주지 벽파 합장
▶ 문의
053)963-4028

육임학(六壬學)교실

시간에 마술사 태산육임원에서 태산대전으로 시작합니다.
육임학(六壬學)은 이미 오천여년 전 현녀(玄女), 황제(黃帝) 시대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러렀는데, 이는 음행오행상생상극(陰陽五行相生相剋)의 법칙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보다 더 훌륭한 정단법(正斷法)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나 흉재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전문가의 감정을 받고자 하니 여러분이 이 학문을 체득하여 처세상의 좋은 지침으로 삼는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반	중급반	연구반	명리반
기초수업 9명 정원	人事세밀정단 9명 정원	사과상전표 비전활용법	추명학

- 육임학을 처음 체득하시는 분!
- 기초를 체득하였으나 아직 활용을 못하시는 분!
- 비전, 필법부, 간법, 사과삼전을 연구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

육임관련서적
10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길흉정단법(吉凶正斷法)
11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실천감정법(實踐鑑定法)
12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세밀감정극비전(細密鑑定極秘傳)
16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초학상해(初學詳解)
18,19,20권 육임천문역(六壬天文易) 감정비전(鑑定泌鍵) 上 中 下

추명학관련서적
1-1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입문(入門)
1-2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오의(奧儀)와 응용(應用)
3,4,5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오비전(奧秘傳) 上 中 下
6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조후용신대법(調候用神大法)
7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행운간법(行運看法)
8,9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실천법(實踐法) 上 下
13권 천문자미운명학(天文紫薇運命學)
14권 간명(看命) 원칙과 실천(實踐)
15,21,22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적천수화해(滴天髓和解) 上 中 下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501-7번지 1층
자료구입 계좌 : 대구은행 093-08-247393 (예금주 : 손외경)
전화 053)627-0170 / 휴대폰 016-580-6654

"…나 홀로 존귀하도다" 외침 들리는듯



룸비니 동산 (143×74cm).

인도그림기행 38

그림·글 이호신

붓다의 탄생을 다시 기리며

(룸비니 동산에서의 사색)

꽃·초목·만국기로 출렁이는 룸비니 동산
아쇼카 석주에서 '성역'의 고귀함 느껴
마야당은 소망 기원하는 이들로 가득

이른 새벽, 마침내 훗날 붓다가 되는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곳. 룸비니 동산을 찾기로 한날, 새벽예불은 내 영혼의 작은 심지를 흔들어 놓았다. 아니 빛을 발하며 타오르는 촛불 아래로 흘러내리는 촛물처럼 내 볼을 타고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만 흘렀다.

화첩기행의 여독과 향수 때문도 아니오, 참회의 시간만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알 수 없는 눈물은 마음속 깊이 흠모해온 어떤 존재와의 인연. 그 만남이 시공을 초월, 뜨거운 감격으로 한 순간 북받쳐 올랐던 것 같다.

삼월이 오면 온갖 꽃이 피고 싱그러운 초목아래 새소리 가득하다는 동산은 만국기 물결로 출렁이고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붓다의 탄생을 찬탄하는 축제의 판타지아처럼 느껴진다.

한편 룸비니 유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붓다 탄생을 기리는 마야부인 사원과 연못, 그리고 탄생지 기원을 알려주는 아쇼카 석주이다.

동산이름은 마야부인의 친정어머니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하니 위대한 외손을 낳은 딸의 어머니로서 큰 예우를 해주는 셈이다. 자식은 부모가 낳은 작품(?)이라는 입장에서 모태(母胎)의 사랑과 헌신은 언제나 위대하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 하도다(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나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

아기 태자가 태어나 일곱 발자국을 옮기며 외쳤다는 최초의 발언은 '스스로 세상에 귀한 존재가 되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으니 청년 싯다르타의 출가와 이후 견성을 이미 예고한 바나 다름없다.

불조(佛祖)의 탄생은 따라서 일찍이 전생에 정업(淨業)을 닦아 세상에 나툰 이유만으로 그의 존재는 깨달음을 얻어 사바 세계를 향해 걸어가야 할 타당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석가는 깨우친 순간 중생에 대한 미칠듯한 그리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따라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친 것은 참으로 깨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깨우침이었다면 이제까지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죽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너 없이는 못살아'라는 느낌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구나…
나 넓은지를 몰랐구나. 나 깊은 줄을 몰랐구나.
나 높은 것도 몰랐구나."
(윤구병 '부처됨의 어려움' 중)

위 글의 통찰이 왜 오늘 따라 간절해 오는지. 붓다의 탄생지에 와서 유물감상도 좋지만 진정 불조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또 얼마나 귀한지.

날은 오늘 따라 화창하여 오색 만국기가 거대한 보리수들 사이로 춤 추는데 나무아래 주저앉아 화첩을 펴고 보니 아기 왕자가 목욕했다는 연못과 그 주변의 발굴 유적, 그리고 아쇼카 석주가 아스라이 드러난다. 아쇼카 석주에 새겨진 글을 통해 붓다의 탄생지로 밝혀진 사실(1896년 독일 고고학자 휘러의 발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많은 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야다시(아쇼카) 왕은 즉위한지 20년이 지나 이곳을 친히 참배하였다. 여기서 붓다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로 말의 형상을 만들고 석주를 세우도록 했다. 이곳에서 위대한 분이 탄생했음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기리어 룸비니 마을은 조세를 면하고 생산물의 8분의 1만 징수케 한다."

그 옛날 룸비니 동산을 성역화 시킨 왕이 아쇼카이고 오늘의 나그네는 그의 걸음을 따라왔으니 만남도 세월속 바람처럼 흐르는 것일까. 그리고 그 바람속의 오늘. 녹야원에서 만났던 순례객들이 또 반기니 말없이도 바라보는 눈매들이 고웁다. 이래저래 딴 짓(?)을 하는 나는 어느 곳에서나 발각되고 관심을 끌게되는 팔자이려니.

마야당안을 들러보자. 잘 알려진 대로 사라수 나무를 잡고 아기를 잉태하는 마야부인의 '붓다 탄생' 조각이 눈길을 끈다.

인도신화에선 바라문은 신(神)의 입으로, 왕족은 신의 옆구리로, 바이샤는 신의 배로, 수드라 천민은 신의 발바닥에서 태어난다고 하니 왕족인 싯다르타는 이미 신화적으로도 합당한 경우이다. 탄생설화를 빼고 나면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조각상이련만 향을 사르며 경배와 더불어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는 사람들로 연일 초 만원이다.

이 위대한 탄생조각 앞에서 최초로 선언했던 아기 붓다의 외침을 다시 되새겨 본다. 결국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구나'가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이로써 모든 세상의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완성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수많은 부처가 뜻을 이어 이 땅에 도래해야할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동산을 떠나오며 내가 만나고자 한 붓다는 룸비니에만 계시지 않고 온 누리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있으며 그 생명의 씨앗이 저마다 싹트고 있음을 자각해야 했다. 그리하여 내 존재의 존귀함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새삼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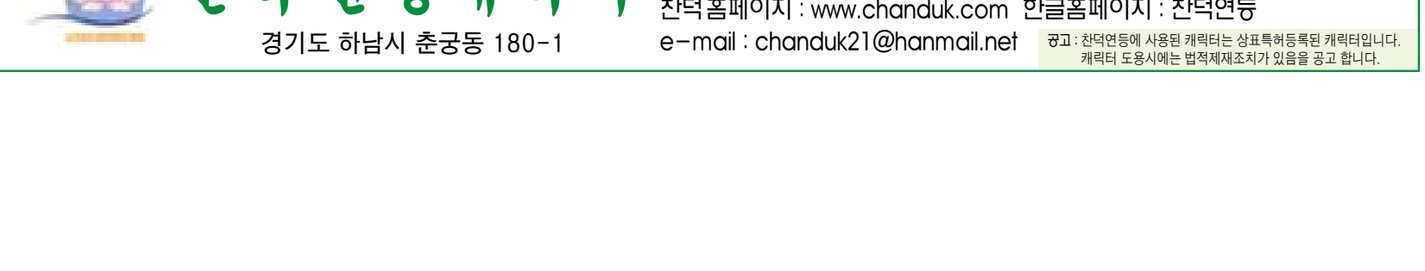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